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배 지 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민 선 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민 선 옥

인 준 서

민선옥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0월

심사위원장 전 홍주 (인)

심 사 위 원 최 일선 (인)

심 사 위 원 이 문 옥 (인)

심 사 위 원 권 정 윤 (인)

심 사 위 원 배 지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하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부모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문헌고찰, 요구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시안 개발, 전문가 협의, 예비연구, 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목표는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의 분석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기 경험과 양육행동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민주적인 훈육원리와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로 선정하였다.

둘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은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자아상태의 활성화 방안,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 부모의 자녀기 분석, 부모역할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

고,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기술,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로 구성하였다.

셋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는 몸과 마음열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해결방안 적용하기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교수방법으로는 강의, 문제상황극, 토론, 저널을 선정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교수를 위하여 PPT, 인쇄물 및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넷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평가는 자아상태와 부모 참 역량 검사도구의 활용 및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 3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Y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 참여관찰,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저널과 평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질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나타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및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기체계역량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참여 어머니들의 자기체계역량을 증진시켰음을 의미한다.

둘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역량에 대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참여 어머니들의 양육역량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부모역할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욕구와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이 고정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부모역할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부모역할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권위적인 양육행동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가지는 욕구를 반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론연극은 부모들이 실제 삶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발견하면서 다각도로 접근하도록 돕는 토론과 실연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는 토론연극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9

3. 용어의 정의 ····· 10

4. 연구자 배경 ····· 11

Ⅱ. 이론적 배경 ····· 14

1. 부모교육 ····· 14

1) 부모교육의 개념 ····· 14

2) 부모교육의 필요성 ····· 18

3) 부모교육의 내용 ····· 23

4) 부모교육의 교수-학습방법 ····· 30

2. 토론연극 ····· 35

1) 토론연극의 개념 및 중요성 ····· 35

2) 토론연극의 방법 ····· 38

3) 토론연극의 가치 ····· 41

Ⅲ.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48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 48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 51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 72
3) 프로그램 시안 개발 ····· 85
4) 전문가 협의 ····· 87
5) 예비연구 ····· 88
2. 프로그램 구성 체계 ····· 92
1) 목적 및 목표 ····· 93
2) 교육내용 ····· 93
3) 교수-학습방법 ····· 98
4) 평가 ····· 108

Ⅳ.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 111
1. 연구방법 ····· 111
1) 연구대상 ····· 112
2) 연구도구 ····· 122
3) 자료수집 ····· 127
2.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적용 ····· 131
1) 연구 유치원 및 연구 참여자 선정 ····· 131
2) 1차 개별면담 ····· 131
3) 사전검사 ····· 132
4)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32
5) 사후검사 ····· 140
6) 2차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 ····· 140
3. 자료 분석 ····· 141
1) 양적 자료 분석 ····· 141

2) 질적 자료 분석 ····· 141
3)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 ····· 145
4. 연구결과 및 해석 ····· 146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 146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 157
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변화 ····· 176

Ⅴ. 논의 및 결론 ····· 238
1. 논의 ····· 238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 238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따른 영향 ····· 247
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변화 ····· 251
2. 결론 및 제언 ····· 26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프로그램의 목적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 52
<표 2> 프로그램의 목표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 55
<표 3>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 59
<표 4>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 64
<표 5> 프로그램의 교수방법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 69
<표 6>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 71
<표 7>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 73
<표 8>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지 문항구성 ····· 74
<표 9>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요구 ····· 76
<표 10>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한 요구 ···· 77
<표 11>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 78
<표 12> 요구조사 분석 결과 및 적용점 ····· 82
<표 1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안의 구성 체계 ····· 85
<표 14> 예비연구 내용 ····· 89
<표 15>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체계 ····· 93
<표 16>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95
<표 17> 문제상황극의 제목 ····· 101
<표 18> 문제상황극과 문제해결극의 시나리오 예 ····· 104
<표 19> PPT 회차별 자료 ····· 105
<표 20>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평가 ····· 110
<표 2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13
<표 22> 자아상태의 하위요인별 내용 ····· 124

<표 23> TACA형 자아상태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125
<표 24> 부모 참 역량 측정도구의 척도 내용과 신뢰도 계수 ····· 126
<표 25>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절차 및 내용 ····· 127
<표 26> 프로그램의 전체일정 및 교육내용 ····· 132
<표 27> 자기이해 관련 내용의 '알고 싶은 나' 교육활동계획안 ····· 135
<표 28>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과정과 관련된 질적 자료의 범주 ····· 143
<표 29> '자기체계역량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46
<표 30> '능동적 행동'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49
<표 31> '자기주도 문제해결'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50
<표 32>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52
<표 33> '강점 자기역량 개발'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54
<표 34> '지속적 자기성찰'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56
<표 35> '양육역량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58
<표 36>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60
<표 37> '부모-자녀 관계 이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62
<표 38> '건강한 부모관 갖기'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64
<표 39>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66
<표 40> '인내심 갖기'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68
<표 41> '민주적 양육'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69
<표 42> '반응적·공감적 양육'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71
<표 43> '자녀생애 진로개발'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73
<표 45>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 175

그 림 목 차

[그림 1] Boal이 제시하는 토론연극의 절차 ····· 41
[그림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절차 및 연구과정 ··· 49
[그림 3]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목적 추출 ····· 54
[그림 4]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목표 추출 ····· 58
[그림 5]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내용 범주화 ····· 62
[그림 6]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 ····· 68
[그림 7]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 ····· 88
[그림 8]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체계 ····· 92
[그림 9]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 ····· 98
[그림 10] PPT 자료 활용의 예 ····· 106
[그림 11] 인쇄물 활용의 예 ····· 107
[그림 12] 자아상태 검사 결과지 활용의 예 ····· 108
[그림 13] 참여자 저널 활용의 예 ····· 109
[그림 14] 참여자 평가지 활용의 예 ····· 109
[그림 15]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적용 과정 ····· 111
[그림 16] 질적연구의 자료 분석방법 ····· 142
[그림 17]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체계 역량 전체' 점수 비교 ····· 148
[그림 18]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능동적 행동' 점수 비교 ····· 150
[그림 19]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주도 문제해결' 점수 비교 ···· 151
[그림 20]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점수 비교 ····· 153
[그림 21]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강점 자기역량 개발' 점수 비교 ·· 155
[그림 22]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지속적 자기성찰' 점수 비교 ····· 157

[그림 23]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양육역량 전체' 점수 비교 ····· 159
[그림 24]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점수 비교 ···· 161
[그림 25]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부모-자녀 관계 이해' 점수 비교 ····· 163
[그림 26]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건강한 부모관 갖기' 점수 비교 ·· 165
[그림 27]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점수 비교 ····· 167
[그림 28]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인내심 갖기' 점수 비교 ····· 169
[그림 29]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민주적 양육' 점수 비교 ····· 170
[그림 30]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반응적·공감적 양육' 점수 비교 ····· 172
[그림 31]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생애 진로개발' 점수 비교 ···· 174
[그림 32]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점수 비교 ···· 17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양육환경이 변화되었고, 사회·경제적 현실과 그에 따른 가치관이 급변하며 부모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정곤 외, 2014; 박선숙, 2011). 하지만 부모교육은 여전히 부모들에게 단편적 지식을 제한된 방식으로 습득하게 하고, 부모들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한정적인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경험했던 부모의 가치관, 태도,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여 답습하면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혜경, 2014; 전우경, 2010).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부모들은 좌절을 느끼고, 자녀양육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과 미성숙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김성찬, 2014), 대물림된 부모역할의 답습과 부모역할에 대한 좌절로 인하여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기 어렵게 된다(조형숙, 김명하, 2012).

부모교육은 부모에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교육은 자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부모가 스스로 효과적인 양육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적용하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이다(이순형 외, 2010).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서구의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체계성을 갖추어가고 있다(이완희, 최양미, 2009; 이재택, 2016). 우리나라에서 기관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며(김영옥, 2007; 도미향, 마미정, 2005; 이경화, 김연진, 배지현, 2009), 이 시기에는 서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김혜경, 2014; 장성애, 유연옥, 2008). 하지만 서구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소집단 모임을 활성화하는 총체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정윤정, 2007), 그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개발 근거를 분석하고,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이재택, 2016). 더불어 정부도 부모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부모교육 자료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박선미, 2016).

또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문주형, 2015). 초기에는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훈육기술을 중심으로 부모의 훈련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교정과 치료를 목적으로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혜경, 2014; 이병호, 오한나, 허수향, 2013; 이정주, 이종연, 2014).

부모교육은 사회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양육방법의 효과성이 사라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서상아, 2017; 이영자, 2007; 조둘연, 2006; Dreikurs & Soltz, 1992/2012). 또한 부모교육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방법의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과 부모-자녀관계에서 많은 갈

등을 경험한다는 보고들(박선숙, 2011; 전춘애, 이미숙, 2003)은 오늘날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역할의 특성과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김혜경, 2014).

부모역할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 자신의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부모들은 기존의 양육방식을 고수하는 경향과 자신에게 익숙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간다(김동주, 2013).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지속적인 변화가 양육방법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김미숙, 2013; 정계숙, 노진형, 2006). 또한 부모역할은 연습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역할이며, 성인기의 다른 역할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지현, 정지나, 조윤주, 한준아, 2008; 이재경, 2014). 이에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자신의 변화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에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행동이라는 부모역할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교하여 부모역량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자녀양육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한다(이명순, 고여훈, 2016). 부모역량은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부모역량은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적응적 차원과 실제양육에 필요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초 사회심리학자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소개가 되었고, 그 개념적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Spencer와 Spencer(1993)의 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역량’이란 어떤 직무나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뛰어난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다.

국내에서 ‘역량’이라는 용어는 직업교육이나 훈련분야에서 직무나 업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소경희, 2007). 이후 OECD(2003)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의 개념을 직업분야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재규정하며, '역량'은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Rychen, 2003). 역량에 대한 개념이 최근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교육으로 확산되었고(소경희, 2007)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부모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명하, 2013; 이명순, 고여훈, 2016; 정계숙 외, 2015).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대체로 취약계층이나 장애아를 가진 부모,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박수홍, 2014; 박재국, 서보순, 김혜리, 2011; 이명숙, 2011; 이은경, 2013; 한경님, 2013), 양육지식이나 양육태도와 관련된 부모의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주로 강조해 왔다(장혜진, 윤은주, 2014).

기존의 부모역량 증진 연구들은 일반적인 양육 상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모의 지식 및 기술 등과 같은 역량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제를 부모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계숙과 최은실(2013)은 부모역량을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을 강조하는 양육역량, 한 인간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 자기체계 역량, 한 사회인으로서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인 사회적 역량까지를 포함하면서 종래의 부모역량에서 그 개념을 확장시켰고, 이를 차별화하기 위해 '부모 참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동안의 부모교육은 양육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두고 양육역량의 증진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부모교육에서 양육자로서의 부모역할만을 강조하다보니 공통적으로 부

모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 자각을 얻기 위한 맥락이 강조되고 있다. 김명하(2013)는 부모교육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자녀양육에 의미가 있지만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우경(2010)과 장성오(2011)도 부모교육의 목표가 지나치게 부모로서의 교육과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차적인 과제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임을 강조하였다. 조형숙, 박은혜, 신은수, 김낙홍(2012)은 부모로서 성장하고 부모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부모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2007)도 부모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될 때 부모의 태도변화가 가능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해가 부모역할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Paris(2013)는 자신의 어릴 적 부모의 양육방법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부모의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 스스로 심리적 통합을 이루면서 부모로서의 자각을 얻기 위한 부모교육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능력 외에도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모역량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기반으로 부모역할을 돕는 양육역량·자기체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근래에는 부모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해 교류분석이론, 개인심리학, 자기분화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잠재된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모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인 사고의 발견이 부모역할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김경화, 2003; 김동주, 2013; 김명하, 2013; 문주형, 2015; 오세덕, 1995; 전우경,

2010; 장성오, 2011). 또한 Paris(2013)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자녀의 갈등경험을 자극하여 자아에 대한 자각을 얻을 수 있는 맥락을 발전시키는 교육을 제안하였다. 즉, 신념-행동 패러다임과 같은 맥락에서 양육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노진형, 2005b).

부모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가 모든 양육 상황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널리 활용되어 왔던 강의식과 전달식의 방법으로는 부모교육에서 배운 양육지식과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의식 방법을 활용하는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미숙, 2013; 김숙영, 2008; 노진형, 2005b; 이재경, 2014). 토의식 방법은 유사한 양육 상황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토의하면서 부모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지식이 형성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교육에 활용되는 토의식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들을 근거로 현재 교육기관과 기업체 교육에서 도입되고 있는 토론연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토론연극은 교육연극의 하위개념이며, 교육을 위한 연극이다. 즉, 연극이라는 예술장르에 존재하는 여러 극적 기술과 방법을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연극은 '교육과 예술의 교차점에 존재'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과 예술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연극을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이 '연극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라는 보다 폭 넓은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최지영, 2014). 교육연극이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소외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이다(민병욱, 2001). 현재 교육연극이 다양한 영역

에서 연구되면서 토론연극은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은주, 2013; 박혜련, 2006; 신지수, 2010, 이명아, 2013; 장은아, 2015).

토론연극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연극과는 달리 연극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토의와 분석과정에 초점을 두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육적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학습방법이다(김정은, 2003; 최윤정, 1995). 토론연극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상황과 앞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실연하고, 공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법을 찾아낸다(성기욱, 2011; 장은아, 2015).

따라서 토론연극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토론연극이 문제해결과 교수-학습방법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토론연극은 참여자들의 자기이해, 의사소통, 공감능력, 적극적 참여와 같은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토론연극을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할 때 학습에 대한 흥미, 능동적인 참여, 사회를 대하는 태도들이 향상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김달(2016)은 토론연극을 활용하여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갈등이해, 자기이해, 타인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허세정(201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연극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 참여, 타인과의 관계개선, 문제해결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장은아(2015)는 토론연극을 활용하여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재연하도록 한 결과,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나타났으며 더불어 직원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행동의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김은주(2013)는 토론연극의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문헌연구에서 토론연극이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으로 토론연극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사회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만들게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 토론연극은 참여자들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으면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교수-학습방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강의식과 전달식 부모교육이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론연극을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자기이해와 변화를 돕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과거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미숙, 2013.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이병호 외, 2013). 하지만 부모교육은 여전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이재택, 2016), 부모역량에서 부모 자신의 이해를 돕는 자기체계 역량을 추가하여 부모역할을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접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삶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하면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부모가 토론연극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경험과 변화양상이 어떠한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

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어떠한가?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어떠한가?
   (4)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가?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역량

부모역량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한 가치관이나 동기와 같은 내적 요인을 포함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까지를 의미한다(이명순, 고여훈, 2016).

본 연구에서 부모역량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토론연극

토론연극은 관객과 배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제시된 문제상황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사회교육 연극의 하나이다(신지수, 2010). 즉, 토론연극은 문제상황극의 공연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억압에 의한 오류를 토론과정에서 발견하고 해결책을 선택하여 행동하게 한다(이명아, 2013).

본 연구에서는 토론연극을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참여를 이끌고, 자녀를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육하면서, 부모 자신도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토론연극은 부모가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문제상황극으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에서 부모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상황적 맥락 안에서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S유치원의 원장이다. 연구자는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 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해 3~4기의 부모교육 동아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부모교육 동아리의 운영기간은 기수 당 4회~8회로 교육주제와 시기 등에 따라 차등하게 운영되었다.

부모교육 동아리에 참여한 부모들은 매해 부모교육 동아리를 재신청하고 참여한다. 유치원의 원장으로, 부모교육자로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은 매우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여전히 같은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는 그들의 실천력이 부족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자는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부모교육은 어떠한 것이며, 그들의 양육태도에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다년간의 부모교육 경험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동아리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니들에게 연구자의 고민을 되물어 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답변은 이구동성이었다. 어머니들은 훈육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과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주춤거리게 되면서, 이내 익숙한 방법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부모교육 동아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반응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들의 지식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도록 돕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부모교육이론과 심리학, 놀이 등 관련된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서 처음 교육연극을 접하게 되었다.

교육연극과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기존의 부모교육이 부모들을 소극적인 학습자로 참여시켰기 때문에 부모들은 훈육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경험이 미흡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판단에서 연구자는 교육연극의 종류 중 토론연극의 적용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부모교육에서 토론연극을 활용한다면, 부모들은 적극적인 학습자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자기화하고,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부모교육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참여하는 부모교육은 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이끌어주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서울시 유치원의 컨설팅 장학위원으로 교육과정영역과 부모교육영역에서 여러 유치원의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컨설팅 장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다. 교사들은 부모들의 지나친 요구와 비상식적인 태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과 가정이, 교사와 부모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가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치원에서 수년간 부모교육을 운영한 연구자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담임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부모교육 동아리에서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자녀들의 유치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자녀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때, 교사들에게 유아의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전달하곤 하였다. 이처럼 부모교육에서 교사의 참여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교사들은 부모들의 개별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교사와 부모 간의 교류는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발

전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더욱 확장시키고, 부모-교사가 자녀양육과 교육에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사가 참여하는 부모교육을 계획하게 되었다.

유치원에서 원장이 운영하는 부모교육은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치원들은 이를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의식과 전달식처럼 부모교육 시간을 원장이 이끌어야만 하는 부담과 그 역량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토론연극을 부모교육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원장 혼자 부모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협력적인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유치원 현장에서 보다 쉽게 실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활용한 강의식과 전달식의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원장, 교사, 부모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함께 이끌어가는 부모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교육

1)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김영옥(2007)은 부모교육이란 부모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순형 외(2010)는 부모에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역할의 이해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부모역량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적용하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아교육사전에서 부모교육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나 예비부모를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으로 정의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가정생활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시하였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9).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을 돕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교육은 그 동안 시대의 이론적 근거와 역사, 정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김희진, 2005). 이러한 부모교육의 변화를 학자들은 교육대상, 내용과 용어, 방법으로 구분하였다(김영옥, 2007; 김희진, 2005; 박선미, 2016; 이명지, 2011; 최명희, 2016)

먼저, 초기 부모교육에서 가정의 환경과 어머니의 영향을 중시하였고, 이에 주로 어머니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등

장하게 된 10대부모, 미혼모,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실천되었다. 이는 현대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 전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박선미, 2016). 부모교육에서 그 대상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역할을 하는 성인으로 확대되는 것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서 부모교육의 대상이 더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목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영옥, 2007; 전귀연, 김수경, 2005).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미나, 2014).

다음으로 부모교육의 내용은 체벌을 통한 엄격한 훈육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점차 자녀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애정적인 양육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해갔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권위적인 방식보다는 부모와 자녀관계의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김영옥, 2007, 서상아, 2017; 이순형 외, 2010; 최명희, 2016).

이와 같이 부모교육의 내용이 부모역할, 양육태도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로 구성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자녀양육의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관점에서 '부모훈련', 부모-자녀 간의 대화를 비롯한 자녀 지도에 포함하는 모든 활동의 양육자라는 관점에서 '부모역할하기', 부모와 가족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는 관점에서 '가족지원' 등으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영옥, 2007; 김희진, 2014). 그 외에도 부모교육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기도 했다. 기존의 정의에서 교

육대상인 부모를 미성숙한 대상으로 규정해 '결핍된 가정의 부모', '배움이 부족한 부모'라는 인식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점차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결핍된 가정의 부모를 돕기 위한 관점에서 '부모개입', 부모를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부족하고 배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부모교육', 부모를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모참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부모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부모협력' 등이 혼용되고 있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다양한 부모교육 관련 용어들은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이원영, 배소연, 2000). 또한 2008년부터 유아교육기관 평가 인증이 시행되고, 그 평가항목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항목으로 각 유아교육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이혜원, 임미혜, 황윤세, 2013) 부모와의 협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부모를 유아교육기관에 자주 오게 하고, 많은 활동을 하도록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김희진, 2014)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의 방법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강의식에서 부모의 자기이해를 돕는 참여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김영옥, 2007; 이명지, 2011; 전우경, 2003). 이러한 변화는 부모교육의 방법이 제공자 관점에서 학습자 관점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전 부모교육은 부모의 요구보다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었다(이호준, 2007). 즉 초기 부모교육에서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모를 가정학습의 조력자로 인식하였으나, 현재는 가족지원의 차원으로 부모 자신을 위한 부모교육을, 부모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부모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Thomas, 1996). 따라서 최근

의 부모교육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돕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부모들 역시 부모로서 부족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더 나은 부모가 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강의 위주의 전달식 부모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다(노진형, 2005).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의 역사적 고찰에 따르면 PET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방식은 부모들의 참여 욕구와 부모역할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Doherty, Ryder, 198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4년 이후 부모교육의 방법으로 토론과 활동연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 2014). 따라서 부모교육의 방법으로 부모들의 만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선숙, 2011).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자들은 부모교육을 재조명하였다. 이원영, 김태영, 강정원(2008)은 부모교육은 성인교육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를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육하며, 부모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이끌며 영유아교육의 효과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희진(2014)과 전우경(2010)은 부모교육이 부모로서 바람직한 인품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정서적으로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 인간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선미(2016)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모교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부모교육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자녀를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육하는 동

시에 스스로의 인격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 강의식·주입식 형태의 교육방법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형태의 활동으로 이러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이 유아교육기관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필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보고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다(박선숙, 201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교육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듯이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그 변화를 반영하는 부모교육만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김영옥, 2007; 김희진, 2014). 따라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부모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의 부모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모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부모역할을 관찰할 기회와 적절한 양육 모델의 부족으로 부모들은 자녀와의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겪는다(김경중 외, 2011).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가족이기주의와 왜곡된 교육열에 가져왔다. 가족이기주의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일부로 잘못 인식하면서 부모-자녀 간의 강한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나친 교육열로 나타나면서 조기 사교육의 열풍을 가져왔다(박선미, 2016). 사교육은 날이 갈수록 대상 연령이 하향화되고 유

아의 전인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민선옥, 배지희, 2014). 이렇듯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왜곡된 양육태도를 낳게 되었다.

부모는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고, 그 영향이 일생동안 지속된다(이선애 외, 2015). 고선옥(2006)과 김혜영(2000)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사회성,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류관열(2014)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 이미숙, 오영진, 김영희(2009)는 자녀의 결정적 시기동안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혼재하는 정보 속에서 자녀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고, 유아를 바르게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이은화, 1997).

현대사회의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넘쳐나는 정보의 활용에서 혼란을 느끼면서(오지선, 2016)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이유미, 이정은, 2013)하면서 자녀양육에 적용해보지만, 올바른 정보와 적합한 방법을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실패하거나 좌절을 경험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발견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상충적인 정보와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비현실적인 부모상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한다(김경중 외, 2011; 김현주 외, 2013). 뿐만 아니라 오지선(201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녀에

게 미디어 활용을 허락하지만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와 갈등을 겪거나, 자녀의 미디어 활용이 학습에 대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유해한 컨텐츠의 접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딜레마로 경험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로 성장했던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미디어의 활용과 그에 따른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의 부족으로 부모들은 어떠한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정보와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유능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배움의 부족과 과중한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입시와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정보, 기술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이순형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 역할에 대한 준비와 연습 없이 부모가 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선애 외, 2015). 또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의 역할도 달라진다(Galinsky, 1994).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가 필요하다(노진형, 2005b).

이전 사회에서 부모역할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교육을 요구했던 반면, 현대의 부모에게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자녀가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기대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켰다(김현주, 손은경, 신혜영, 2013; 이순형 외, 2010; 장혜순, 2013).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부

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부모역할을 논의하면서(이경화, 김연진, 배지현, 2009;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대하는 부모역할은 부모들에게 만능 부모가 되어 만능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김희진, 2006), 부모들이 확고한 자녀교육관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기는 연령의 특성상 자신을 양육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다(최해주, 문백수, 2013). 그 중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은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김지현, 정지나, 조윤주, 한준아, 2008). 자녀에게 지원과 사랑을 주고, 격려하는 부모역할은 자녀의 어린 시절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공영숙, 이지영, 2012; 류관열, 2014; 신효미, 유미숙, 2015). 이와 함께 특히 유아기의 교사는 부모역할의 일부를 공유하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배지희, 2008). 뿐만 아니라 부모-교사 간의 협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은(박선숙, 2011; 장지원, 홍용희, 2005; 정계숙, 노진형, 2016)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유아기는 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인적자원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유아를 둘러싼 부모와 유치원의 상호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연진, 유안진, 2000; 김영옥, 2007; 이병호, 오한나, 허수향, 2013). 또한 유아의 교육과 양육을 담

당하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과 양육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방법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교육을 통해 유치원의 교육철학과 운영방침, 교육과정, 교수방법, 유아지도방법 등을 공유하여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김현주 외, 2013; 김희진, 2006). 또한 유아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겪는 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채영란, 2012).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간의 연계 필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배지희(2008)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인적자원인 부모와 교사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가정연계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면서 자녀교육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하정(2015)은 유치원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 및 유치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양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면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수록 유아들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낮아지면서(임우영, 안선희, 2011), 가정과 기관 모두에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정계숙, 노진형, 2016). 이렇듯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는 교사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교육적인 연계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어린 연령의 자녀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은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조기에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면서 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 기능이 많이 축소된 것이다(김현미, 2013).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영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유아기 교육의 성공과 효과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과 기능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정-유아교육기관의 연계성과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은 부모가 그 역할에 수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부모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이완희, 최양미).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과 유아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원영, 배소연, 2000; 정미경, 2003). 부모교육의 요구를 수집하는 것은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부모역할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에서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이해와 통찰, 반성적 사고 등을 제공하는 자기이해적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다. 조은미(1988)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내용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에만 치중되

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부모자질의 함양과 가족구성원의 유대강화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세덕(1995)은 부모효율성 훈련 프로그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에 부모의 자기이해의 내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에서 부모의 불안감이 감소되고,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향상된 점을 보고하였다. 이원영, 배소연(2000)은 부모의 요구를 수집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모교육의 내용을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과 부모 자신의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은 자녀이해, 자녀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역할, 건강・영양・안전관리가 있으며, 부모 자신의 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은 부모자신의 자질 향상이 있다. 최명희(2013)는 이원영과 배소연(2000)의 부모교육내용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많이 활용된 교육내용은 바람직한 부모역할, 영유아기 자녀발달의 이해, 건강・영양・안전관리,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역할, 부모의 자아개발 순이었으며, 부모자신의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의 내용은 활용도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자녀양육차원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김희진(2014)에 의하면 부모교육에는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격 이해하기,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이웃과 교제법, 부모자신의 문화체험, 취업・취미・친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점차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부모의 자기이해와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부모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부모역할이나 유아교육의 총론을 다루는 것에 그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 부모와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 스스로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부모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이병호, 오한나, 허수향, 2013; 이원영, 배소연, 2000; 장성오, 2011). 따라서 부모교육의 내용은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것과 부모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들은 주로 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훈육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프로그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중에 Gorden(2000/2002)이 개발한 부모효율성 훈련 프로그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의 내용은 반영적 경청하기, 나-전달법, 무패방법이 있으며 Dinkmeyer와 Mckay(1975)가 고안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의 내용은 자녀이해와 부모자신 이해,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관계형성, 반영적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 대안찾기, 부모의 유능감 발달 등이 있다. Popkin(2002/2007)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Training)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 잘 자라도록 협동심, 용기, 책임감, 자기존중감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가져야할 지식과 기술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로 부모의 역량을 기르는 부모교육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1991)에서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위한 총체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1992)가 개발한 '부모에게 약이 되는 프로그램', 교육부(1994)가 개발한 '도덕성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있다. 또 서울시 교육청(1997)이 개발한 '자녀와의 대화, 이렇게 해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

(2003)의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2008)이 개발한 ‘자녀양육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둘째, 부모의 자기이해를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보급된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2013)의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2014)의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인성교육’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발달을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숙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부모로서, 한 개인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노진형, 2005b). 또한 부모역할에서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보다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류왕효, 1997). 따라서 부모교육에서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위해서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지지한다.

부모역량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명순, 고여훈(2016)은 자녀양육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양숙미(2002)는 부모역량을 자기 효능감, 대처능력, 상호지지・협력을 통한 참여로, 박재국, 서보순, 김혜리(2011)는 양육태도, 양육지식, 양육기술, 양육효능감과 더불어 가족협력 및 사회협력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이명하(2013)는 부모역량을 ‘양육역량’ 차원에서 조명하며 이를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양육역량의 인지적 차원은 양육지식, 양육기술 등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며, 정서적 차원은 부모 개인의 내적

요소와 관련된 자기인식과 자기수용, 타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계숙, 최은실(2013)은 현대의 부모들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면적인 도전에 대한 극복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에 부모역량은 단순한 양육역량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역량까지 범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양육역량, 자기체계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양육역량은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을 강조하는 역량으로 자녀발달 특징과 욕구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생애 진로개발, 발달·학습 지원과 환경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체계역량은 부모가 한 인간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역량으로 능동적 행동,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 삶 방향·목표설정, 강점 자기역량 개발, 지속적 자기성찰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역량은 부모가 사회인으로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강조하는 역량으로 주변자원 활용, 주변환경 조절능력, 공동체 정신, 사회봉사하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역량 개념의 변화는 부모교육에서 부모 자신의 이해와 발달 및 사회적 참여를 다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발달을 다루면서 부모는 한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강영순, 김종남, 2012; 김명하, 2013; 문주형, 2015; 장성오, 2011; 정계숙 외, 2015). 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양육역량과 자기체계역량 증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Vig와 Kaminer(2003)은 부모교육이 부모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유능성을 도우면서 적응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다학문적인 서비스의 포함을 제안하였다. 김진이(2006)는 부모교육에

서 부모의 경험을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육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교류분석, 대상관계, 현실치료, 애착이론 등의 연구를 통해 부모의 자기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김경화, 2003; 김명하, 2013; 문주형, 2015; 이은미, 2010; 전우경, 2003; 한성심, 2005). 그 중 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통찰하면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교류분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류분석은 상호반응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분석하는 것으로 교류는 의사소통으로 표면상의 대화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미묘한 의미, 정교한 의도, 숨겨진 느낌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 깊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이은미, 2010). 교류분석(TA: Transactional Analysis)이론은 하나의 성격이론인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치료이다(Stewart & Joines, 1987/2010). 현대의 교류분석은 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류분석은 하나의 성격이론으로 인간의 성격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자아상태 모델을 통해 성격의 형성과정과 기능을 보여주면서 성격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류분석은 자아상태의 교류패턴을 통해 대인간의 교류양상을 설명해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셋째, 교류분석은 인생각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생활패턴이 어린 시절로부터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교류분석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 어떻게 재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교류분석은 일상의 문제에서 심각한 정신장애에 이르기까지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집단, 부부, 가족 상담에 도움을 주는 심리치료이론이다(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12; Stewart

& Joines, 1987/2010).

교류분석은 의사소통의 훈련, 분석에 탁월한 도구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기이해와 통찰, 부모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경화(2003)는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0주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어머니들의 심리적 자세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됨과 동시의 유아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바람직한 영향을 보였다. 김명하(2013)는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자아상태, 자기분화, 양육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문주형(2015)은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집단상담식 부모교육을 어린이집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자기이해 및 통찰력이 변화하면서 자존감과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이은미(2010)는 유치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류분석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이 향상되었고, 불안감과 좌절감은 낮아졌으며, 부부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밝혔다. 장성오(2011)는 교류분석이론을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류분석이론을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기이해와 통찰에 효과적이며, 부모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부모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부모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내용에 따라 방법이 다르게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주제, 대상, 목표가 선정되면, 그 목표와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교수-학습방법에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회기를 결정하는 형식, 부모교육의 내용・집단 크기・참여 부모의 흥미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교수방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특정 지식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점차적으로 워크숍, 토론, 역할놀이, 관찰 및 현장학습 등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김미숙, 2013). 김혜경(2014)도 1984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연구들에 대한 동향분석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토론, 활동연습, 피드백 등을 활용한 양방향적 소통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정계숙과 노진형(2005b), 이명지(2011)는 유아교육 현장의 부모교육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적당한 크기의 집단토론과 부모역할에 대한 저널쓰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비디오의 활용을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부모교육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김희진, 2005; 노진형, 2006)은 부모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의 장점을 활용하는 교육방식을 요구한다. 부모들이 실제 양육 상황에서 부모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김미숙, 2013). 이에 부모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형식과 교수방법으로 구분하여 부모역량을 보

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교육의 형식

부모교육의 형식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회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모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가정방문과 집단교육(김희진, 2005)처럼 직접전달방식이 있고, 부모교육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부모에게 특정주제에 관한 지식을 지면으로 제공하는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전달과 같은 간접전달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회기는 부모교육의 목표, 참여하는 부모들의 특성과 요구, 자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회기를 선정한다(박선미, 2016).

이렇게 다양한 부모교육의 형식 중 집단교육은 참여자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집단은 크기에 따라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으로 구별한다.

그 중 소집단은 특수한 상황이나 욕구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최명희, 2016), 참여자들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명지(2011)는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이해하는 태도가 부모역할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면서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육의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영(2011)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9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실제 자녀 양육에 적용하면서 양육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부부간의 갈등과 시댁가족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가정문화를 이해하는 변화를 보고하였

다. 방해경(2014)은 베트남 이민자 아버지 7명을 대상으로 소집단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들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능동적인 참여의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하정(2015)은 유치원에서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부모 소모임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의 관계, 가정-유치원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소통이 원활해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교육의 형식 중 소집단의 모임은 참여 부모들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장성오, 2011).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혔듯이 부모교육에서 집단교육의 장점은 참여부모들 간의 상호교류와 부모교육자와의 교류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김희진, 2005)이며, 소집단 부모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형성,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교수방법

부모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대상인 성인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수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미숙, 2013; 박선미, 2016; 이호준, 2007;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교육의 교수방법으로 강연, 워크숍, 토론, 역할극, 관찰 또는 현장학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 노진형(2006)과 정계숙, 노진형(2006), 이하정(2015)은 강의와 전달 위주의 방법은 성인학습자들의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방법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성인학습자인 부모들의 흥미와 수준, 경험, 연령 등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토론이 제안되고 있다. 이재택(2016) 역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교육의 방법이 강의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자인 부모의 흥미와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수방법으로 토론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김혜경(2014)도 부모교육이 초기에는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개발되었는데, 점차 전문가의 의견과 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되면서 양방향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토론, 집단상담, 활동연습, 피드백 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의 자기이해와 발달을 돕는 교수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객관화하고, 다른 관점과 비교할 수 있는 토론과 역할극을 활용할 수 있다(정계숙, 노진형, 2006).

먼저, 토론은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성장을 돕는 교수방법(박선미, 2016)으로 문제해결력, 집단기술, 태도, 가치관, 의사소통기능, 내용숙달, 도덕적 추리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김미숙, 2013). 뿐만 아니라 토론은 습득할 지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개념발달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인오(1993)는 부모교육에서 교수방법으로 활용되는 토론은 부모의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높이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고, 김숙영(2008)은 부모들은 토론에서 획득한 지식을 자녀 양육과정에서 실천하면서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되며,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과정에서 양육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토론은 부모들의 경험을 상호교류하면서 실제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 간의 인간관계와 유대감이 향상되면서 참여 부모들은 대화를 통한 협력의 방법으로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게 된다.

다음으로 역할극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부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역할을 수행해 봄

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고, 부모 자신의 양육 행동 및 태도에 대해 부모교육자와 다른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모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김미숙, 2013; 김정원, 1999). 따라서 역할극은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할 때 효과적이며(Danielson, 1996, 김미숙, 2013에서 재인용) 역할극을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보다 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박선미, 2016).

이와 같이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토론과 역할극 활동은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행동의 변화를 위한 인지적 동기요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성인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김숙영, 2008; 이하정, 2015; 정계숙, 노진형, 2006; 전우경, 2010)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부모교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인 참여 형태의 교육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은 자기이해와 통찰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양방향 소통이 원활한 소집단과 토론 및 역할극을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토론연극

1) 토론연극의 개념 및 중요성

토론연극은 199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면서 다양한 작업을 통해 교육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명아, 2013). 토론연극은 연극의 한 종류(박혜련, 2006)이지만 전통적인 연극과는 달리 배우와 관객을 구분하지 않고, 관객은 연극을 감상하기보다는 연극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의식하게 된다(이명아, 2013). 창시자인 Boal은 토론연극을 '미래에 대한 리허설로 관객이 주도권을 잡는 연극형태의 최고단계'라고 정의하면서, 관객이 토론연극의 주인공으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Boal, 2003, 신지수, 2010에서 재인용).

정영희(2002)에 의하면 토론연극은 관객이 직접 배우가 되어 극중 문제를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대안을 객관화 시켜볼 수 있는 연극이라고 하였다. 박혜련(2006)은 토론연극을 배우와 관객이 같은 비율로 참가하는 창조적인 연극형태로 정의하고, 문제상황극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토론연극의 주요한 핵심으로 보았다. 신지수(2010)는 토론연극을 어떤 문제상황에서 참여자가 서로를 가르치면서 협력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사회교육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김은주(2013)와 이명아(2013)는 토론연극의 문제상황극에서 관객이 연기함으로써 다양한 억압에 의한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장연주(2015)는 토론연극이 논쟁을 촉발시키고 대안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토론연극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토론연극은 관객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연극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 질문을 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민주적 형태의 사회교육연극이다. 기존 연극과는 달리 배우와 관객의 양방향적 소통으로 끊임없는 토론이 연극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은 관객을 능동적인 주체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로, 문제상황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과 해결책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이끌어내게 한다(신지수, 2010). 따라서 토론연극은 참여자 중심의 과정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토론연극에서 관객들이 문제 상황극을 연기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또한 토론연극의 활용은 학습자의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력에서 변화를 보여준다. 강민정(2005)은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업방식을 토론연극으로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소설 교수-학습방법을 구성하고 적용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한 토론연극은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태도형성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김혜인(2012)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도덕수업이 연구 참여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사고 확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박혜련(2006)은 토론연극으로 토론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와 흥미가 높아지면서 토론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더불어 토론연극의 활용이 학습자의 흥미와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끄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정영희(2002)는 토론연극을 통한 논술지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들이 남의 의견과 글에 많이 의존했던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삶과 생각이 생생한 글쓰기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지은주(2009) 역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참여에 토론연극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전의 강의식이나 토론활동의 논술수업보다 이해분석력과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하면서 토론연극은 주체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론연극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방법으로 학습자의 자발성과 흥미, 삶과 관련지어 함께 행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론연극은 학교와 기업체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꾸준히 연구되었다. 먼저, 학교에서 민병욱(2000)은 토론연극을 연구하면서 창의적 드라마로 이론을 체계화하였으며, 토론연극을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김혜인(2012)은 토론연극의 놀이적 특성이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문제상황에서 제시되는 갈등에 공감하면서 도덕적 판단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기업현장에서 연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은아(2015)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기업교육과정 연구에서 교육연극의 D.I.E.(Drama In Education)와 T.I.E.(Theater In Education) 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토론연극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교육에 적용한 결과,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기 위한 토론과 시도는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신혜란(2010)은 콜센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교육에서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 향상,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개선과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장연주(2015)는 다문화 교실에서 또래 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결과, 문제해결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김창하(2015)는 다문화 교육은 이해와 공감, 협력적 의사소통,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교육연극을 활용한 협동학

습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토론연극이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활용될 때 학습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토론연극을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하는 여러 연구들은 토론연극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토론연극의 방법

(1) 토론연극의 구성 요소

토론연극은 새로운 형식의 토론으로 유희성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토론연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극으로 실연되는 문제상황, 배우-관객, 조커가 필요하다(김은주, 2013; 박혜련, 2006; 신지수, 2010).

먼저, 문제상황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갈등을 포함해야 하며(박혜련, 2006) 문제상황극의 갈등이 성차별, 가족 간의 대화부재 등과 같이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갈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이효원, 2007; 장은아, 2015). 문제상황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이 현실의 억압에 대한 정서를 공감하고, 자신의 갈등으로 느끼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게 된다(김창하, 2015; 김혜인 2012; 박혜련, 2006) 따라서 문제상황은 현실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관객의 욕구를 자극하여 참여하는 행동을 이끌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문제상황에서 갈등은 관객으로 하여금 등장인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묘사하여, 직접 해결방법을 찾아 행동하게 하는 몰입과 자극을 위한 구성을 필요로 한다(장은아, 2015). 신지수(2010)는 문제상황극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진 문제상황극을 배우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주제선정부터 문제상황극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작업에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문제상황극을 배우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교사나 전문가가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배우들이 연기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반면 주제선정에서 문제상황극의 실연까지 모든 작업에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방법은 갈등 찾기, 사례 모으기, 상황 만들기, 장면 다듬기, 개입연습하기 순으로 준비과정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배우-관객은 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관객이 되지만, 토론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되고, 문제상황극을 연기할 때에는 배우가 된다(장은아, 2015). 토론연극은 교수-학습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Boal은 배우나 작가, 연출가가 교훈을 가지고 관객에게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태도는 억압적이라고 보았다. 배우-관객은 주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관객이면서 행동하는 배우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Boal, 2003, 신지수, 2010에서 재인용). 이때 배우-관객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 문제해결의 갈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맞서기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상대를 설득하고, 갈등의 관점을 바꾸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는다(박혜련, 2006).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토론연극을 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의사소통의 기술, 정서적 공감대 향상,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김창하, 2015; 민병욱, 2000; 신지수, 2010; 신혜란, 2010; 이명아, 2013; 장연주, 2015; 정영희, 2002)

마지막으로 조커는 토론연극에서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과 갈등의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장남희, 2013; 장은아, 2014). 먼저,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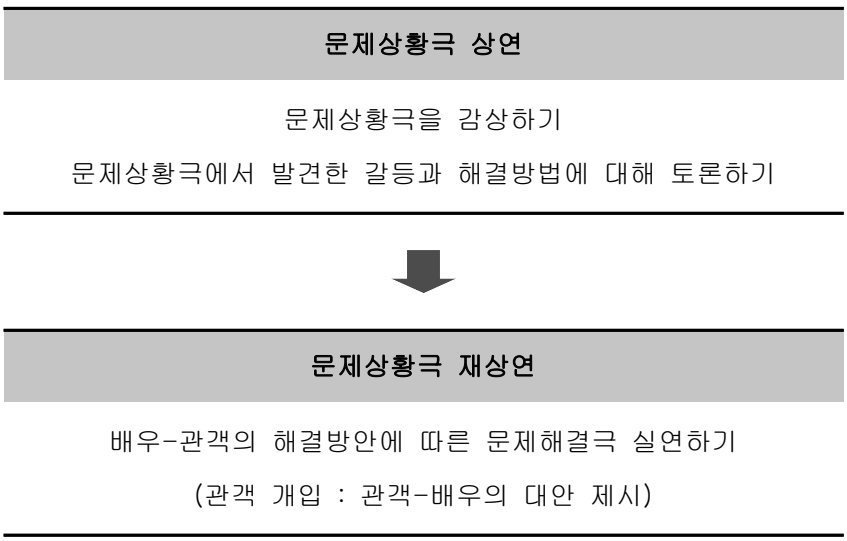
와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에서는 공연 중 관객들에게 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실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토론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실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하다면 조커 자신이 극 속의 배우로 참여하면서 관객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조율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조커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관객의 능동성을 자극하고 관객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답을 이끌어 내고, 기존의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구성요소에 따른 토론연극의 특성은 배우-관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갈등을 주제로 문제상황극을 구성하여, 배우-관객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내자이자 촉진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조커가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토론연극의 절차

토론연극은 문제상황극의 관람으로 시작된다. 문제상황극은 갈등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분명하게 묘사하여 배우-관객이 등장인물의 생각과 상황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상황극의 관람 이후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 주인공의 해결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배우-관객이 직접 문제해결극에서 제시함으로써 문제상황극을 다르게 변화시킨다. 이때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관객이 있다면 'STOP'을 외치고 상황극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제안으로 상황극을 이끌어가면서 문제해결을 만들어 간다. 따라서 토론연극은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배우-관객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참여자들

은 현실의 훈련과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Boal, 2003, 신지수, 2010에서 재인용). 토론연극의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Boal이 제시하는 토론연극의 절차

3) 토론연극의 가치

교수-학습방법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 방안에 관한 전략들로 강의식, 설명식 등의 방법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포함한다(정성희, 2006).

다양한 교육적 매체 속에서 토론연극은 학습자에게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동시에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황유선, 2005). 이때 토론과 연극을 결합함으로써 토론의 의사소통적 기능(박혜련, 2006)과 연극의 놀이적 기능이 결합되어 교육적 효과를 배가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의 기능은 사회인지 구성능력을 높이고, 놀이의 기능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문제해결력을 돕는다. 토론연극을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할 때 두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식 구성을 돕는 가치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이며, 학습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정성희, 2006). DeVries와 Zan(2002/2007)은 지식을 구성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고, 앎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실험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협동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박혜련, 2006).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극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이수동, 1999), 토론연극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위한 탐색과정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토론연극의 문제상황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실 속의 다양한 갈등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절대적 기준에 따른 진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상대적 진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최선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 설득과 타협의 과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해결방안을 구축하게 한다. 또한 토론연극에서 제시된 문제상황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행동전략을 구성하도록 도움을 준다(신지수, 2010)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탐색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측해 볼 기회도 갖는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개인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혜인, 2012).

진보주의 교육철학자인 듀이는 프뢰벨의 '행함으로써 배우기'를 강조하면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따른 적극적인 학습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에서의 경험은 곧 실험이며, 실험은 학습자의 관심에 따라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한 행동에서 이론을 형성하면서 배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지나치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책으로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학습경험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Dewey, 1916/2007).

교수-학습방법으로 토론연극은 개연성 있는 허구 상황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공동이해의 참여로 볼 수 있다(정성희, 2006).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면서 비언어적, 언어적 요소를 포함하여 '지금 바로 여기'의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사를 전달받으면서 경험이 확대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자신의 행동변화를 돕는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황유선, 2005).

(2) 자발적 참여를 돕는 가치

토론연극은 놀이적 기능을 지닌 연극에서 출발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즐겁게 배우면서 공동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상상하며 배우는 방법이다.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배운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다는 것으로 학습에서 놀이는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강화시키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현재의 자유와 만족을 제한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Brecht(1972, Jackson, 2004에서 재인용)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과 즐기는 것을 확실히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학습과 즐거움은 대조되는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 Higgins(2014)는 인간은 누구나 즐거움을 좋아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접근동기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동기로 구분하였다. 그 중 접근 동기는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즐거움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극'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성취 지향적 성향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하였다.

연극의 놀이적 요소는 재미라는 본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놀이과정에서 변형을 창조하고 연습할 때 현실의 변형도 가능해진다(Boal, 1998). 발달심리학자 Piaget(1962) 역시 인간은 놀이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모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모방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진정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몸짓으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성민정, 2011). 우혜선(1999)은 연극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가상세계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자유와 실험의 기회로 창의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교육현장에서 학습의 내용으로 구체화할 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최지영(2002) 역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토론연극에서의 놀이적 기능은 굳어져 있는 정서와 근육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혜선(2008)도 교육연극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창의적 사고와 관찰력, 표현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정성희(2005)는 효과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이 학습자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교육행위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병진(1998)은 토론연극의 놀이적 기능이 교수-학습방법으로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의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비판하였다. 또한 교육을 '사회화 과정'으로 규정짓고, 토론연극으로 학습자들의 즐거움과 교훈성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성과를 성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토론연극에서 놀이적 기능은 인간의 유희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놀이라는 가상적 상황에 몰입하고, 토론에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된다(박혜련, 2006; 황정현, 2001). 이에 토론연극은 학습자를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성민정, 2011; 우혜선, 1999).

(3)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돕는 가치

교육의 상황에서 모든 교수활동은 과정 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는 학습자가 배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납적인 프로그램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정성희, 2006). 이러한 맥락에서 토론연극은 교육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여 대안들이 제시되고, 문제해결의 폭을 넓힘으로써 최선의 해결방안에 접근하게 된다(신지수, 2010).

Mally와 Duff(1988, 박혜련, 2006에서 재인용)는 모든 사람들은 모방하고, 흉내 내는 표현의 능력을 타고 났으며, 상상을 실연해보는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으로 연극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언어로만 하는 토론보다는 놀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토론연극을 하는 것이 이미 경험한 것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문제상황극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면서(O'Neill & Lambert, 1994)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성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주저 없이 낯선 역할로 들어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반응하면서(박현정, 2013) 삶을 묘사하고 시도하는 말과 행동이 드라마의 맥락 안에서 실연된다. 이에 토론연극의 참여자들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여 제공된 문제상황에 대하여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으로 행동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론연극은 경험, 공감, 반성적 성찰과 문제해결을 돕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박현정, 2013).

장연주(2010)는 다문화 학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결과에서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외당하는 역할과 소외시키는 역할에 참여하면서 공감능력의 향상되면서 토론연극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허세정(2014)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의 문제를 토론연극으로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공감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는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신혜란(2010)은 콜센타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교육연극으로 적용해 본 결과, 직원들의 자존감과 타인이해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때 대상자들은 문제해결방안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연극은 문제해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체험해보면서 단순한 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를 넘는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Dewey(1916/1987)는 학습자들이 변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으로 새

로운 경험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은 무의미한 옮김에 불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활동을 하는 것은 행위에 의하여 생긴 변화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에 반영될 때, 비로소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토론연극은 문제를 직접 행해봄으로써 학습자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동시에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황유선, 2005) 실제 토론연극의 과정은 문제상황극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하여 문제해결극으로 문제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토론연극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켜 지적갈등과 변화를 도모하면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직접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김은주, 2013),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학습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토론연극의 요소(문제상황극에서 나타난 익숙한 경험, 해결방안을 위한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문제해결의 실연 등)들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이에 토론연극은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이해와 변화를 돕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적용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성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ADDIE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ADDIE모형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 모형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순으로 5단계의 통합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권대봉, 2006).

본 연구에서 ADDIE모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분석단계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를 확인하고 도출하는 단계로 문헌고찰과 요구분석이 실시되었다. 설계단계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 매체,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시안을 구성하였으며, 개발단계는 시안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협의와 교수-학습안, 학습자용 교재개발, 학습자료 개발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확인하는 예비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최종 개발이 이루어졌다. 실행단계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연구현장과 참여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단계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판단하고자 실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절차와 연구과정을 제시하면 그림 2과 같다.

과정모형	연구과정	연구일정
분석 및 설계 단계	▶ 문헌고찰 : 부모교육과 토론연극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시안구축	2016. 1 ~ 2016. 6
	▶ 요구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 : 연구의 필요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시사점 확인	2016. 2 ~ 2016. 4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안 개발	2016. 7
개발 단계	▶ 전문가 협의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 · 프로그램 구성 체계 최종안 완성	2016. 8
	▶ 예비연구 (심층면담, 예비연구실행 4회, 예비연구결과,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 ·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 확인	2016. 8 ~ 2016. 10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최종안	2016. 12
실행 단계	▶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연구 현장과 연구 참여자 선정 · 프로그램 실행	2017. 2 ~ 2017. 7
평가 단계	▶ 효과검증 · 개별면담 2회, 집단면담 1회 분석 · 부모 참 역량과 자아상태 검사, 평가 분석 · 참여관찰, 저널, 연구일지, 현장노트 분석	2017. 7 ~ 2017. 9

[그림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절차 및 연구과정

위의 그림 2에서 제시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에 따른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분석단계는 문헌고찰과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중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부모교육, 토론연극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부모의 자기 이해를 돕는 내용과 형식, 부모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요구조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요구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단계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프로그램 시안에 따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수-학습계획안, 학습자용 교재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넷째, 실행단계에서는 연구현장과 참여자를 선정하고, 개발된 최종 프로그램을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섯째, 평가단계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과 적용효과를 알아보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에 참여자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면담 2회와 집단면담 1회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상태 검사와 부모 참 역량 검사, 회기별 평가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정서와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 저널, 연구자의 연구일지와 현장노트를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각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는 부모교육, 토론연극과 관련된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지, 단행본, 부모교육 자료집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분석 결과, 최근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호준, 2007)을 통해 부모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노진형, 2005b; 신효미, 유미숙, 2015; 이명지, 2011; 이재경, 2014; 정계숙, 노진형, 2006)하면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양육역량을 증진시키는 노력(김명하, 2013; 문주형, 2015; 이경화, 김연진, 배지현, 2009; 이하정, 2015; 장성단, 2016; 장성오, 2011; 전우경, 2010;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 2015)과 토론의 적용 가능성(김미숙, 2013; 노진형, 2005b; 박혜련, 2006; 이명아, 2013; 장은아, 2015)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교육에서 부모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이해를 돕는 반성적 사고와 토론의 활용은 단순히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모발달의 관점에서 부모가 한 개인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성인학습자임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Thomas, 1996). 하지만 이전 부모교육의 내용과 진행방식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모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노진형, 2005b; 이명지, 2011). 따라서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후속연구로 제안되고 있다(노진형, 2005b; 이호준, 2007; 장성단, 2016).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따라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고,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토론연극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가치와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1) 프로그램의 목적 선정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 선정을 위해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 그 적용방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결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모의 반성적 사고와 자기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문헌의 범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관련된 여러 문헌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은 본 연구의 방향과 프로그램의 목적이 일치하는 문헌, 적용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문헌이었다.

문헌분석 결과, 반성적 사고와 자기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성장과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로서의 성장과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적용점을 도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의 목적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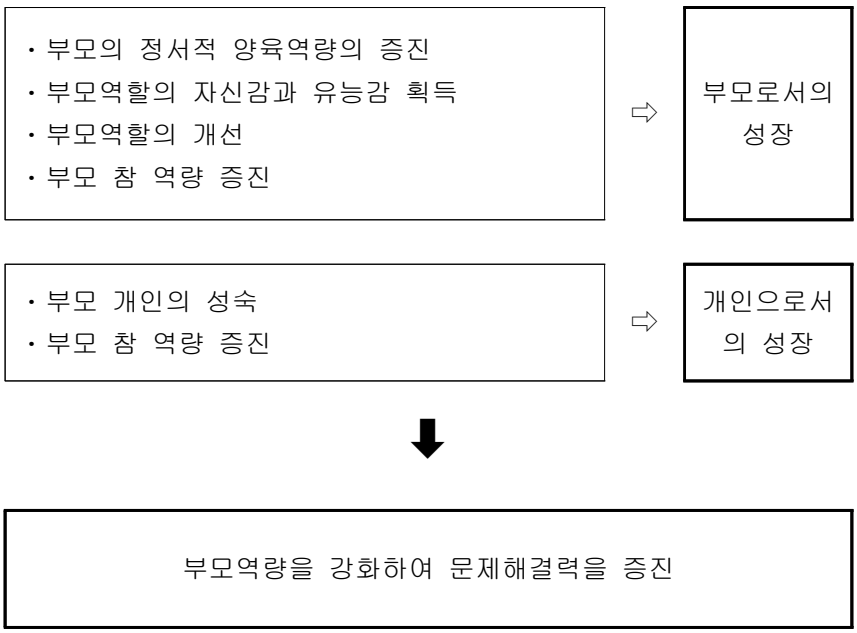
연구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적용점
김명하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을 증진	·부모의 정서적

(2013)		양육역량 증진
노진형 (2005b)	· 부모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문제해결력 증진
이경화 외 (2009)	· 자녀의 발달 및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지원	· 부모-자녀관계 개선
이명지 (2011)	· 반성적 사고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부모역할의 개선	· 문제해결과 부모역할 개선
장성단 (2016)	· 어머니의 자기이해증진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성숙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 부모 개인의 성숙과 부모역할
정계숙 외 (2015)	·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 참 역량 증진	· 부모 참 역량 증진

표 1에서 제시된 김명하(2013)는 자기분석과 통찰의 도구로 교류분석과 자기분화이론을 활용하여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노진형(2005b)은 부모교육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활용한 부모교육의 목적을 '부모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경화 외(2009)는 자녀이해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목적을 '자녀의 발달 및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명지(2011)는 반성적 사고 중심의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반성적 사고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부모역할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장성단(2016)은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자기이해증진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성숙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를 목적으로 설정

하였다. 정계숙 외(2015)는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 참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들의 목적에 대한 기술은 서로 상이하지만 그 내용들은 모두 부모로서의 성장과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 목적을 부모가 가진 다양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역량을 강화하여 일상에서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고자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적용점에서 나타난 목적을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목적 추출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부모역할의 자심감과 유능감 획득, 부모역할의 개선, 부모 참 역량 증진은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변화

를 돕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성장’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부모 참 역량은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성장’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참 역량의 하위요인은 양육역량, 자기체계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양육역량은 부모역할에서 요구되는 역량으로 부모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체계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역량으로 이는 부모가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참 역량의 증진은 부모로서의 성장 범주에도 포함이 되지만 부모가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에 ‘개인으로서의 성장’에는 부모 개인의 성숙과 부모 참 역량을 범주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목적을 범주화한 결과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타당할 수 있으며 이에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한다’를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의 목표 선정

앞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통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반성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를 프로그램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적용점을 도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의 목표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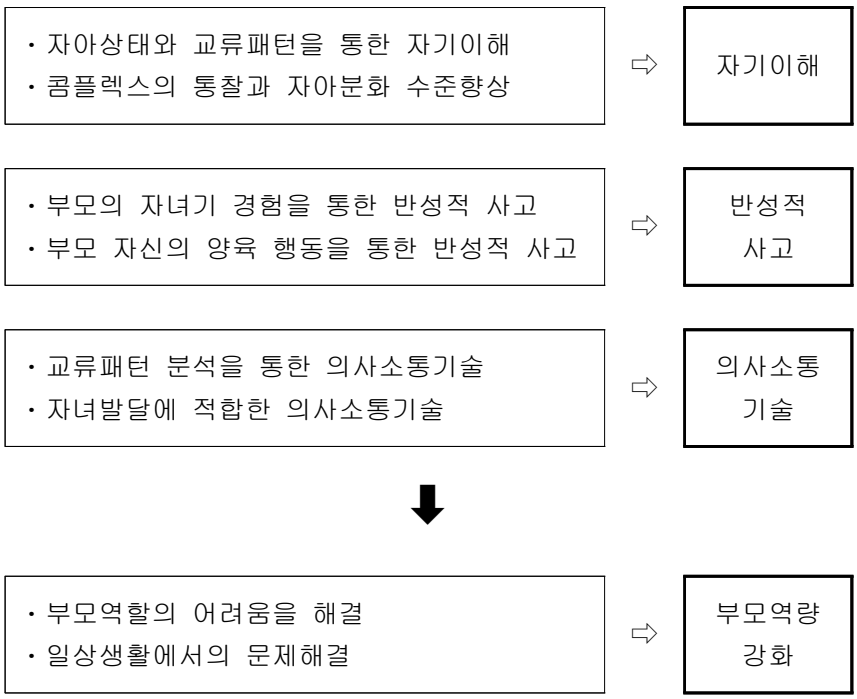
연구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적용점
김명하 (2013)	·자아상태 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자아상태 분석을 통한 타인이해	·자아 상태와 교류 패턴 분석을 통해

	·성인자아상태 활성화를 통한 자율성 회복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한 바람직한 관계 형성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노진형 (2005b)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신감 회복 ·반성적 사고를 통한 부모역할에 대한 확신과 유능감 획득	·일상생활에서 **반성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경화 외 (2009)	·자녀의 이해 : 자녀의 발달 및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태도 갖기 ·발달적용을 위한 지원 :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고 적용하기 ·부모역할의 이해 :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녀와 부모가 성장하기	·자녀의 발달과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명지 (2011)	·부모에게 물려받는 부모역할 이해하기 ·부모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자녀의 입장에 부모역할 이해하기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기	·자신의 부모역할과 자녀기 경험으로 **자기를 이해·수용**할 수 있다.
장성단 (2016)	·콤플렉스의 통찰로 자신에 대한 이해확장 ·자녀분화 수준의 향상 ·어머니 자기이해를 통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양육역량을 향상시킨다.
정계숙 외 (2015)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한 부모 참 역량 증진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존재로 자기인식	·부모역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른다.

표 2에서 제시된 김명하(2013)는 자기분석과 통찰의 도구로 교류분석과 자기분화이론을 활용하여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진형(2005b)은 부모교육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모교육에서 반성적 사고를 활용하여 어머니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모역할에서 유능감을 획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경화 외(2009)는 자녀이해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면서 자녀발달 및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목표는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방법을 적용하고, 반성적 사고를 활용하여 부모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명지(2011)는 반성적 사고 중심의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과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역할, 현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부모역할,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역할을 반성적 사고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자신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장성단(2016)은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들이 한 인간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을 돕고자 설정한 목표는 '콤플렉스의 통찰로 자신에 대한 이해확장, 자아분화 수준의 향상, 어머니 자신의 이해를 통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이다. 정계숙 외(2015)는 부모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모역할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한 부모참 역량을 증진시키고,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적용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반성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 목표를 적용점에서 나타난 목표를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목표 추출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에 대한 이해 및 콤플렉스의 통찰과 자아분화의 활용은 자기이해를 돕는 교육내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 범주에 포함되며, 부모의 자녀기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을 논의하면서 나타나는 자기성찰은 반성적 사고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부모 자신의 교류패턴의 분석과 활용, 자녀 발달에 적합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기술로 범주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적합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면서 부모역할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3)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선정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교육내용을 각 프로그램의 목표를 반영하여 범주화하면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인 부모역량강화를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 참 역량의 하위영역으로 교육목표와 내용을 분류하면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는 자기체계 역량, '의사소통기술'은 양육역량에 포함된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연구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적용점
김명하 (2013)	·자기이해 :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교류패턴의 유형과 특성 ·타인이해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타인의 행동분석, 인정 자극의 개념 및 유형 ·자율성 회복 : 이성과 감성의 사용, 독립과 의존을 결정하는 자기분화에 대한 이해, 성인 자아상태 활성화를 통한 자율성 회복 ·바람직한 관계 형성 : 반영적 경청, 나 전달법, 승승전략을 통한 의사소통기술의 이해, 양육태도의 유형과 자녀발달의 관계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의 개념 및 특성을 소개하고 자신의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을 분석하는 내용을 선정함
노진형 (2005b)	·성인학습에 필요와 흥미, 능력에 맞게 ·부모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생활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부모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내용으로 선정함
이경화	·자녀의 이해 : 기질, 문제소유	·민주주의 부모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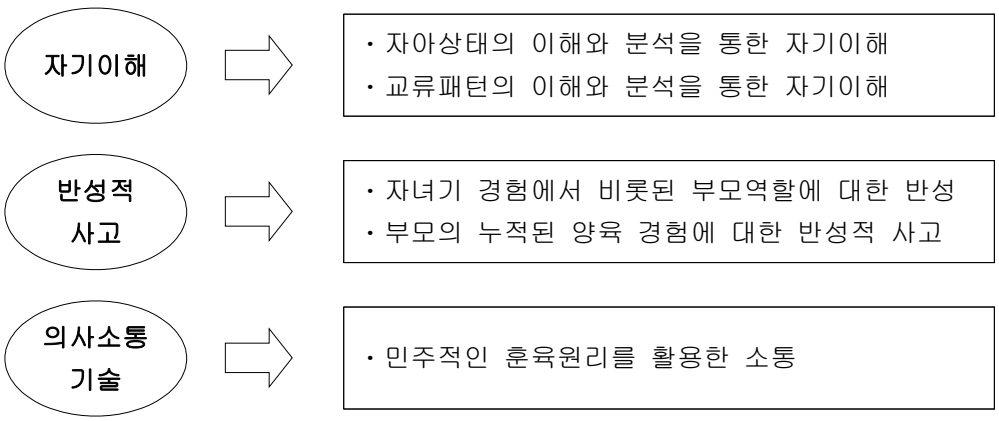
외 (2009)	· 발달적용을 위한 지원 : 경청, 의사소통의 걸림돌,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 역할극,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역할의 이해 : 평가와 소감발표	할이론을 내용에 반영함
이명지 (2011)	· 부모에게 물려받는 부모역할 이해하기 : 성장과정을 소개하고 부모에게 받은 영향 발견 · 부모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 자신의 부모 역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부모역할 이해 · 자녀의 입장에 부모역할 이해하기 : 자녀 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기 :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변화를 발견	·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선정함
장성단 (2016)	· 감정표현과 감정의 이해 :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표현과 인식, 심리적 갈등과 억압,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핵심감정 이해 · 정서와 사고의 분화 : 원가족 정서의 탐색, 가계도 그리기, 핵심감정과 원가족 감정과의 관계,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해, 가족역동, 세대전이, 가족투사 등의 이해 · 자기이해 확장 : 과거 원가족 경험과 자신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해,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의 투사이해, 자녀와 자신의 고유성 이해 및 수용	· 원가족 경험과 자신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내용을 선정함
정계숙 외 (2015)	· 부모성격 이해와 양육 · 부모의 공감능력 개발 ·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	· 성격유형의 이해,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내용으로 선정함

표 3에서 제시한 문헌들을 분석해 보면, 김명하(2013)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에서 개인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이해·자율성 회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인 관계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

는 타인이해・바람직한 관계 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자기이해'에서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성격을 구성하는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타인과 소통하는 교류패턴의 유형과 특성으로 구성하였고 둘째, '타인이해'에서는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타인의 행동분석, 인정 자극의 개념 및 유형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자율성 회복'에서는 이성과 감성의 사용, 독립과 의존을 결정하는 자기분화에 대한 이해, 성인 자아상태 활성화를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넷째,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서는 반영적 경청, 나 전달법, 승승전략을 통한 의사소통기술의 이해, 양육태도의 유형과 자녀발달의 관계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노진형(2006b)은 반성적 사고를 적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인학습자인 부모의 필요와 흥미, 능력에 맞는 내용, 누적된 양육경험에 근거한 내용,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와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아 외(2009)는 자녀의 이해와 발달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기이해와 발달적용을 위한 지원 그리고 부모역할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자녀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기질과 문제소유를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발달적용을 위한 지원'에서는 경청・의사소통의 걸림돌・반영적 경청・나-전달법・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의 이해'에서는 평가・소감발표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명지(2011)는 반성적 사고중심 소모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반성적 사고의 활용'을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모에게 영향 받은 부모역할의 이해, 자신의 부모역할 이해,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역할의 이해, 자신의 변화를 위한 이해이다. 장성단(2016)은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인격성숙과 부모역할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정표현과 감정의 이해, 정서와 사고의 분화, 자기이해 확장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감정표현과 감정의 이해'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경험한 어려

움을 표현하면서 심리적 갈등과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핵심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서와 사고의 분화'에서는 원가족의 정서를 탐색하면서 가계도를 그리고 핵심감정과 원가족과의 관계성을 찾는다. 또한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세대전이, 가족 투사 등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이해의 확장'에서는 과거 원가족 경험과 현재 자신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투사를 이해하고, 자녀와 자신의 고유성을 알고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계숙 외(2015)는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참 역량을 증진하고자 부모성격 이해와 양육, 부모의 공감능력 개발,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대체로 부모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공통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적용점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내용을 목표에 따라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내용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고안하고, 프로그램의 목표인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으로는 자아상태의 이해와 분석,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및 활성화, 교류패턴의 분석, '반성적 사고'를 위한 내용으로는 부모들의 자녀기 경험에서 비롯된 부모역할, 누적된 양육경험, '의사소통기술'을 위한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한 소통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로 선정된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계숙, 최은실(2013)의 부모 참 역량에서 제시한 자기체계역량(자기이해), 양육역량(반성적 사고와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요인과 일치하여 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음이 지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헌분석 결과가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모는 일상의 경험들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부모의 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선정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토론연극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교수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가·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에 사용된 참고 문헌은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 분석에서 사용된 문헌 중 교수-학습 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된 연구물 두 편(김명하, 2013; 노진형, 2005b)에서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 네 편(김혜인, 2012; 박혜련, 2006; 신지수, 2010; 허세정, 2014)의 연

구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김혜인(2012)의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하여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중심의 교수-학습절차를 각각 제시하고, 통합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우수한 결과로 보고하였다. 박혜련(2006)의 연구는 토론연극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형을 구안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신지수(2010)의 연구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개발에서 토론연극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교수-학습방법을 발견하고 그 적합성을 알아보면서 적용방법을 모색하였다. 허세정(2014)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사례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전체와 회기별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추가 문헌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성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Caffarella 와 Merrian(2000), 김희진(2005)이 제안한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헌을 검토하였다. 단,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수-학습 단계, 교수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①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 선정을 위해 문헌을 분석한 결과, '준비-도입-전개-심화-마무리'로 그 단계가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분석 및 적용점

분류	연구자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	적용점
부	김명하	・마음열기 ⇨ 과제접근하기 ⇨ 정보지식	・교육 전에 라포

모교육프로그램	(2013)	제공 ⇨ 적용하기 ⇨ 느낌나누기	형성을 위한 친교의 시간 갖기 · 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소개
	노진형 (2005b)	· 과거의 부모경험 검토 및 분석 ⇨ 부모교육내용전달 ⇨ 새로운 지식 적용 ⇨ 실생활에서적용 ⇨ 전문가의 피드백	·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 전문가의 적절한 피드백 활용
토론연극을활용한프로그램	김혜인 (2012)	· 인지적 : 도입(도덕적 문제 의식화) ⇨ 전개 (인지화) ⇨ 정리(실천동기부여) · 정의적 : 도입(도덕적 모범 사례제시) ⇨ 전개(심정화) ⇨ 정리(실천의지강화) · 행동적 : 도입(모범적 행동제시) ⇨ 전개(행동화) ⇨ 정리(도덕적 실천다짐) · 통합형 : **도입**(의식화 : 도덕적 문제 의식화) ⇨ **전개1**(인지화 : 문제상황극 제시) ⇨ **전개2**(심정화 : 토론 및 성찰을 통한 대안 탐색) ⇨ **정리**(행동화 :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	· 토론과 성찰의 기회 갖기 · 토론연극을 활용하여 문제상황극 제시
	박혜련 (2006)	· **문제확인**(마음열기, 역할극보기, 문제인식하기, 문제확인하기) ⇨ **토론연극**(다양한 토론연극으로 문제해결방안 탐색하기) ⇨ **토론하기** ⇨ **정리하기**(토론에서 정리된 생각 기록하기)	· 토론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이 이완될 수 있는 기회 갖기
	신지수 (2010)	· **사전준비**(문제상황극 수집) ⇨ **문제제기**(문제상황극 제시) ⇨ **문제검토**(문제상황에 대한 의견공유, 토론 및 성찰을 통한 대안 탐색, 문제상황극 다시 보기 및 관객개입) ⇨ **결론**(개입에 대한 결론 나누기)	· 문제상황극을 학습자의 경험에서 수집
	허세정 (2014)	· **도입**(인지적, 정서적 공감 : 놀이와 훈련, 억압된 이미지, 역동화) ⇨ **전개**(인	· 공감과 의사소통을 활용하기

		지적, 정서적 공감 : 문제상황극 실연, 대안 탐색과 의견공유) ⇨ **마무리**(의사소통적 공감 : 관객-배우의 개입, 이상적 이미지 창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적용점을 표 4에서 제시한 문헌들로 분석해 보면 먼저,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김명하(2013)의 연구에서는 마음열기, 과제 접근하기, 정보지식 제공, 적용하기, 느낌나누기의 5단계로 제시하였고, 노진형(2005b)은 과거의 부모경험을 검토하고 분석하기, 부모교육의 내용 전달하기,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기, 실생활에 적용하기, 전문가의 피드백 순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 김혜인(2012)의 연구에서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수업의 교수-학습의 단계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통합형 교수-학습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단계의 시작은 도입으로 '의식화 단계'(도덕적 문제 의식화)이며, 다음으로 전개1은 '인지화 단계(문제상황극 제시)' 그리고 전개2는 '심정화 단계(토론 및 성찰을 통한 대안 탐색)'이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행동화 단계(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이며 이와 같은 단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혜련(2006)은 문제확인(마음열기, 역할극보기, 문제인식하기, 문제확인하기), 토론연극(다양한 토론 연극기법으로 문제해결방안 탐색하기), 토론하기, 정리하기(토론에서 정리된 생각 기록하기)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신지수(2010)는 사전준비(문제상황극 수집), 문제제기(문제상황극 제시), 문제검토(문제상황에 대한 의견공유, 토론 및 성찰을 통한 대안 탐색, 문제상황극 다시 보기 및 관객개입), 결론(개입에 대한 결론 나누기)의 4단계를 제시하였으며, 허세정(2014)은 도입(인지적, 정서적 공감 : 놀이와 훈련, 억압된 이미지, 역동화), 전개(인지적, 정서적 공감 : 문제상황극 실연, 대안 탐색과 의견공유), 마무리(의사소통적 공감 : 관객 - 배우의 개입, 이상적 이미지 창조) 순으

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를 선정하기 위해 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대체로 4단계에서 5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준비단계와 심화단계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참여자가 서로를 가르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참여자 중심의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토론연극은 참여 대상인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지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에서 제시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의 개입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나누기'의 단계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의 이전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는 예비연구 이전부터 교육연극과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 위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제공 없이 부모교육을 진행한 경우, 토론이 참여자들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면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의 단계를 추가하여 부모교육 관련 이론적인 배경과 근거를 제공하면서 어머니들이 보다 성공적인 결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표 4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적용점에 따라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의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문헌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

김미숙(2012)은 부모교육에서 부모들의 개인적 관심이 강조되고, 실제 양육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피드백은 어머니 자신의 양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노진형(2005b)과 이명지(2011) 역시 부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 사고와 소집단 토론을 교육방법으로 활용할 때, 학습자들은 경험과 관점을 객관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지적 동기요인이 됨을 강조하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단계가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적용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단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몸과 마음열기-문제상황극 감상하기-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나누기-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해결방안 적용하기'를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교수방법

본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그에 따른 적용점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프로그램의 교수방법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연구자	프로그램의 교수방법	적용점
김명하 (2013)	· 강의, 토의, 과제	· 강의 · 전문 피드백 · 소집단 토론 · 기록(저널, 워크북) · 문제상황극
노진형 (2005b)	· 반성적 사고를 위한 소집단 토론, 저널, 부모 - 자녀의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본 ·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피드백	
신지수 (2010)	· 문제상황극, 토론, 결과 기록	
김혜인 (2012)	· 문제상황극, 토론, 결과 기록	
박혜련 (2006)	· 문제상황극, 토론, 결과 기록	
허세정 (2014)	· 문제상황극, 토론, 결과 기록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적용점을 표 5에서 제시한 문헌들로 분석해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김명하(2013)는 강의, 토의, 과제를 교수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노진형(2005b)은 부모교육을 포괄적인 성인교육으로 보고 반성적 사고에서 이끌어 내고자 소집단 토론,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본, 전문가 피드백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문제상황극, 토론, 기록으로 교수방법을 활용하였다(김혜인, 2012; 박혜련, 2006; 신지수, 2010; 허세정, 2014).

본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을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강의, 소집단 토론, 기록, 문제상황극, 피드백을 주된 교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모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교수방법의 선정은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상황극을 제시하고, 성찰과 반성적 사고를 활용하기 위해 토론을 경험하고, 강의에서는 새로운 적용점을 발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은 문제상황극, 강의, 토론을 선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방법은 추후 참여 대상자의 요구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의 특성과 필요, 선호도에 부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선정

프로그램 평가에서 사용한 분석문헌들은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과 일치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된 연구물 2편(김명하, 2013; 정계숙 외, 2015)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

램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기업교육과정연구로 사원들의 어려움을 토론연극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질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1편(장은아, 2015)을 추가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기존문헌과 적용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선정을 위한 근거 문헌 분석 및 적용점

연구자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적용점
김명하 (2013)	·구조적 평가 : 자아상태검사, 자기분화검사, 양육태도검사 ·비구조적 평가 : 각 회기별 소감과 프로그램 마무리 이후의 참여 소감을 통한 질적 변화 평가	·자아상태검사 ·회기별 참여 소감
정계숙 외 (2015)	·구조적 평가 : 부모 참 역량, 프로그램의 만족도 ·비구조적 평가 : 개별면담을 통한 부모 참역량의 개별변화를 질적으로 분석	·부모 참 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개별면담을 통한 변화 분석
장은아 (2015)	·구조적 평가 : 토론연극의 선호와 만족도 ·비구조적 평가 : 개인의 변화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수집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의견수집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방법의 적용점을 표 6에서 제시한 문헌들로 분석해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김명하(2013)와 정계숙 외(2015)는 구조적·비구조적 평가를 활용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장은아(201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평가방법이 혼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다면적 평가로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학습자 중심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평가 역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검사 도구를 통한 양적평가에서는 자아상태 검사, 부모 참 역량검사를, 질적평가에서는 면담, 참여관찰, 연구자의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회기별 평가를 활용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에서 나타난 경험과 변화를 발견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성인 학습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조건 중의 하나이며, 성인학습자의 학습이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과 흥미,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누적된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노진형, 2005b). 따라서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희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5세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①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의 S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80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0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회수된 설문지 7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n*=75)

배경변인	구분	*n*(%)
연령	25세 ~ 29세	1(1.3)
	30세 ~ 34세	21(28.0)
	35세 ~ 39세	36(48.0)
	40세 ~ 44세	14(18.7)
	45세 ~ 49세	3(4.0)
학력	중졸	0(0.0)
	고졸	25(33.3)
	대졸	39(52.0)
	대학원졸	11(14.7)
취업형태	비취업	38(50.7)
	취업(6시간 이하근무)	15(20.0)
	취업(6시간 이상근무)	22(29.3)
자녀의 수	1명	31(41.3)
	2명	38(50.7)
	3명	6(8.0)
주 양육자	어머니	63(84.0)
	아버지	0(0.0)
	친정부모님	9(12.0)
	시부모님	3(4.0)

②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기존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2008)와 김명하(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유아교육과 교수 1인,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유치원장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배경, 부모교육과 기존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토론연극을 활용

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지 문항구성

영역		항목	문항수
인적사항		연령, 학력, 취업여부, 근무시간, 수입, 자녀 수, 주 양육자	10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의 필요성	1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	1
		부모교육의 내용	1
기존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의 경험여부	1
		이전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부모교육의 효과 및 장단점	3
		부모교육의 무경험 이유	1
토론 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필요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부모교육의 필요성	1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부모교육의 참여의사 여부	1
		부모교육의 참여 이유	1
		부모교육의 방법에 대한 요구	7
		기타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	1

③ 자료 분석

본 요구조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다중 응답 문항에 대해

서는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분석은 김영천(2012)이 제시한 전사, 코딩,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④ 자료 분석 결과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요구는 부모교육의 필요, 이전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거나 알고 싶었던 정도,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96%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돕는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도움으로 93.3%가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전의 부모교육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교육의 참여 여부와 참여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전의 부모교육 참여는 4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유치원의 경우 2008년부터 매해 부모교육 동아리를 3~4회기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어머니들과 그렇지 않은 신입학부모들이 설문조사의 대상이었던 영향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경험이 없는 41명의 응답자들 중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46.7%)',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20.0%)',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18.7%)', '함께 참석할 친구가 없어서(10.6%)',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서(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 참여를 돕는 서비스로는 자녀 돌보기를 제공

하는 것, 참여 가능시간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토론연극이 부모에게 익숙하거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에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92.0%의 응답자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힌 43명의 응답자들 중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53.4%)', '토론연극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35.0%)', '새로운 접근에 대한 흥미(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응답자들 중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녀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론연극의 활용은 부모-자녀의 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요구

분류	문항	내용	*n*(%)(*n*=75)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거나 알고 싶었던 정도	별로 없었다	3(4.0)
		조금 있었다	29(38.7)
		항상 있었다	43(57.3)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필요	필요하다	70(93.3)
		필요없다	5(6.7)

이전의 부모교육 경험	이전의 부모교육의 참여	참여한 적이 있다	34(45.3)
		참여한 적이 없다	41(54.7)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필요하다	69(92.0)
		필요없다	6(8.0)
계			75(100)

마지막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한 요구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한 요구

문항	내용	*n*(%)(*n*=75)
장소	유치원	56(74.7)
	지역사회 공간	19(25.3)
	기타	0(0.0)
희망 시간대	오전 10시 ~ 12시	31(41.3)
	오전 12시 ~ 오후 2시	11(14.7)
	오후 2시 ~ 오후 4시	11(14.7)
	오후 4시 ~ 오후 6시	12(16.0)
	오후 6시 이후	10(13.3)
횟수(주 1회)	총 8회	47(62.6)
	총 10회	11(14.7)
	총 12회	9(12.0)
	총 15회	8(10.7)
회당 교육시간	1시간 이내	34(45.3)
	1 ~ 2시간	35(46.7)
	3 ~ 4시간	6(8.0)

참여 서비스	자녀돌보기	51(68.0)
	간식 및 식사제공	11(14.7)
	교통편제공	5(6.6)
	주차장 확보	8(10.7)
계		75(100)

응답자들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유치원(74.7%)을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응답하였다. 교육 회차는 주 1회씩 8회(62.6%)를, 교육 시간대는 오전 10시~12시(41.3%)를 가장 선호하였다. 회당 교육 시간은 1시간 이내(45.3%)와 1~2시간(46.7%)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심층면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와 문제 상황극의 시나리오를 추출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김희진(2005)과 민선옥, 배지희(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행동, 부모 자신의 욕구,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사용된 주요 질문의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영역	항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행동	·자녀의 성격과 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자녀양육의 협력자

부모 자신의 욕구	· 부모의 자녀기 경험 ·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 문제, 관심과 흥미 · 자녀양육에서 부모가 가진 장점과 단점 · 부모교육의 참여 동기 · 부모교육의 기대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욕구	· 프로그램의 참여가 편리한 요일, 시간 및 장소 · 가장 효율적인 연락방법 ·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부가적 서비스

면담은 2016년 3월 28일 ~ 4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내용은 문서기록과 녹음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은 S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이자 예비연구의 참여자 9명이다. 면담 시간은 참여자별로 1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어머니들에게 면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위하여 예비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이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또래친구들을 이상한 아이라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아이들을 갈라놓기도 해요. 엄마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함께 잘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해지면 좀 다르잖아요.
>
> (2016. 3. 29, 1차 개별면담 은비어머니)

>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었는데 이번 부모교육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쁜 엄마를 두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아요. (중략)

초등학교에 가면 어머니들이 정말 다양하고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처음 자리에서는 나서는 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이나 봐요. **어머니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 성숙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6. 3. 30, 1차 개별면담 민준어머니)

저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아이에게 요리를 잘 해주지도 못하고, 학습을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요.** 그런데 어떤 날, 나도 싫은 나의 모습을 아이가 따라할 때 두렵기까지 해요.

(2016. 4. 5, 1차 개별면담 수윤어머니)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감, 다른 어머니들과의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실천하면서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지친 일상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다른 어머니들과 협력적인 관계 맺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면담사례와 같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걱정이 돼요.** 때때로 친구들과의 갈등에서 속상함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들이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고 말아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16. 3. 28, 1차 개별면담 호진어머니)

아이와 함께 놀이터를 갔는데 옆의 아이를 가리키며 **"엄마, 저 형아가 나를 때렸어. 나도 때려도 돼."**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때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 4. 5, 1차 개별면담 수윤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늘 또래 때문에 속상함을 호소해요. 큰 아이의 경험을 회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2016. 4. 13, 1차 개별면담 은율어머니)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또래관계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유치원에서 자녀가 또래와 어떻게 지내는지, 또래관계에서 자녀의 속상함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해하였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부모교육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면서 부모역할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어려움에서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머니 자신과 부모역할의 이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를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자녀와의 갈등사례를 토론연극의 문제상황극 시나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3) 요구조사 분석 결과 및 적용점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와 내용, 방법에 대한 요구를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으로 조사한 결과,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할 적용점들은 다음의 표 12와 같이 추출되었다.

<표 12> 요구조사 분석 결과 및 적용점

설문조사	심층면담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함 ·어머니들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 ·이전 부모교육의 참여경험이 낮음 ·부모교육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직장 때문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순으로 나타남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가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회복에 효과적, 새로운 접근에 대한 흥미 순으로 나타남 ·교육방법 중 교육시간은 평일 1시간 이내와 1~2시간에 대한 요구가 유사하게 나타남 ·교육횟수는 8회로 진행되기를 희망함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함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지원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 부모-자녀 갈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어머니들은 자신의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치판단의 모호와 혼란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머니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남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은 지친 일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해소와 휴식의 시간이 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함 ·교육방법 중 교육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회차는 8회를 희망함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한 적용점	
교육내용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가 교육내용인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에 적합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함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과 기대를 반영하여 자녀와의 소통에서 놀이활용을 교육내용으로 추가하여 포함
교육방법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협의하여 선정함 ·교육 횟수는 8회를 희망하였으나 오리엔테이션 1회, 교육내용에 대한 원활한 제공하기 위해 1회가 추가되어 총 10회로 조정함

표 14에서 제시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돕는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응답자의 96%가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고, 93.3%가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결과는 부모들의 어려움 역시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담의 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또래관계의 지원, 자녀발달과 기질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부모교육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에서 응답자들의 53.4%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35%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층면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었다. 어머니 자신과 부모역할의 변화를 도모하고, 자녀의 다루기 어려운 행동들을 극복하면서 부모-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과 어머니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부모교육의 참여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43.9%)',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22%)',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19.5%)'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돕는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교육의 방법 중 교육시간은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는 1시간 이내와 1시간 ~ 2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예비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협의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8회의 교육횟수를 희망하였으나 오리엔테이션 1회와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과 관련된 각각의 내용에 대한 원활한 제공을 위해 1회를 추가하여 총 10회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부모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바뀌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반성적 사고를 활용하여 자기이해를 돕고, 자녀와 소통하는 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어머니 역할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졌으며, 자신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녀와 즐겁게 지내는 일상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과 기대를 반영하여 자녀와의 소통에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통의 방법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은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위로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일상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양육경험과 의사소통기술을 함께 제시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의사소통기술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놀이를 활용한 소통기술을 제공한다.

셋째,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위해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맥락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교육 횟수는 주 1회 총 10회기를 적용하고, 교육시간은 매 회기 2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한다.

3) 프로그램 시안 개발

문헌고찰과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시안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시안의 구성 체계는 표 13과 같다.

<표 1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안의 구성 체계

프로그램명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정	기간	10주
	회당 교육시간	2시간
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
	교육목표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적합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
교육 내용	자기이해	자아상태 검사를 활용하여 자기인식 자신의 교류패턴을 알고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자녀기 경험에서 비롯된 부모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 부모의 누적된 양육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 기술	민주적인 훈육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
교수 학습 방법	교수학습단계	몸과 마음열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해결방안 적용하기

	교수방법	강의, 토론연극(문제상황극 실연 및 토론, 재구성), 저널
평가	구조적 평가	자아상태 검사, 부모 참 역량 검사
	비구조적 평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 참여관찰, 저널, 회기별 평가,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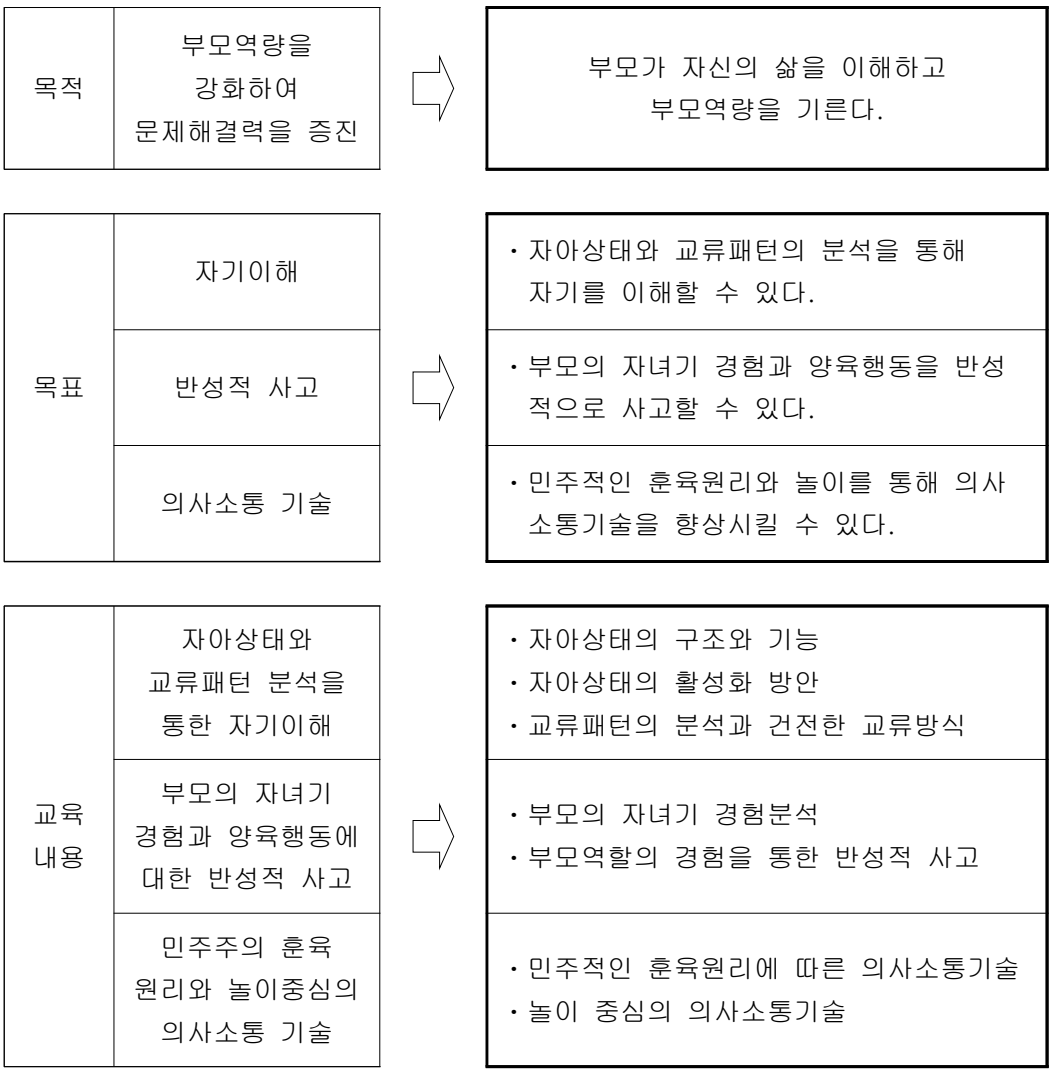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안의 목적은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는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적합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목표에 따른 내용으로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이해'의 내용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활용한 자기인식, 자신의 교류패턴을 알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성적 사고'의 내용으로 자녀기 경험에서 비롯된 부모역할과 부모의 누적된 양육경험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기술'의 내용으로 민주적인 훈육기술과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교수학습단계와 교수방법을 선정하였다. 교수학습단계는 몸과 마음열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해결방안 적용하기 순이며, 교수방법은 강의, 토론연극, 저널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구조적 평가와 비구조적 평가를 선정하였다. 구조적 평가에서는 자아상태 검사, 부모 참 역량 검사를, 비구조적 평가에서는 개별면담과 집단면담, 참여관찰, 저널, 회기별 평가, 연구일지와 현장노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4) 전문가 협의

본 연구에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시안을 개발하고, 2016년 8월 시안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부모교육 전문가 1인, 교육경력 25년 이상의 유치원 원장 1인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시안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내용, 요구조사 결과, 프로그램 시안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안내하는 길잡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목적은 프로그램 개발의 총제적인 개념과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이 드러나는 것과 본 연구가 적극적인 참여 형태의 부모교육인 만큼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중시되는 철학이 나타나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면 프로그램의 목표는 목적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부요소와 전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목적 및 목표 진술을 수정하였다. 목적의 진술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의 진술은 학습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술로 수정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내용은 프로그램의 실제에서 구현해야 할 콘텐츠를 확보하기에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참여자의 요구, 특성, 누적된 경험을 반영하고, 참여자의 삶과 상황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전문가 협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된 내용은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

5) 예비연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보완하면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실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예비연구 내용

프로그램명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정	기간	4주
	시간	저녁 6시 ~ 8시
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기른다.
	교육목표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의 분석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기 경험과 양육행동을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민주주의 훈육원리와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 내용	1회 (2016.9.9)	자아상태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2회 (2016.9.23)	교류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3회 (2016.9.30)	자녀기 경험을 통한 부모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
	4회 (2016.10.7)	부모의 양육경험에서 나타난 문제해결 :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교수 학습 방법	교수학습단계	몸과 마음열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해결방안 적용하기
	교수방법	강의, 토론연극(문제상황극 시연 및 재구성, 토론), 과제
	교수매체	시각물 : 파워포인트 인쇄물 : 교육 내용에 따른 유인물, 토론연극 시나리오 자아상태 검사 결과지
평가	구조적 평가	자아 상태 검사
	비구조적 평가	면담, 참여관찰, 연구자의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평가

예비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S유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 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어머니들이다. 유사한 특성으로는 참여 어머니의 수와 연령, 직업유무, 자녀의 수와 연령, 유아교육기관의 규모와 교육철학이 해당된다. 또한 본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현장과 참여자들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예비연구는 심층면담 2회, 프로그램의 적용 및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차 개별면담은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면담의 목적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필요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2차 개별면담은 2016년 8월 19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면담의 목적은 부모교육 대상자인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경험(정계숙, 노진형, 2006)과 관련한 학습으로 교육의 내용(문제상황극 시나리오의 내용)을 선정하고자 실시되었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연구에서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교육시간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육의 전체 진행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놀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보로 제공하는 것보다 직접 놀이를 경험하게 한다면 부모들이 자녀와 놀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단계 중 '몸과 마음열기'에서 제공하는 흥미로운 게임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활용할 수 있는 놀이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녀역할을 자발적으로 연기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기순서를 정하거나 고루 연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제상황극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견하는데 적절한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예비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도구의 활용은 참여자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개선의 의지와 방향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부모 참 역량 검사도구 역시 교육의 효과와 부모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문헌고찰, 요구분석, 전문가 협의, 예비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프로그램의 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는 그림 8과 같다.

프로그램명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기른다.
	목표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의 분석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기 경험과 양육행동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민주적인 훈육원리와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내용	내용범주	내용 요소
	자기 이해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자아상태의 활성화 방안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
	반성적 사고	・부모의 자녀기 경험분석 ・부모역할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 기술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기술 ・애착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단계	몸과 마음열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해결방안 적용하기
	교수방법	강의, 문제 상황극, 토론, 저널
평가	구조적 평가	자아상태 검사, 부모 참 역량 검사
	비구조적 평가	면담, 참여관찰, 연구자의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평가

[그림 8]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체계

1)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의 분석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자녀기 경험과 양육행동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셋째, 민주적인 훈육원리와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교육내용

(1) 교육내용의 체계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부모 참 역량은 중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체계역량을 위한 내용으로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양육역량을 위한 내용으로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체계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체계

역량	내용범주	내용요소
자기체계 역량	· 자기이해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 자아상태의 활성화 방안 ·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
	· 반성적	· 부모의 자녀기 경험분석

	사고	· 부모역할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
양육역량	· 의사소통 기술	·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술

자기체계역량은 부모 자신 및 자신의 행복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하여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량(정계숙, 최은실, 2013)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자기이해는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형성된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으로 내면화된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교육내용은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자아상태의 활성화,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반성적 사고는 습관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미래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과정이다(정계숙, 노진형, 2006). 즉,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사고과정이다. 이를 위한 교육내용은 부모의 자녀기 경험, 누적된 부모역할의 경험을 포함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은 성인교육의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관점전환학습, 경험학습, 자기주도 학습으로 반성적 사고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중 관점전환학습은 부모의 경험을 학습자의 관점과 이미 주어진 해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비판적 성찰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경험학습은 부모의 경험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자기성찰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가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이전의 경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성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역량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 및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량을 의미하며(정계숙, 최은실, 2013)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술

이 이에 해당된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보편적인 상호 교류과정이다. 이를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민주적인 훈육원리, 놀이를 포함하였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적합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의 문제해결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구체적인 상황중심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 내용구성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이론으로 구성된 강의와 이론의 적용을 위한 토론연극으로 구성하였다. 주제에 따른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시기	내용범주	주제	교육내용
2회	자기이해	알고 싶은 나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가 말했지!**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3회		새롭게 피어나는 나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나도 나도**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자아상태의 활성화**
4회		행복한 어머니로의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왜 못들은 척해?**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나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
5회	반성적사고	나의 부모 이야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부모의 자녀기 경험분석**
6회		부모인 나의 이야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데 학습지는 어느 것이 좋아?**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부모역할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
7회		자녀의 마음 알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이 책 또 읽어 주세요.**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기술Ⅰ**
8회	의사소통기술	자녀와 이야기하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놀이기구 더 타고 싶어요.**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기술Ⅱ**
9회		자녀와 놀이하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나는 종이접기 더 할래!**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Ⅰ**
10회		여러 자녀와 놀이하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내 책 먼저 읽어 줘.**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Ⅱ**

표 16과 같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회기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자와의 라포형성을 위한 시간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2~4회기에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고 싶은 나', '새롭게 피어나는 나', '행복한 어머니로의 나'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알고 싶은 나'에서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제 '새롭게 피어나는 나'에서는 자아상태 검사의 결과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자아상태를 알고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주제 ‘행복한 어머니로서의 나’에서는 부모 자신의 교류패턴을 분석하고 건전한 교류를 통해 자녀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6회기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부모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경험하고자 ‘나의 부모이야기’, ‘부모인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나의 부모이야기’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기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제 ‘부모인 나의 이야기’에서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경험한 부모역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를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7~10회기에서는 어머니들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고자 ‘자녀의 마음알기’, ‘자녀와 이야기하기’, ‘자녀와 놀이하기’, ‘여러 자녀와 놀이하기’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자녀의 마음알기’와 ‘자녀와 이야기하기’에서는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바탕으로 자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주제 ‘자녀와 놀이하기’와 ‘여러 자녀와 놀이하기’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놀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하면서 점차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잃고 자녀와의 관계와 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지도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모호함은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역할과 양육태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어머니들의 민주적인 훈육원리와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켜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와의 갈등해결을 실천하고자 한다.

3) 교수-학습 방법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단계와 교수방법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교수-학습 방법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의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선정이 중요하다.

(1) 교수-학습 단계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단계는 몸과 마음열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해결방안 적용하기의 5단계로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1단계	**몸과 마음열기**	다과와 음악 나누기	간단한 게임 및 놀이하기	친밀감 형성하기
↓				
2단계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상황극에서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기	
↓				
3단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나누기**	문제상황극과 관련된 이론과 개념 소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지식 제공	

4단계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갈등 원인에 대한 의견 공유	토론과 성찰을 통한 대안 탐색	문제해결극 시나리오 구성

5단계	**해결방안 적용하기**	해결방안으로 부모역할 재구성	문제해결극 실연과 평가

[그림 9]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몸과 마음열기'는 참여자들 간에 친밀감과 유연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과와 음악을 제공하여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간단한 놀이를 통해 몸을 이완시킨다. 본 프로그램은 토론연극을 실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몸과 마음의 준비와 긴장을 이완하는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 '문제 상황극 감상하기'에서 참여자들은 직접 문제상황극을 실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상황극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는 참여자들이 자녀와 경험한 갈등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문제상황극의 갈등을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면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한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와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는 문제상황극의 해결을 돕는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4단계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에서는 본격적인 문제의 검토가 시작된다. 문제상황극에서 발견한 갈등의 원인을 연구 참여자들의 공동 사

고를 통해 교류하는 토론의 과정에서 타당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집한다. 또,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토론과 성찰을 하면서 문제의 소유자를 발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훈육방법을 선택한다. 교류한 의견 가운데 신뢰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문제해결극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 '해결방안 적용하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단계로 부모역할을 재구성하고 문제해결극을 실연・평가한다.

(2) 교수방법

본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교수방법은 문제상황극, 강의, 토론, 저널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상황극

문제상황극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소재를 발전시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연기할 수 있는 연극이다.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는 참여자들에게서 수집된 부모역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등장인물의 상황과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단, 9회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 8 '나는 종이접기 더 할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찬(2014)의 부모가 되는 시간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선행연구에서는 문제상황극의 제시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문제상황극을 참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문제상황극의 만들기부터 참여자들이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참여자가 갈등 찾기, 사례 모으기, 상황 만들기, 장면 다듬기, 상황극 연습하기 등의 모든 과정을 참여하고 연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문제상황극의 제시방법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감상하고 연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부모교육에서 토론연극을 활용하는 것도 낯선 경험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갈등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준비과정의 참여는 실험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문제상황극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문제상황극의 제목

회	문제상황극의 제목	문제상황극의 내용
2	엄마가 말했지!	늦은 밤, TV시청을 주장하는 자녀 VS 취침을 강요하는 부모
3	엄마, 나도 나도	동생의 출생으로 퇴행행동을 보이는 자녀 VS 퇴행행동을 거부하는 부모
4	왜 못들은 척 해?	놀이에 집중하는 자녀 VS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
5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손자녀 돌보기를 돕는 조부모 VS 부모
6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데 학습지는 어느 것이 좋아?	유아기 교육, 인성과 놀이 VS 선행학습
7	엄마, 이 책 또 읽어 주세요.	같은 책만 보고 싶은 자녀 VS 다양한 책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
8	엄마, 놀이기구 더 타고 싶어요.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자녀 VS 따르기를 강요하는 부모
9	나는 종이접기 더 할래!	부모와 놀고 싶은 자녀 VS 자녀와의 놀이가 어려운 부모
10	내 책 먼저 읽어 줘.	형제자매와 갈등을 겪는 자녀들 VS 자녀들의 갈등에서 고민하는 부모

② 강의

강의는 교수자가 지식, 개념, 사실 등의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과정으로 실시하는 학습지도의 한 형태이다(김용현, 김종표, 문종철, 이복희, 2010). 본 연구에서 강의는 문제상황극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이론 및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문제상황에서 나타난 갈등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전의 훈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③ 토론

토론은 학습자 중심으로 강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자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교수방법이다(권대봉, 1999). 본 연구에서 토론은 문제상황극에서 발견한 문제와 그 원인,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가능한 창의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제안하는 공개적인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둠별로 토론하고 여러 해결방안을 공유하면서 학습하고자 한다.

토론은 그 결과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최선의 해결방안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훈육문제에는 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습관적인 훈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연극에서 문제해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④ 저널

저널쓰기는 새롭게 알게 된 이론이나 개념을 삶에 적용시키고, 자신의 실천 행위를 기록하는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김명하, 201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모역할의 변화와 지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저널쓰기를 제시하여 자신의 상황과 행동, 생각 등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용을 적용하는 변화와 지속을 돕고자 한다. 또한 저널쓰기 자체가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 저널의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될 때 그 과정에서 가능해진다(노진형, 2005). 따라서 참여자들의 저널에 대해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돕고자 한다.

(3) 교수매체

교수매체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물이나 구성요소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내용에 맞게 논리적이면서도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수매체로 문제상황극에서 시나리오와 소품을, 강의에서 PPT를, 토론에서 인쇄물과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게 된다.

① 시나리오와 소품

토론연극에서 문제상황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이다. 참여자들은 현실에 대한 억압을 공감하면서 갈등과 해결방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상

황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수집한 경험으로 사실감 있고 간결하게 그리고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였다. 문제상황극과 문제해결극을 위한 시나리오는 활동지 양면으로 출력하여 제공되었으며, 그 중 문제해결극의 시나리오는 부모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합하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문제상황극과 문제해결극의 시나리오 예는 표 18과 같다.

<표 18> 문제상황극과 문제해결극의 시나리오 예

주제	알고 싶은 나
문제상황극 제목	**엄마가 말했지!**
자료	빔, 컴퓨터, PPT(TV 슬라이드), 역할 목걸이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5살 예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텔레비전을 본다. 예지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엄마는 집안일을 한다.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고 자야 할 시간이라는 말을 하지만 예지는 텔레비전을 더 보기 원한다. 엄마 :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어. 자 이제 자자. 예지 : 싫어. TV 더 볼래. 엄마는 아이를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한다. 엄마 : 엄마가 말했지. 이제 자야 한다고 했지. 자, 어서 자! 예지 : 싫어. 잠이 안 와. 엄마는 TV를 신경질적으로 끄며 말한다. 엄마 : 너 엄마한테 맞고 싶어? 예지 : (예지는 다시 TV를 켜려고 하며) 엄마, 미워. 아주 나빴어. 엄마는 예지의 손목을 붙잡고 아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 준 다음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간다.	

문제해결극 시나리오
5살 예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텔레비전을 본다. 예지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엄마는 집안일을 한다.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고 자야 할 시간이라는 말을 하지만 예지는 텔레비전을 더 보기 원한다. 엄마 :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어. 자 이제 자자. 예지 : 싫어. TV 더 볼래. 엄마 :

② PPT

다양한 매체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특징과 시청각을 활용한 학습효과, 강의에 대한 흥미지속을 고려하여 교육 보조물로 PPT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강의매체인 PPT 자료를 부모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이론 및 개념, 정보를 제공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문장, 이미지 및 동영상 자료, 이론의 구조와 개념의 파악을 돕는 도표 등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PPT 자료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고, PPT의 활용 예는 그림 10과 같다.

<표 19> PPT 회차별 자료

회	주제	PPT의 제목	내용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프로그램 OT	·프로그램과 일정 안내 ·연구 참여자 소개방법
2	알고 싶은 나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문제상황극에서 나타난 자아상태의 구조를 알고 자신의 자아상태를 이해한다.
3	새롭게 피어나는 나	·자아상태의 활성화	·문제상황극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아상태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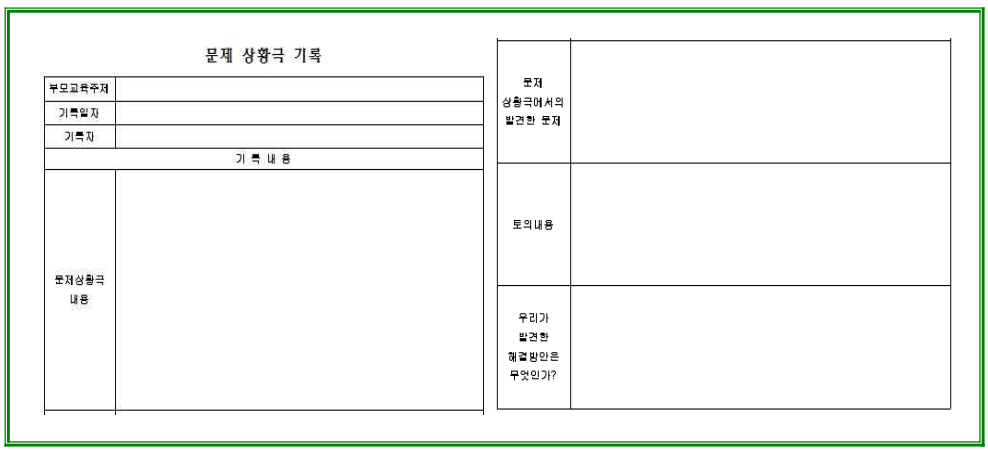
4	행복한 어머니로의 나	·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	· 문제상황극에서 제시된 교류패턴을 이해하고 건전한 교류방식을 적용한다.
5	나의 부모 이야기	· 부모의 자녀기 경험 분석	· 문제상황극을 활용하여 부모의 자녀기 경험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6	부모인 나의 이야기	· 부모역할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	· 문제상황극의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7	자녀의 마음 알기	·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I	· 민주적인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문제상황극의 자녀와 소통하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8	자녀와 이야기하기	·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II	· 민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알고 문제해결극에 적용한다.
9	자녀와 놀이하기	·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I	·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10	여러 자녀와 놀이하기	· 놀이를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II	· 문제상황에 따른 적합한 놀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10] PPT 자료 활용의 예

③ 인쇄물

인쇄물은 연구자가 특정 주제나 상황에 대해 생각과 행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하여 준비한 후 교육하는 동안 부모들에게 나누어 주는 지면자료로 교육보조물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인쇄물은 토론과정에서 문제상황극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인쇄물은 문제상황극에서 인식한 문제의 원인, 다양한 해결방안 아이디어, 해결극 시나리오 등이 담긴 기록물로 토론을 이끄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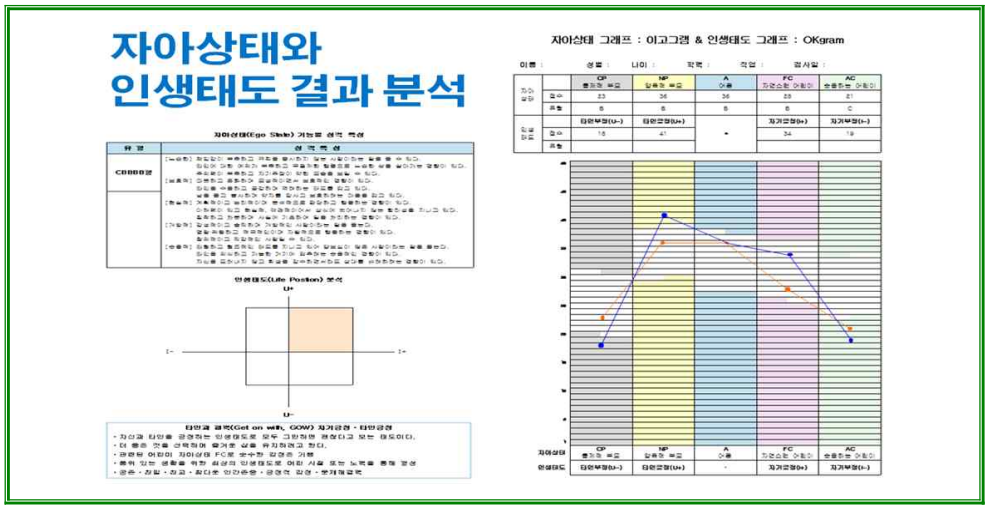
인쇄물의 활용 예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인쇄물 활용의 예

④ 자아상태 검사결과지

자아상태 검사결과지는 사전검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검사결과지는 부모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로 관련이론과 자기이해를 돕고 흥미와 관심을 증진시킨다. 본 연구에서 교수매체로 활용한 자아상태 검사는 윤영진, 문호영, 김미례, 송준석, 이영호, 정정숙(2015)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그 예는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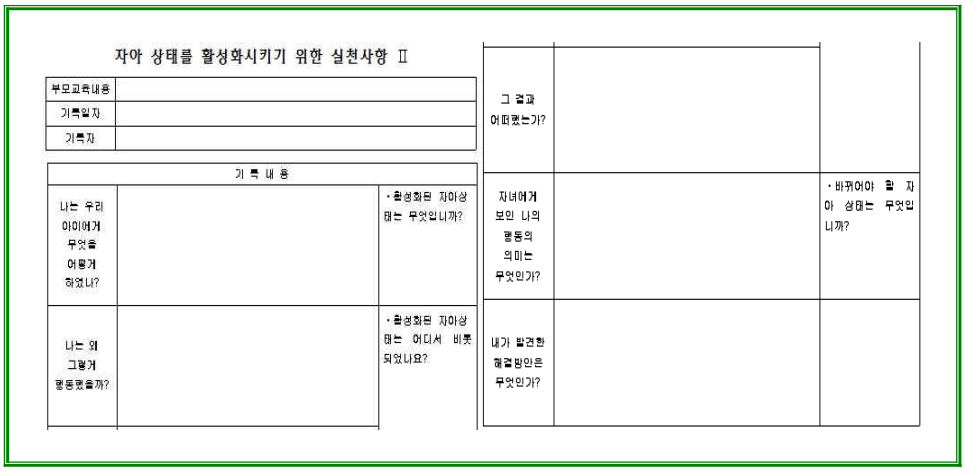


[그림 12] 자아상태 검사 결과지 활용의 예

4) 평가

본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은 평가 자료의 수집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설문지와 1차 개별면담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연구현장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별면담은 선정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보는 평가가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프로그램의 가치와 참여자들의 정서와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관찰, 현장노트와 연구일지, 저널과 회기별 평가를 활용하였다. 참여관찰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녹화하여 전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연극의 과정을 녹화・녹음하였다. 현장노트는 연구자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록하게 되는 생각, 느낌 등이다. 저널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성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평가로 활용한 저널의 예는 그림 13과 같다.



자아 상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사항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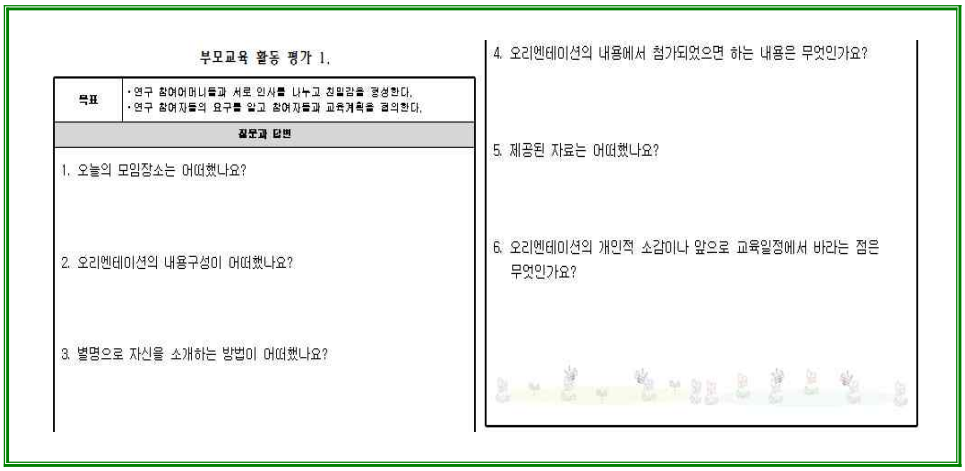
부모교육내용	
기록일자	
기록자	

기 록 내 용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활성화된 자아상태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활성화된 자아상태는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그 결과 어떠했는가?			
자녀에게 보인 나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뀌어야 할 자아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그림 13] 참여자 저널 활용의 예

회기별 평가는 연구자가 구성한 구조화된 질문지에 참여자가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지의 내용은 학습자의 반응과 태도, 지식과 기능의 이해, 학습결과의 적용, 참여 소감 등이다.

평가로 활용한 회기별 평가지의 예는 그림 14와 같다.



부모교육 활동 평가 1.

목표	·연구 참여어머니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를 알고 참여자들과 교육계획을 협의한다.

질문과 답변
1. 오늘의 모임장소는 어떠했나요?
2. 오리엔테이션의 내용구성이 어떠했나요?
3. 별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어떠했나요?

4.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에서 첨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5. 제공된 자료는 어떠했나요?

6. 오리엔테이션의 개인적 소감이나 앞으로 교육일정에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림 14] 참여자 평가지 활용의 예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보는 평가는 사전·사후검사를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사전·사후검사는 참여자들의 행동변화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도구는 신뢰성과 타당도가 검증된 자아상태 검사와 부모 참 역량 검사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자들이 경험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2차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이 실시되었다. 2차 개별면담은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변화양상을 수집하고자, 집단면담은 전체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을 회상하면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의미와 관련된 핵심질문에 따라 논의하고자 실시되었다. 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평가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평가

시기	평가의 내용
프로그램의 시작 전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 연구 참여자의 1차 개별면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 참여관찰
	· 현장노트와 연구일지
	· 저널
	· 회기별 평가지
	· 자아상태검사
	· 부모 참 역량 검사
프로그램을 마친 후	· 연구 참여자의 2차 개별면담
	· 집단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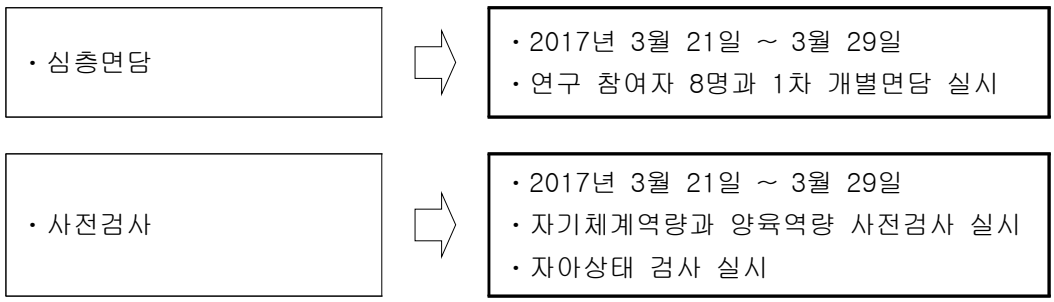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과 진행과정 그리고 후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그리고 구조적 평가방법과 비구조적 평가방법을 함께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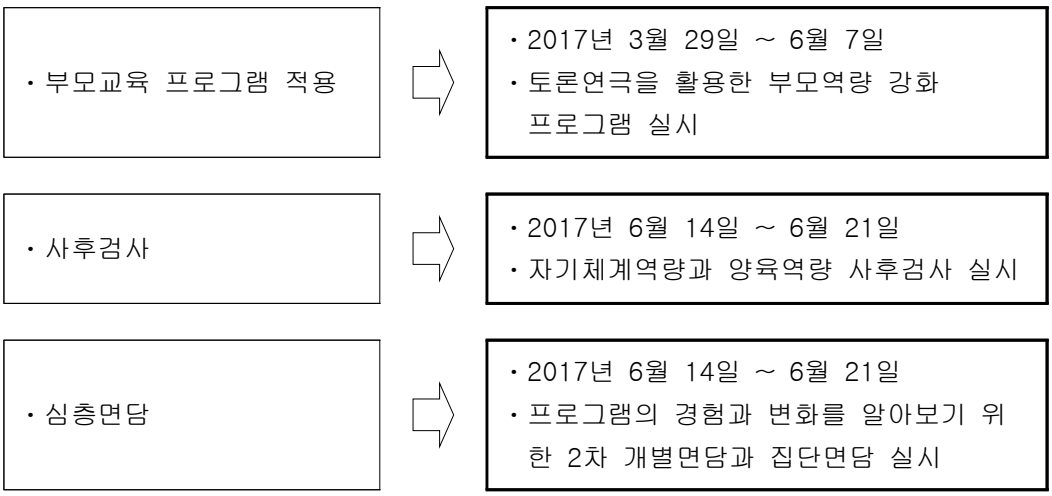
Ⅳ.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토론연극을 활용하여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역량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검증하고,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어머니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방법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적용 과정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8명을 선정하고 1차 개별면담, 사전검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 2차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Y유치원의 학부모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Y유치원의 2017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고 신청 조사지를 배부하였다. 이후 신청조사지를 수거한 결과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은 총 32명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재취업과 출산 등의 이유로 참여의 어려움을 밝힌 학부모를 제외하고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어머니들은 총 8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1과 같으며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2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연령)	자녀수 (연령)	학력	직업	부모교육 참여경력
기준어머니 (36세)	3 (만4세*, 만 2세, 6개월)	고졸	주부	없음
인준어머니 (38세)	2 (만4세*, 만 1세)	고졸	재택근무	없음
민이어머니 (36세)	1 (만4세*)	초대졸	주부	있음
다희어머니 (39세)	1 (만4세*)	고졸	회사원	없음
범진어머니 (38세)	2 (만3세*, 만 2세)	초대졸	주부	없음
동우어머니 (30세)	2 (만3세*, 8개월)	대졸	주부	없음
지우어머니 (39세)	1 (만3세*)	고졸	파트타임 근무	없음
은우어머니 (45세)	1 (만3세*)	고졸	주부	있음

* Y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

① 기준어머니

연구 참여자 기준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을 가진 36세의 전업주부이다.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결석과 지각이 없었으며, 저널도 모두 제출할 정도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높은 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많았다.

기준어머니는 세 남매를 자녀로 두었으며, 첫째 자녀는 현재 연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세 남아이고, 둘째 자녀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으로 만 2세 여아, 그리고 셋째 자녀는 생후 6개월의 여아이다. 기준 어머니는 다자녀를 양육

하면서 자녀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형제아의 다툼, 양육협력자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는 주로 소리를 지르는 편이며, 그것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조절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첫째아인 기준이가 어머니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여기고 있었다.

> 얘들이 터울이 있기는 하지만 다툼이 잦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특히, 큰 아이는 저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심부름을 시키면 들은 척도 안 해요. 둘째는 오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 해요. 아이들이 많다보니, 서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어요. 그 와중에 집 안 일까지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배워야겠죠.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기준어머니)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준어머니는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고 자녀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소통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② 인준어머니

연구 참여자 인준어머니는 재택근무를 하는 맞벌이 가정의 38세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어머니로 우울증을 진단받았던 경험이 있다.

인준어머니는 두 형제를 자녀로 두었으며 첫째 자녀는 현재 연구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세 남아이며, 둘째 자녀는 만 1세 남아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첫째아인 인준이는 순한 기질인 반면, 동생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였다.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훈육할 때

주로 소리를 지르며 엄한 편인데 그것은 시간에 쫓기는 일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욱하는 성격으로 자녀들을 자주 야단치게 되고 형제아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 두 아이가 다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보면 알겠는데 실천을 하려고 하면 잘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하는 의심도 들어요. 남편은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 아이가 못 알아듣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내게 되요. 책에서는 혼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인준어머니)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준어머니 역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민이어머니

연구 참여자 민이어머니는 새터민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36세 전업주부이다. 만 4세 남아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얼마 전 자녀양육에 전념하고자 하던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민이어머니는 민이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민이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민이를 위해 자신은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본 연구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저는 이런 교육 받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아직은 부족한 부모이지만 민이를 위해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중략)
> 민이는 TV에 무척 집착해요. TV시청을 원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길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만 보기를 권하면 못 들은 척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TV

를 꺼버리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민이어머니)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이 어머니 역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희망하였다.

④ 다희어머니

연구 참여자 다희어머니는 다문화 가정으로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39세 맞벌이 주부이다. 다희를 주로 친정어머니가 맡아주시기 때문에 다희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퇴근 후 지친 상태에서 다희의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에게 혼자 놀기를 권한다고 한다. 다희는 평소 말을 잘하고 따르기도 원활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을 반복하여 다루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제가 문제가 많죠. 제가 아이에게 너무 단호하게 말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올라와요. 매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전달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말투가 왜 그러냐고 해요. 저는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다희랑 저는 엄청 싸워요. 그러다 다희가 울죠. 솔직히 저는 그런 다희가 싫어요. 그러면 친정 엄마가 중재를 하게 되고, 다희가 제게 사과를 해요. 하지만 저는 다희가 울면서 그러는 행동이 싫어요. 그래서 사과를 안 받아주죠. 때로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희의 사과를 받아줄걸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다희어머니)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희어머니 역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

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함께 놀이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범진어머니

연구 참여자 범진어머니는 38세의 전업주부이다. 평소 조용하고 솔직한 성격의 어머니로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범진어머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높은데 가정에서 아이들만 양육하다보니 바보가 되는 같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범진어머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현재 연구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의 남아이며,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2세의 여아이다.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금지 표현이 증가하였고, 두 자녀의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범진이는 관심받기를 원해요. 항상 제게 '이것 좀 보세요. 엄마, 봐 주세요.' 라고 말하며 제가 볼 때까지 요구를 하죠. 그리고 제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다보니 아이에게 자꾸 정리하고 놀기를 권하게 되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범진어머니는 휴식을 필요로 하고, 부모교육의 시간이 그러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합한 훈육기술을 알고 실천하면서 자신감 있는 어머니로 성장하기를 희망하였다.

⑥ 동우어머니

연구 참여자 동우어머니는 자신감이 높고 적극적인 성격의 30세 가정주부이

다. 연구 참여자들 중 가장 어린 어머니이지만 늘 진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동우어머니는 두 자매를 양육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현재 연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남아이며, 둘째 아이는 생후 8개월의 남아이다. 동우어머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점차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첫째 아이에게 양보와 기다림을 강요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 (눈물을 흘리며) 동우에게 미안해요. 자꾸 큰 애에게는 소홀하게 되고 소리만 지르게 되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 때 아동심리학을 이수했어요. 그런데 내 아이와 (책의 내용은)안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책에 나오는 아이와 다르고, 두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체력도 딸리고, 케어도 안 되고 속상해요. 하지만 제가 달라져야 해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우어머니 역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에서 모호했던 양육경험을 공유하면서 바람직한 훈육기술을 습득하고 자녀와 행복한 어머니로 성장하기를 희망하였다.

⑦ 지우어머니

연구 참여자 지우어머니는 새터민으로 맞벌이 가정의 39세 어머니이다. 평소 내성적이고 이타적인 성격으로 타인에게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지우어머니는 한 자녀를 두었으며 현재 연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남아이다. 지우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철학은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우가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인지적으로 뒤처지게 될까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에 아이의 의

견이나 요구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일과 자녀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일상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하였다.

> 첫 아이라서 경험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훈육방법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요. 제가 아이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야 쳐다보곤 하죠.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매를 들게 되요. (중략)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카는 공부를 참 잘해요. 하지만 친인척을 만나면 인사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우를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변의 의견은 다르고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더 흔들리고 조바심이 나기도 해요. 학습지나 사교육을 해야 할까요?
>
> (2017. 3. 29, 1차 개별면담 지우어머니)

지우어머니는 역시 부모역할에 대한 모호함에서 벗어나고 자녀와 바람직한 소통방법으로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⑧ 은우어머니

연구 참여자 은우어머니는 45세 가정주부이다. 평소 솔직한 성격으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성향의 어머니이다. 늦은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일상을 생활하고 있다.

은우어머니는 한 자녀의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만 3세로 연구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요즘에는 부쩍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불안과 욕심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였다.

매일 밤 아이와 함께 침대 위에서 씨름 배틀을 해요. 아이는 이 놀이를 무척 좋아하고 매일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침대가 베란다로 연결되는 창문에 맞닿아 있고 아이가 점점 신체적으로 성장하다보니, 안전에 대한 걱정과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매일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해야 하지?' '왜 내가 해야 하지?' (중략) 아이의 학습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른 또래에 비해 발달이 좋은 편이라 자꾸 기대를 하고 욕심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2017. 3. 29, 1차 개별면담 은우어머니)

은우어머니는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장점을 살려주는 훈육방법과 자녀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일상의 피로가 해소되고 함께 참여하는 어머니들과 편안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2) 연구 참여교사

본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문제상황극과 문제해결극을 실연하게 된다. 문제상황극은 대부분 자녀와 어머니가 등장인물로 나오게 되며, 갈등상황은 어머니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이다. 문제상황극은 짧은 시간에 실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문제와 갈등 요소를 잘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문제해결극은 문제상황극의 문제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방안으로 실연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상황극을 실연하는데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끌어 줄 대상과 문제해결극을 실연할 때 해결방안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박선숙(2011)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는 부모교

육은 영유아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부모교육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참여를 이끄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김영옥(2007)은 부모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다년간 부모교육의 경험에 따르면 부모교육에서 교사의 지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문제상황극에서 어머니 역할, 문제해결극에서 자녀역할을 실연할 대상으로 유아와 부모를 알고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를 참여토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참여교사는 19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연구 유치원 원감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부모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남기는 소극적인 참여인 반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은 적극적인 참여자로 연구 참여자와 함께 연기를 하고 참여하게 된다. 즉, 부모와 교사는 토론연극에서 행위와 사건을 변화시키고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상호적인 관심과 역할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상황극에서 교사는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들은 자녀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교사가 어머니 역할을 충실하게 표현함으로써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반면, 문제해결극에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바뀌면서 교사는 자녀역할을 맡는다. 자녀가 된 교사는 어머니들이 새롭게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 때, 교사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나 해당 연령의 유아들의 발달과 수준을 고려하여 반응한다. 또한 문제해결극의 실연 후 교사는 어머니들이 선택한 방법에 대해 어떤 점이 설득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의 이해를 돕는다.

(3) 연구 유치원, Y유치원

연구 유치원은 서울시에 위치한 Y유치원을 선정하였다. Y유치원은 2017년 현재 기본교육과정의 만 3세 2학급, 만 4세 1학급, 만 5세 1학급 총 4학급과 방과 후 과정의 만 3세 1학급, 4·5세 혼합연령 1학급 총 2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Y유치원의 교직원은 원장, 원감, 기본교육과정 담임교사 5명, 방과후 과정 담임교사 2명 기타 4명, 총 13명이었다.

Y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은 단독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하 1층은 강당과 유희실로 본 연구가 진행된 장소이다. 1층은 만 3세 교실과 만 4세 교실 그리고 급식실이 있다. 2층에는 만 3세 교실과 원장실, 교무실, 3층에는 만 5세 교실과 교구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Y유치원은 누리과정 목표를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제중심 통합적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었다.

Y유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되는 부모와의 갈등,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들의 양육철학과 태도를 도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연구도구

참여자들의 자기 이해를 돕고자 자아상태 검사 도구를,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부모 참 역량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특성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아상태 검사

본 연구에서 부모들의 자기 이해를 돕고자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2015)가 제작한 TACA(Transaction Analysis Counseling Academy)형 성인용 자아상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상태 검사도구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자아상태 검사에서 인간의 성격 특성을 부모자아상태(P: Parent Ego State), 성인자아상태(A: Adult Ego State), 아동자아상태(C: Child Ego State)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자아상태는 '가르침 받은 나'라고도 불리며, 생후 60개월 동안 부모나 형제와 같이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주 양육자를 모델링으로 태도나 지각된 내용 및 행동들로 구성된다(윤형진, 문호영, 이영호, 박용민, 2014). 부모자아상태의 기능은 비판적 부모자아상태(CP: Critical Parent)와 양육적 부모자아상태(NP: Nurturing Parent)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성인자아상태는 '생각하는 나'라고도 불리며, 생후 10개월경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형성된 정보와 자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실의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적응하는 지적인 기능으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uriel & Dorothy, 1996/2008). 마지막으로 아동자아상태는 '느끼는 나'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모든 생득적 충동과 생후 5년까지의 경험에서 느끼게 된 감정들, 그러한 감정들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언어적 능력이 없는 시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감정적 반응체계가 내면화되고, 이후에는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경험과 반복적인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느낌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형성된다(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12). 아동자아상태의 기능은 자유로운 아동자아상태(FC: Free Child)와 순응하는 아동자아상태(AC:

Adapted Child)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아상태 검사도구는 3가지 자아상태를 5개의 하위영역으로 그 기능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자아상태의 하위요인별 내용

자아상태	하위 요인	내용
부모 자아상태 (P)	비판적 부모자아상태 (CP)	주양육자를 모방하면서 태도 및 지각내용이 형성되고 내면화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신념이나 가치를 가르치는 기능의 자아상태
	양육적 부모자아상태 (NP)	주양육자를 모방하면서 태도 및 지각내용이 형성되고 내면화되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기능의 자아상태
성인 자아상태 (A)	성인 자아상태 (A)	자아상태 전체를 통합하는 자아로 자신이 지금-여기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 자료와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수정·평가하는 기능의 자아상태
아동 자아상태 (C)	자유로운 아동자아상태 (FC)	생의 초기 주양육자에 의해 훈련되지 않은 감정적 반응으로 타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능의 자아상태
	순응적 아동자아상태 (AC)	생의 초기 주양육자에 의해 훈련받고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감정적 반응으로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압하고 주변 인물의 요구에 맞추는 기능의 자아상태

자아상태 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별 문항은 비판적 부모자아상태(CP) 10문항, 양육적 부모자아상태(NP) 10문항, 성인자아상태(A) 10문항, 자유로운 아동자아상태(FC) 10문항, 순응적 아동자아상태(AC) 10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자아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TACA형 성인용 자아상태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

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TACA형 자아상태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자아상태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모 자아상태	비판적 부모자아상태	10	2, 7, 9, 15, 19, 23, 25, 31, 42, 44	.78
	양육적 부모자아상태	10	4, 11, 14, 17, 24, 28, 35, 40, 45, 50	.81
성인 자아상태	성인 자아상태	10	1, 5, 12, 20, 26, 29, 34, 36, 39, 46	.82
아동 자아상태	자유로운 아동자아상태	10	3, 10, 16, 18, 22, 27, 33, 38, 43, 48	.73
	순응적 아동자아상태	10	6, 8, 13, 21, 30, 32, 37, 41, 47, 49	.78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CA형 성인용 자아상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비판적 부모자아상태 Cronbach's α = .78, 양육적 부모자아상태 Cronbach's α = .81, 성인자아상태 Cronbach's α = .82, 자유로운 아동자아상태 Cronbach's α = .73, 순응적 아동자아상태 Cronbach's α = .78로 5가지 자아상태 모두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 참 역량 검사

본 연구에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역량과 자기체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2016)이 개발한 부모 참 역량 단축형을 활용하였다. 부모 참 역량 검사에서 부모역량의 특성을 자기체계역량, 양육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한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만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본 척도에서 자기체계역량은 부모 자신과 행복에 대한 이해, 수용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역량으로 문항 수는 15문항이다. 양육역량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수준과 특성 및 흥미에 맞춰 적합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량으로 문항 수는 27문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별 척도는 Likert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계숙 외(2016)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 측정도구의 척도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부모 참 역량 측정도구의 척도 내용과 신뢰도 계수

요인	부모 참 역량 하위요소(문항수)	Cronbach's α계수
자기체계역량 (5개 하위요소)	능동적 행동(3), 자기주도 문제해결(3),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3), 강점 자기역량 개발(3), 지속적 자기성찰(3)	.94
양육역량 (9개 하위요소)	자녀발달특징・욕구이해(3), 부모-자녀관계 이해(3), 건강한 부모관 갖기(3),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3), 인내심 갖기(3), 민주적 양육(3), 반응적・공감적 양육(3), 자녀 생애・진로개발(3),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3)	.96

3) 자료수집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담

면담은 협의된 텍스트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로 본질적인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곽영순, 2009; 김영천, 2012). 따라서 단순한 지식의 발굴보다는 의미를 구축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된다(이승숙, 2015).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 8인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각 2회, 집단면담 1회, 총 17회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절차 및 내용은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절차 및 내용

면담		시기	면담내용
개별 면담	1차	2017년 3월 21일 ~ 29일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행동 · 부모 자신의 욕구 ·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욕구
	2차	2017년 6월 14일 ~ 21일	· 본 연구과정에서의 경험 · 본 연구과정에서의 변화
집단면담		2017년 6월 21일	·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경험적 의미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먼저, 개별면담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차 개별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요구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2017년 3월 21일 ~ 3월 29일에 실시되었다. 면담은 연구유치원에서 어머니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 내외로 어머니의 특성과 연구자의 피드백의 내용에 따라 소요된 시간이 각기 다르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 배경, 상황적 맥락,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프로그램의 요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파악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2차 개별면담은 본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변화양상을 수집하고자 2017년 6월 14일 ~ 21일에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집단면담은 2017년 6월 21일에 진행되었으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자극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토론하였으며, 그 내용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경험적 의미, 유치원에서 실천하는 부모교육의 발전방향 등이었다.

모든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그 내용은 면담 당일에 전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의 과정에서 녹음과 동시에 중요한 내용은 기록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뒤에는 면담 중에서 떠오른 아이디어, 면담의 분위기, 다음 면담에 반영해야 할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면담의 전체 소요시간은 약 18시간으로 면담자료의 수집을 전사한 분량은 A4용지 96장이다.

(2) 참여관찰

연구자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부모교육자로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참여하고 관찰하였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형태로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매 회기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와 '문제해결 방안 적용하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하면서 문제상황극과 문제해결극은 동영상으로 녹화하였고, 토론의 과정은 모둠별로 녹음하였다. 더불어 연구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맥락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는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전 과정에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해의 과정에서 익숙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연구자의 관점과 지각방식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관찰은 본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7년 3월 29일에서 종료되는 6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관찰시간은 각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료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과 문제해결극으로 녹음·녹화가 되었다. 문제해결극을 위한 토론 모둠은 연구 참여자의 좌석에 따라 2~3명이 한 모둠으로 구성되어 총 3모둠이었다. 모둠원의 구성은 연구 참여자의 결석여부에 따라 회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토론과 문제해결극은 모둠별로 9번 실시하여 총 54파일로 녹화되었고, 분석을 위한 전사는 대부분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날에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분량은 A4용지 162장이다.

(3)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본 연구자는 연구의 준비와 과정에서 연구일지와 현장노트를 사용하였다. 연구일지에는 연구의 준비과정과 계획에 대한 일정과 내용, 그리고 수정 및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면서 연구에 기본적인 틀과 운영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반면, 현장노트는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느낌, 생각, 이야기, 아이디어, 방법적 전략, 반성 등을 기록하여 연구경험에 대한 총체적 기억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을 벗어나서는 기록들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A4용지 43장이다.

(4) 저널 및 평가

본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 대한 사례를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탐색해보았다. 연구 참여자 저널의 주제는 자아상태의 활성화, 자녀와의 교류분석, 반성적 저널, 민주적인 부모되기 등이었다.

저널의 내용은 부모교육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역할(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 어머니 역할의 반성적 사고(어머니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록), 자녀의 반응과 의미, 어머니 자신이 발견한 해결방안 순으로 매주 기록하였다. 때로 제출일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모두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를 2차 개별면담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 1인에 A4용지 9장씩 총 72장의 분량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는 매 회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수집하였다. 수집방법은 평가지 1장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내용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방법 및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매 회기 다르게 제공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A4용지 총 80장이다.

2.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적용

1) 연구 유치원 및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Y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들과 원감이었다. 연구자가 연구유치원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다년간의 부모교육을 연구자가 소속된 유치원에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연구자의 유치원에서 선정되는 참여자들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연구자의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을 연구 유치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 중 Y유치원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Y유치원의 요구가 바탕이 되었다. Y유치원은 학년말 평가를 통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하면서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Y유치원은 그 동안 본 연구와 유사한 부모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2) 1차 개별면담

1차 면담은 2017년 3월 21일 ~ 29일 Y유치원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수집하였다.

1차 면담에서 연구의 목적과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동의서에는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정, 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이 진행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 후에 폐기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기대, 자녀와의 갈등, 부가 서비

스를 수집하였고, 이를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였다.

3) 사전검사

연구 참여자들은 TACA형 자아상태 검사도구를 통해 자아상태를, 부모 참여역량 검사를 통해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3월 21일에서 3월 29일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사전검사 교육의 내용은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문항지와 응답지의 사용방법, 솔직한 답변 등이었다. 사전검사에서는 두 종류의 검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다.

4)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은 서울시에 위치한 Y유치원의 어머니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2017년 3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0회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연구가 진행되던 중 5월의 첫 주가 국정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 연기가 되어 총 11주가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다음의 표 2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6>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 및 교육내용

회	내용범주	주제	교육내용
1	·	부모교육 오리엔테이션	· 오늘의 일정소개 · 몸과 마음열기 : 별명 짓고 퀴즈로 맞추기 · 부모교육 프로그램 소개

			· 본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약속정하기 · 부모교육의 모임이름 정하기 · 사전검사 : 자아상태와 부모 참 역량 · 부모교육 자료배부 : 아이들에게 협력 얻어내기 · 저널배부 및 평가
2	자 기 이 해	알고 싶은 나	· 몸과 마음열기 : 신체로 인사를 나누고 주변 사물로 성격을 소개하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가 말했지!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아이 · 저널배부 및 평가
3		새롭게 피어나는 나	· 몸과 마음열기 : 색으로 말하는 자아상태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나도 나도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자아상태의 활성화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형제들의 인정투쟁 · 저널배부 및 평가
4		행복한 어머니로의 나	· 몸과 마음열기 : 변화를 꿈꾸며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왜 못들은 척 해?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교류패턴의 분석과 건전한 교류방식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이기 · 저널배부 및 평가
5	반 성 적 사 고	나의 부모 이야기	· 몸과 마음열기 : 엄마 생각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부모의 자녀기 경험분석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표현하는 사랑 · 저널배부 및 평가

6		부모인 나의 이야기	· 몸과 마음열기 : 우리 집에 왜 왔니?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데 학습지는 어느 것이 좋아?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부모역할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부모되기는 취약성의 지뢰밭이다 · 저널배부 및 평가
7	의사소통기술	자녀의 마음 알기	· 몸과 마음열기 : 신문지 놀이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이 책 또 읽어주세요.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기술Ⅰ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인재의 조건이 달라진다 · 저널배부 및 평가
8		자녀와 이야기하기	· 몸과 마음열기 : 그곳에서는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 놀이기구 더 타고 싶어요.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민주적인 훈육원리에 따른 의사소통기술Ⅱ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싸움을 거는 말 VS 생각하게 하는 말 · 저널배부 및 평가
9		자녀와 놀이하기	· 몸과 마음열기 : 지브리쉬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나는 종이접기 더 할래!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놀이에 따른 의사소통기술Ⅰ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애착놀이 · 저널배부 및 평가
10			
		여러 자녀와 놀이하기	· 몸과 마음열기 : 엄마도 놀이전문가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내 책 먼저 읽어 줘.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 놀이에 따른 의사

			소통기술Ⅱ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 부모교육 자료배부 : 엄마의 놀이태도가 아이의 성장을 바꾼다. · 저널배부 및 평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자녀와의 갈등을 문제상황극으로 감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는 강의를 통해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세 모둠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문제해결극으로 실연하였다. 전체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몸과 마음 풀기 15분,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15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30분,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하기 30분, 문제해결 방안 적용하기 20분, 저널 배부 및 평가 10분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문제해결 방안 적용하기에서 다른 모둠의 반대 또는 추가 의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과정인 몸과 마음 풀기,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나누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문제해결 방안 적용하기를 매 회기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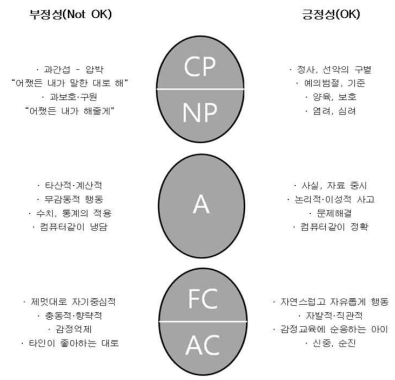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제 교육활동의 사례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자기이해 관련 내용의 '알고 싶은 나' 교육활동계획안

날짜	2017년 4월 5일 수요일	회기	2회기
주제명	알고 싶은 나		
목표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 자아상태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자신의 부모역할을 이해한다.		
소요시간	오후 1시 ~ 3시	장소	연구 유치원 강당
참여대상	연구 참여자 8명, 교사, 연구자	인원	총 10 명
준비물	· 강의준비물 : 이름표, 책상과 의자 · 강의기자재 : 컴퓨터, 롤스크린, 빔 프로젝터 · 간식 : 연구유치원 준비 · 참여자준비물 : 부모교육동아리 파일, 쓰기도구 · 진행기록 : 노트북, 사진기, 녹음기		

활동내용	소요시간	준비물
교육 전 활동	· 인사와 간식 나누기 · 1차 부모교육활동 동영상 감상	교육 전 시간	· 간식 · PPT와 동영상
도입	· 오늘의 일정소개 · 몸과 마음열기 : 신체로 인사 나누고 주변 사물로 성격을 소개하기 	15분	· 교육PPT · 음원 : 우산을 씌워줄게
전개	· 문제상황극 감상하기 : 엄마가 말했지 - 문제상황극을 함께 읽어본다. - 문제상황극의 역할을 정한다. (자녀의 역할은 참여자들 중 한 사람, 어머니 역할은 교사가 담당한다.) - 문제상황극을 실연한다.	15분	·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5살 예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텔레비전을 본다. 예지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엄마는 집안일을 한다.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고 자야 할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지는 텔레비전을 더 보기 원한다. 엄마 :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어. 자 이제 자자. 예지 : 싫어. TV 더 볼래. 엄마는 아이를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한다. 엄마 : 엄마가 말했지. 이제 자야 한다고 했지. 자, 어서 자! 예지 : 싫어. 잠이 안 와. 엄마는 TV를 신경질적으로 끄며 말한다. 엄마 : 너 엄마한테 맞고 싶어? 예지 : (예지는 다시 TV를 켜려고 하며) 엄마, 미워. 아주 나빴어. 엄마는 예지의 손목을 붙잡고 아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 준 다음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간다.		
	・정보나누기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  -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소개한다. - 자아상태 검사 결과를 보고 나의 자아상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30분	・정보나누기 PPT ・자아상태 검사 결과지
	・토론하기 : 문제상황극에서 나타난 자아상태를 발견하고 해결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 모둠을 나눈다. - 문제상황극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한다.	30분	・토론 기록지, 필기도구

	- 도출된 문제해결방안을 시나리오로 작성한다. - 문제상황극 어머니 역할 담당자를 정한다.		
	· 문제해결극 실연하기 - 모둠별로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로 문제해결극을 실연한다. (문제상황극과는 반대로 자녀 역할은 교사가, 어머니 역할은 연구 참여자가 한다. 이 때, 교사는 모둠별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 없이 자녀가 되어 연기한다.) - 감상한 문제해결극에 대해 토론한다.	20분	· 역할목걸이
마무리	· 읽을거리 배부 :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아이 · 저널배부 및 평가지 작성	10분	· 리딩자료 · 저널 활동지 평가지
광고	· 3차 안내		· PPT

표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017년 4월 5일에 실시되었으며, '자기이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교육 주제는 '알고 싶은 나'이다.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은 먼저, 연구 참여자들 간의 유연한 분위기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몸과 마음 열기' 활동을 전개한 후 문제상황극 '엄마가 말했지'를 감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상황극에서 나타난 자녀와의 일상에 공감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나누기'에서는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아상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에서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자녀와 어머니의 자아상태를 발견하면서 부모역할의 해결방안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실연하였다. 첫 번째 모둠의 해결방안은 자녀의 TV시청 요구에 대해 시간이나 회차를 정한 후 실천하도록 훈육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두 번째 모둠은 먼저 실연한 모둠의 내용은 경험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TV를 시청하기 전부터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TV를 끄고 약속을 지키도록 훈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둠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감정과 의견을 반영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훈육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아상태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상황에 적합한 자아상태의 활성화를 선택하면서 해결방안을 발견해 가고 있었다.

민이어머니 : (문제상황극을 가리키며) 우리 아이도 이래요. 갈수록 고집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준어머니 : 우리 기준이는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동생은 또 그런 오빠의 행동을 따라하고...

범진어머니 : 우리 아이도 동생이 생기면서 더 고집이 생긴 것 같아요. 범진이만 양육할 때는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요.

민이어머니 : 우리 아이는 혼자라서 더 고집쟁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만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출하면 제가 자꾸 못하게 해서 그런지 더 고집을 피워요. 아이가 나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릇없는 아이로 보일 것 같아 걱정이에요.

기준어머니 : 그럼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떤 자아 상태를 활성화해야 하죠?

민이어머니 : 그래도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양육적 부모자아가 어때요?

범진어머니 : 저는 아이들을 재울 때 책을 읽어줘요.

민이어머니 :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TV를 더 보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 좋아하는 책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유인' 말이 좀 그런가?
(2017. 4. 5, 참여관찰 : 모둠별 토론 내용 중에서)

본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구축・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5) 사후검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기체계 역량과 양육역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치고 2017년 6월 14일에서 6월 21일까지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6) 2차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

2차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은 각각 2017년 6월 14일에서 21일까지 진행되었다. 2차 개별면담에서는 그 동안 작성한 저널과 피드백을 참고하여 부모역할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집단면담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회상하면서 경험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자료 분석

1) 양적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부모 참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역량 점수와 하위요인 별 역량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가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과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전 역량 점수와 실시 후 역량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2) 질적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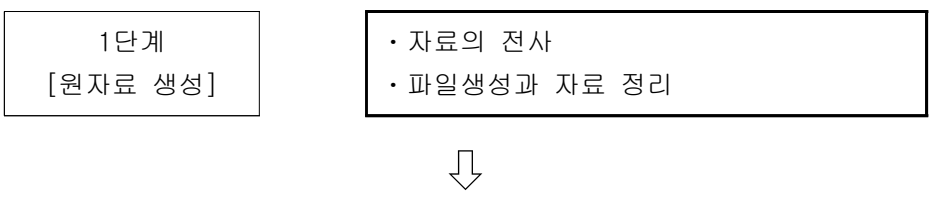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면담, 참여관찰,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저널 및 평가로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참여자들의 삶 그 경험적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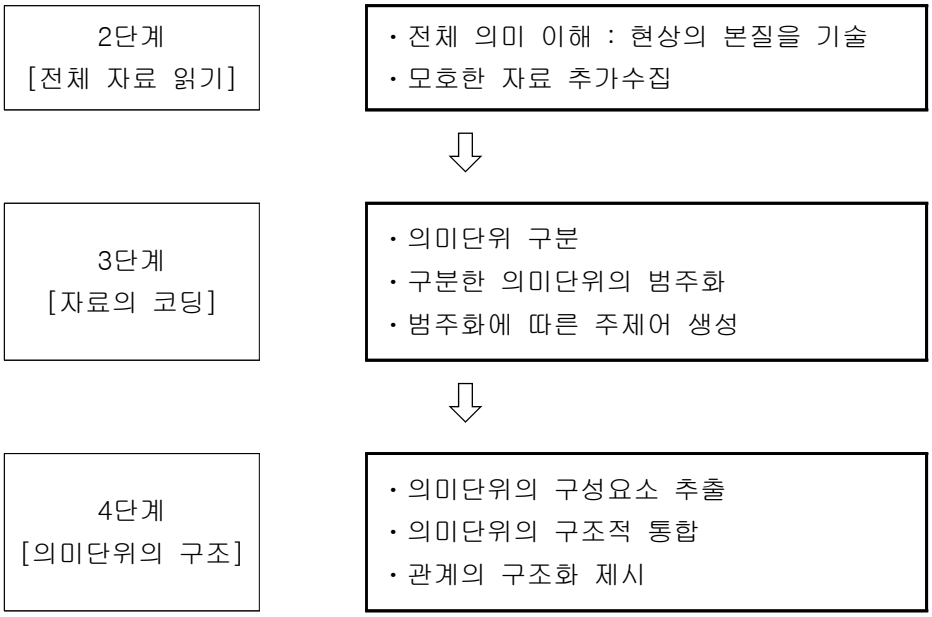
질적 연구자는 상호작용과 물질적 실천을 통하여 리얼리티와 표상을 창조해낸다(곽영순, 2009).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의 해석적 실천이 이루어지도

록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분석은 Creswell(2010)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따라 진행하였다. 1단계는 자료의 조직화 단계로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파일을 만들고 출력하였다. 파일을 만들 때에는 분석을 위해 여백노트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 아이디어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단계는 정리된 자료를 판단중지의 태도로 읽으면서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이 때 현상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수집된 자료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모호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단계는 코딩의 단계로 먼저,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진술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의미단위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 다음, 구분해 놓은 의미단위를 부모역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으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현상이 경험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분해 놓은 의미단위의 주제어를 상상적 변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용어로 선정하였다. 4단계는 범주화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단위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학문의 용어로 기술된 의미단위들 속에 존재하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조를 밝히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적 의미와 변화의 가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의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

위와 같은 과정에서 추출된 주제어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표 28>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과정과 관련된 질적 자료의 범주

코딩에서 나타난 생각과 표현들	
어머니 자신	활동적인 성향,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 나만의 시간, 재취업・복직에 대한 불안감, 꼭 필요한 사람,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 사랑받는 존재, 욕구 사이의 갈등
부모역할	권위 있는 부모, 친구 같은 부모,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부모역할, 역동적인 부모역할, 대물림 된 부모역할, 바람직한 부모역할, 반성하기, 선택하기, 실천하기
양육태도	자녀를 바라보기, 나도 모르게 행동, 양육서적과 달라, 순간적으로 후회, 내가 문제지, 생각하고 행동, 기다리기, 적절하게 반응하기, 함께 놀아주기

⇩

하위 주제어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자신을 어머니 역할로 한정했던 삶에서 부모역할을 포함한 한 개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상황과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역할을 인식하게 되다.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어머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다
·어머니 자신을 위한 행동의 변화 : 어머니 역할과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다	·부모역할에 대한 행동의 변화 :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부모역할에서 상황에 따라 부모역할을 선택하고 행동하다	·양육행동의 변화 : 권위적인 양육행동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다
⇩	⇩	⇩
상위 범주		
어머니 자신의 변화	**부모역할의 변화**	**양육태도의 변화**

표 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미 있는 단어들을 통합하여 관계를 구조화한 결과, ‘어머니 자신의 변화’, ‘부모역할의 변화’, ‘양육태도의 변화’라는 대주제 3개와 6개의 하위유목을 도출하였다. 대주제별 하위유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 자신의 변화’에는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었고, ‘부모역할의 변화’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태도의 변화’에는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양육행동의 변화가 포함되었다.

3)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에는 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수록 타자의 삶과 이야기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료에서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계함으로써 내재된 타당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포괄적인 이해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 연구 참여자에 의한 자료의 검토, 심층적 기술,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들의 조언과 지적을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삼각검증은 방법의 통합과 자료의 통합을 활용하였다. 먼저, 방법의 통합은 연구방법의 다원화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자아상태, 부모 참 역량, 면담과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통합은 저널과 평가, 연구일지와 현장노트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오류와 편견을 줄이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에 의한 자료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대한 왜곡을 피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복잡한 현상과 상황적 정보들을 기술하는데 독자들의 이해가 충분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의 맥락, 연구 참여자들의 숨은 의도와 진술, 전개과정, 독자들의 자발적인 해석을 위한 자료제공 등을 아주 세밀하게 제공하여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자가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외부 연구자의 점검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가 놓친 보다 객관적인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고자 유아교육과 교수와 박사학위를 가진 동료 연구자 1명의 조언, 비평, 지적 등의 과정을 수시로 거치면서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그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기체계역량, 양육역량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참여관찰,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면담 및 저널, 평가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프로그램이 자기체계역량 증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체계역량 전체와 함께 하위요인 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자기체계역량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체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체계역량 전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9와 같다.

<표 29> '자기체계역량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18	.97
사후검사	8		5.27	.57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1[a]	1.00	1.00	−2.38*
양의 순위	7[b]	5.00	35.00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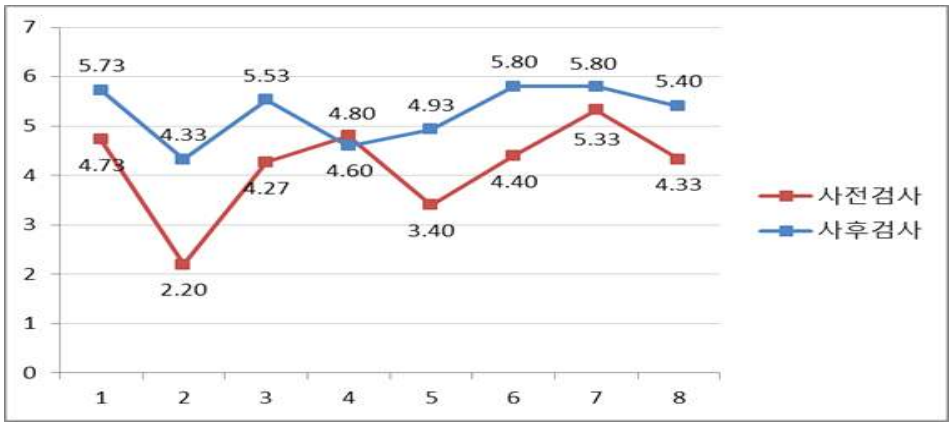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부모의 '자기체계역량 전체'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은 4.18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27로 1.09점이 향상되었다.

부모의 '자기체계역량 전체'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7명, 사전검사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은 사례(음의 순위)는 1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한 사례가 많았으며 '자기체계역량 전체'(Z=-2.3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의 자기체계역량 전체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체계역량 전체'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체계역량 전체'에 대한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체계 역량 전체'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체계 역량 전체'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4번 연구 참여자의 자기체계 역량 전체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 7명의 자기체계 역량 전체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대부분 어머니들의 자기체계역량은 전체 총점뿐 아니라 참여자별 총점이 대부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체계역량 전체 점수의 긍정적인 변화에서 최소 .47에서 최대 2.1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자기체계역량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① 프로그램이 부모의 '능동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능동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능동적 행동’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58		.96
사후검사	8	5.50		.64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양의 순위	8[b]	4.50	36.00	−2.56*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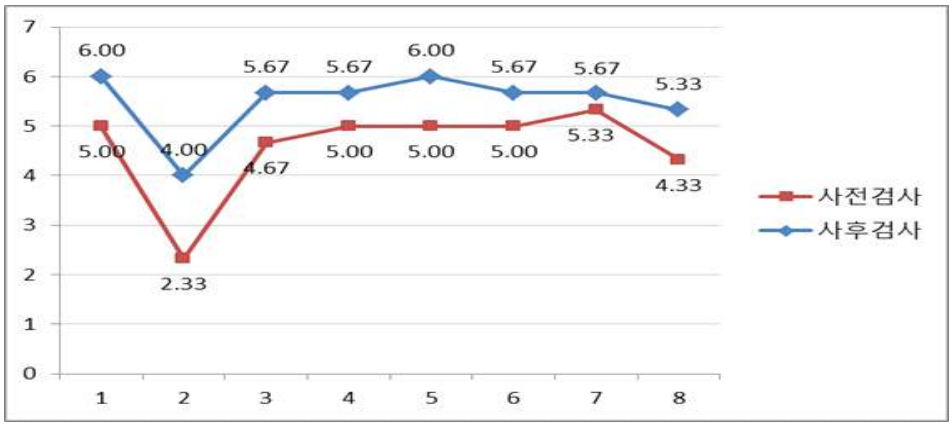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능동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영역인 ‘능동적 행동’의 사전검사 평균은 4.58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50으로 .92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능동적 행동’에서(Z=-2.56,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능동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능동적 행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능동적 행동'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능동적 행동'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능동적 행동'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능동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주도 문제해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자기주도 문제해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자기주도 문제해결'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67	1.02
사후검사	8	5.58	.64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38*
양의 순위	7[b]	4.00	28.00	
동률	1[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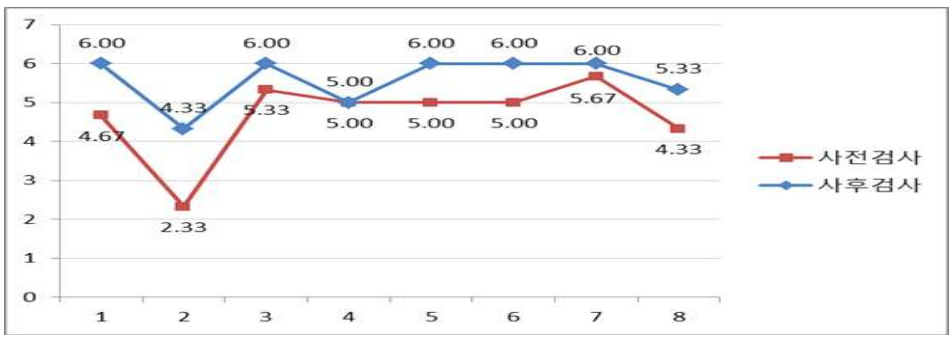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자기주도 문제해결'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영역인 '자기주도 문제해결'의 사전검사 평균은 4.67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58으로 .91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7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사례(동률)는 1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한 사례 수가 많았으며, '자기주도 문제해결'에서 (Z=-2.38,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주도 문제해결'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주도 문제해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주도 문제해결'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주도 문제해결'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4번 연구 참여자의 '자기주도 문제해결'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7명의 '자기주도 문제해결'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사의 점수가 6점인 참여자는 5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주도 문제해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③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63		1.61
사후검사	8	5.25		.96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1.84
양의 순위	4[b]	2.50	10.00	
동률	4[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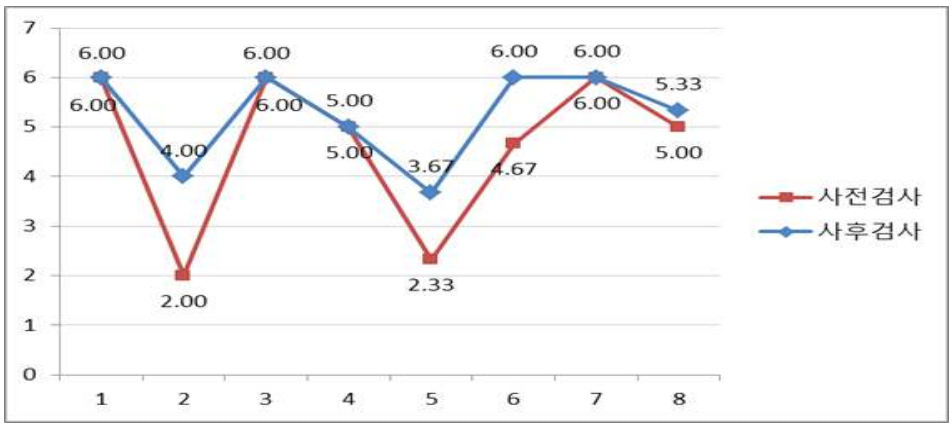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영역인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의 사전검사 평균은 4.63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25으로 .62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4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사례(동률)는 4명으로 양의 순위와 동률의 사례 수가 동일하였으며,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Z=-1.8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1번, 3번, 4번, 7번 연구 참여자의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4명의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률의 점수를 나타낸 1번, 3번, 7번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이미 최고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변화를 보인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비교에서 나타난 차이는 최소 .33점에서 최대 2.00점까지 향상한 것을 보았을 때,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변화에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이 부모의 '강점 자기역량 개발'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강점 자기역량 개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강점 자기역량 개발'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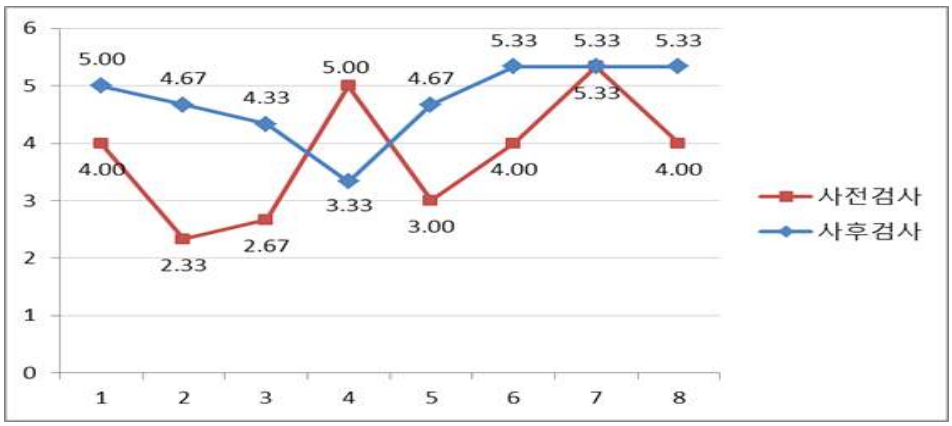
	n	*M*		*SD*
사전검사	8	3.79		1.07
사후검사	8	4.75		.68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1[a]	5.00	5.00	-1.54
양의 순위	6[b]	3.83	23.00	
동률	1[c]			
합계	8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강점 자기역량 개발'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영역인 '강점 자기역량 개발'의 사전검사 평균은

3.79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4.75으로 .96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6명, 사전검사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은 사례(음의 순위) 1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사례(동률)는 1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한 사례가 많았으며, '강점 자기역량 개발'에서(Z=-1.54,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강점 자기역량 개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강점 자기역량 개발'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강점 자기역량 개발'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강점 자기역량 개발'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4번 연구 참여자의 '강점 자기역량 개발'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7번 연구 참여자의 '강점 자기역량 개발'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6명의 '강점 자기역량 개발'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⑤ 프로그램이 부모의 '지속적 자기성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지속적 자기성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지속적 자기성찰'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25	1.02
사후검사	8	5.25	.79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40*
양의 순위	7[b]	4.00	28.00	
동률	1[c]			
합계	8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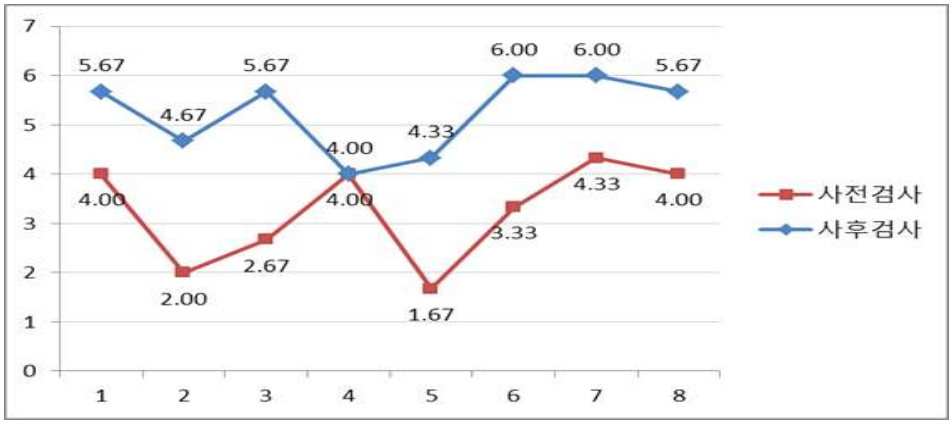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지속적 자기성찰'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영역인 '지속적 자기성찰'의 사전검사 평균은 3.25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25으로 2.00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7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사례(동률)는 1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한 사례 수가 많았으며, '지속적 자기성찰'에서(Z=-2.40,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지속적 자기성찰'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지속적 자기성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2과 같다.



[그림 22]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지속적 자기성찰'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지속적 자기성찰'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4번 연구 참여자의 '지속적 자기성찰'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7명의 '지속적 자기성찰'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최고 3.00이며, 사후검사 점수가 6.00점을 보인 참여자는 2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지속적 자기성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프로그램이 양육역량 증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역량 전체와 함께 하위요인 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양육역량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양육역량전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양육역량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83	.82
사후검사	8	5.02	.52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52*
양의 순위	8[b]	4.50	36.00	
동률	0[c]			
합계	8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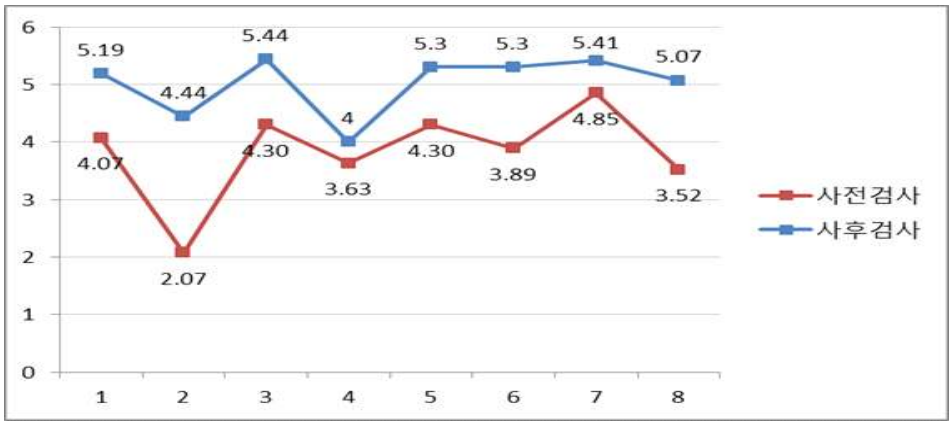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부모의 '양육역량 전체'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은 3.83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02로 1.19점이 향상되었다.

부모의 '양육역량 전체'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양육역량 전체'에서(Z=-2.52,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의 양육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역량전체'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양육역량 전체'에 대한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양육역량 전체'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양육역량 전체'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양육역량 전체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역량은 전체 총점뿐 아니라 참여자별 총점이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육역량 전체 점수가 최소 .37에서 최대 2.3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양육역량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양육역량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①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

의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00		.56
사후검사	8	5.04		.49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38*
양의 순위	8[b]	4.50	36.00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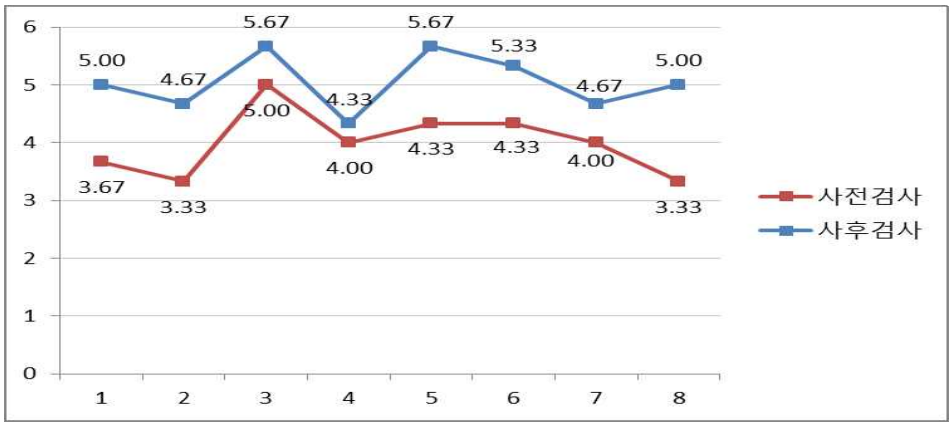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자녀발달 특징·요구 이해’의 사전검사 평균은 4.00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04로 1.04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자녀발달 특징·욕구 이해’에서(Z=-2.38,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는 전체 총점뿐 아니라 대상자별 총점이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② 프로그램이 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이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이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 ‘부모-자녀 관계이해’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88		.91
사후검사	8	5.04		.55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양의 순위	8[b]	4.50	36.00	−2.54*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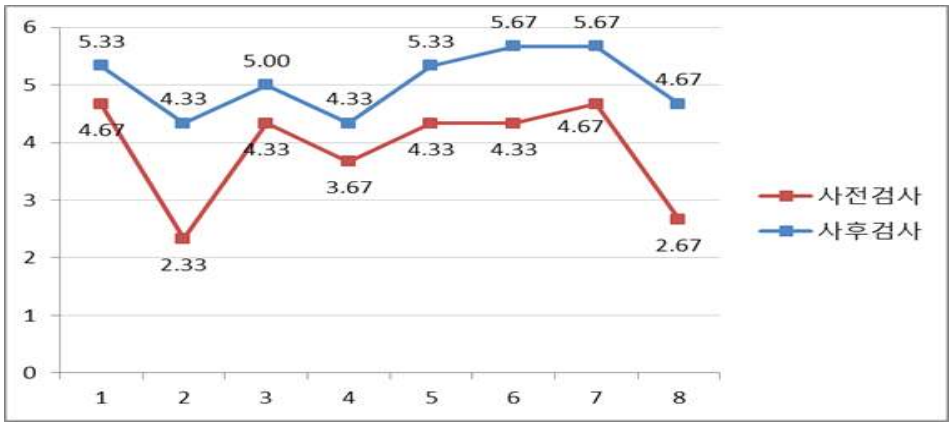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부모-자녀관계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부모-자녀관계 이해’의 사전검사 평균은 3.88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04로 1.16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부모-자녀관계 이해’에서(Z=-2.54,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부모-자녀관계 이해’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부모-자녀 관계이해'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부모-자녀관계 이해'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부모-자녀 관계이해'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어머니들의 '부모-자녀관계 이해'는 전체 총점뿐 아니라 대상자별 총점이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2.00점 향상된 참여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이해'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③ 프로그램이 부모의 '건강한 부모관 갖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건강한 부모관 갖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건강한 부모관 갖기’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08		1.19
사후검사	8	5.13		.64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1[a]	1.00	1.00	
양의 순위	6[b]	4.50	27.00	−2.21*
동률	1[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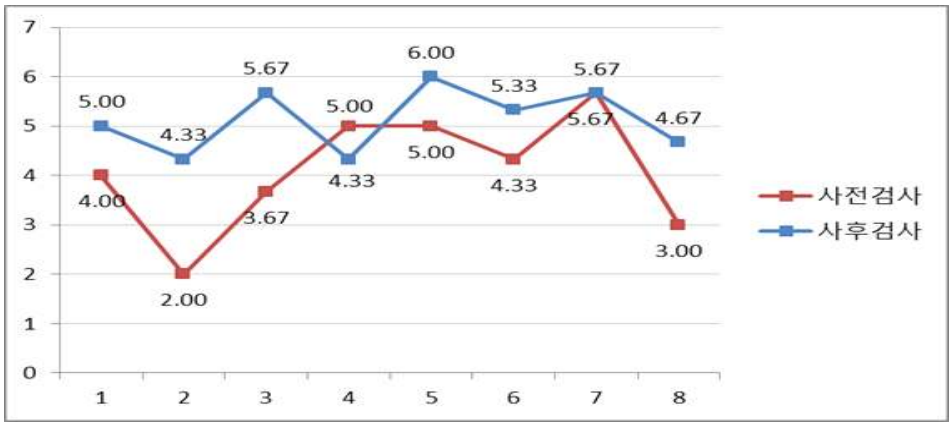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건강한 부모관 갖기’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건강한 부모관 갖기’의 사전검사 평균은 4.08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13로 1.05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6명, 사전검사가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은 사례(음의 순위)는 1명,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가 같은 사례(동률)는 1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한 사례가 많았으며, ‘건강한 부모관 갖기’에서(Z=-2.21,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건강한 부모관 갖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건강한 부모관 갖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건강한 부모관 갖기'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건강한 부모관 갖기'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4번 연구 참여자의 건강한 부모갖기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7번 연구 참여자의 건강한 부모관 갖기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 6명의 '건강한 부모관 갖기'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건강한 부모관 갖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④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38	1.01
사후검사	8	4.83	.80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1[a]	1.00	1.00	−2.24*
양의 순위	6[b]	4.50	27.00	
동률	1[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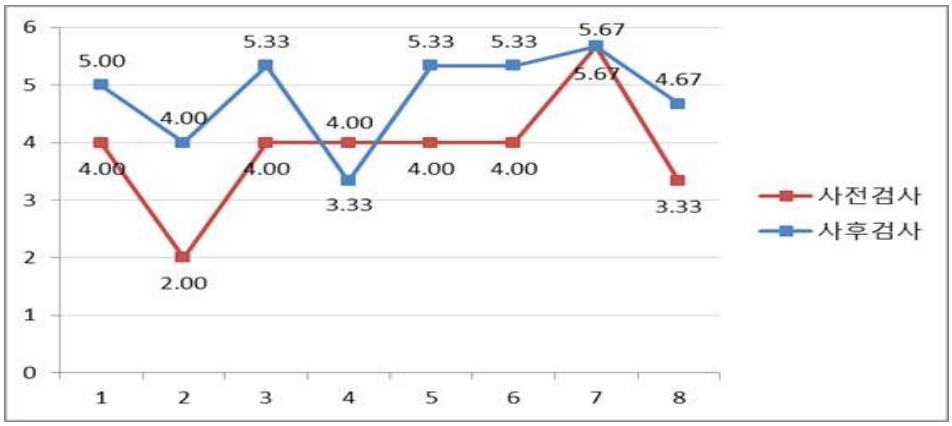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의 사전검사 평균은 3.38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4.83으로 .95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6명, 사전검사가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은 사례(음의 순위)는 1명,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가 같은 사례(동률)는 1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한 사례가 많았으며,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에서(Z=-2.24, p<.05)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4번 연구 참여자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7번 연구 참여자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 6명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⑤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내심 갖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인내심 갖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0과 같다.

<표 40> ‘인내심 갖기’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4.04		.92
사후검사	8	5.08		.61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양의 순위	8[b]	4.50	36.00	−2.54*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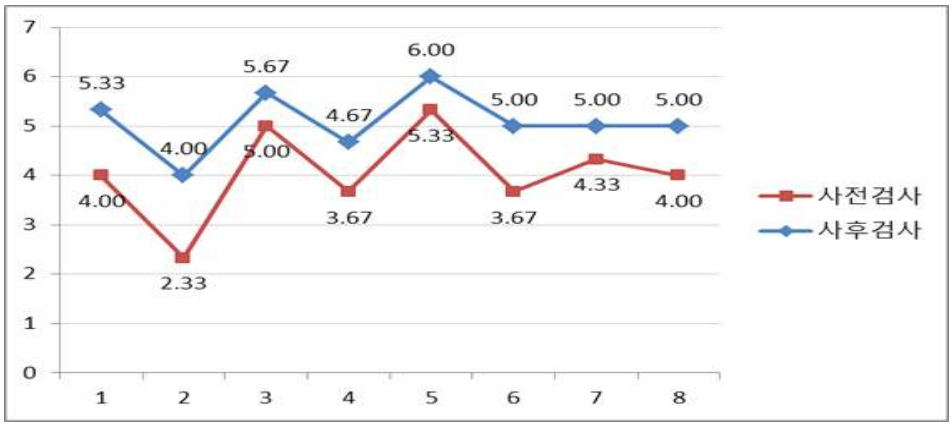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인내심 갖기’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인내심 갖기’의 사전검사 평균은 4.04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08로 1.04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인내심 갖기’에서(Z=-2.54,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내심 갖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인내심 갖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인내심 갖기'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인내심 갖기'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인내심 갖기'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인내심 갖기' 하위영역의 변화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이 부모의 '민주적 양육'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민주적 양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민주적 양육'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71	.96
사후검사	8	5.17	.56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53*
양의 순위	8[b]	4.50	36.00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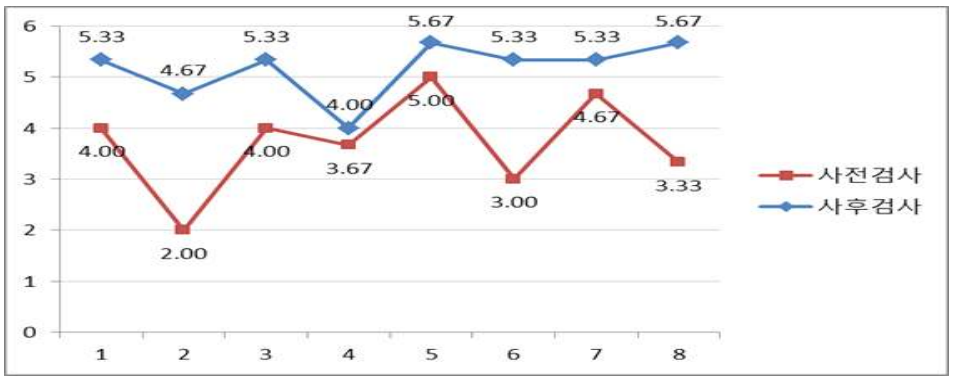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민주적 양육’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민주적 양육’의 사전검사 평균은 3.71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17로 1.46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민주적 양육’에서(Z=-2.53,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민주적 양육’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민주적 양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민주적 양육’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민주적 양육'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민주적 양육'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점수가 2배 이상 변화를 보인 참여자는 3명이며, 대부분이 5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의 의사소통기술 중 민주적인 훈육기술이 부모의 '민주적 양육' 하위영역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⑦ 프로그램이 부모의 '반응적·공감적 양육'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반응적·공감적 양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반응적·공감적 양육'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92	1.31
사후검사	8	5.33	.67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53*
양의 순위	8[b]	4.50	36.00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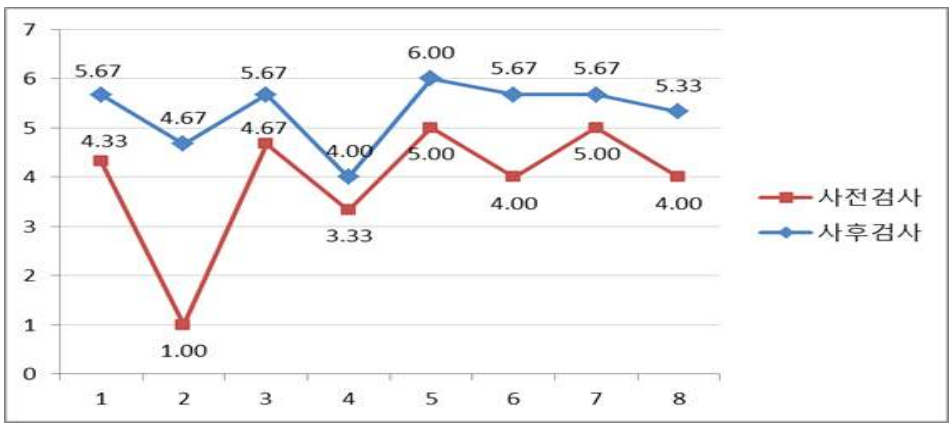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반응적・공감적 양육’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반응적・공감적 양육’의 사전검사 평균은 3.92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33으로 1.41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반응적・공감적 양육’에서(Z=-2.53,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반응적・공감적 양육’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반응적・공감적 양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0과 같다.



[그림 30]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반응적・공감적 양육’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반응적・공감적 양육’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반응적・공감적 양육’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반응적・공감적 양육’ 하위영역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⑧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생애 진로개발'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자녀생애 진로개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자녀생애 진로개발'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25		.87
사후검사	8	4.54		.87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55*
양의 순위	8[b]	4.50	36.00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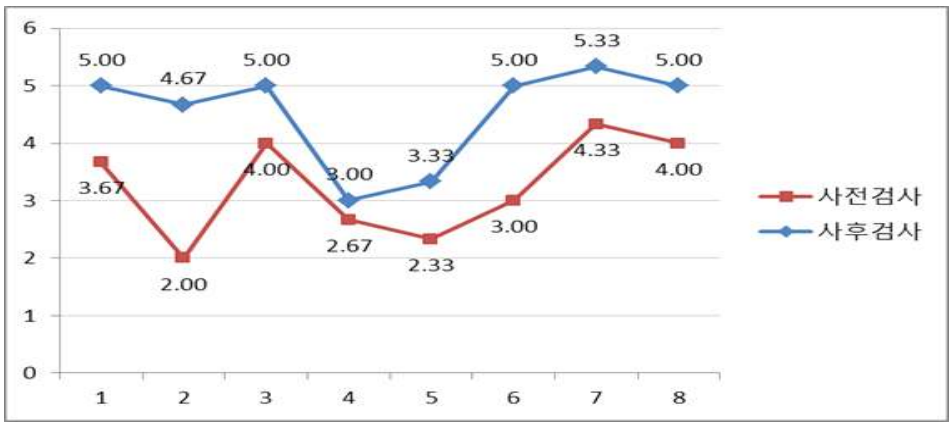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자녀생애 진로개발'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자녀생애 진로개발'의 사전검사 평균은 3.25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4.54로 1.29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자녀생애 진로개발'에서(Z=-2.55,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생애 진로개발'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생애 진로개발'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생애 진로개발'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자녀생애 진로개발'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자녀생애 진로개발'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생애 진로개발' 변화에 대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⑨ 프로그램이 부모의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의 하위요소 중 부모의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을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에 대한 기술동계 및 비모수 검정 결과표

	n	*M*	*SD*
사전검사	8	3.71	1.13
사후검사	8	5.00	.64

	N	평균순위	순위 합	*Z*
음의 순위	0[a]	0.00	0.00	−2.53*
양의 순위	8[b]	4.50	36.00	
동률	0[c]			
합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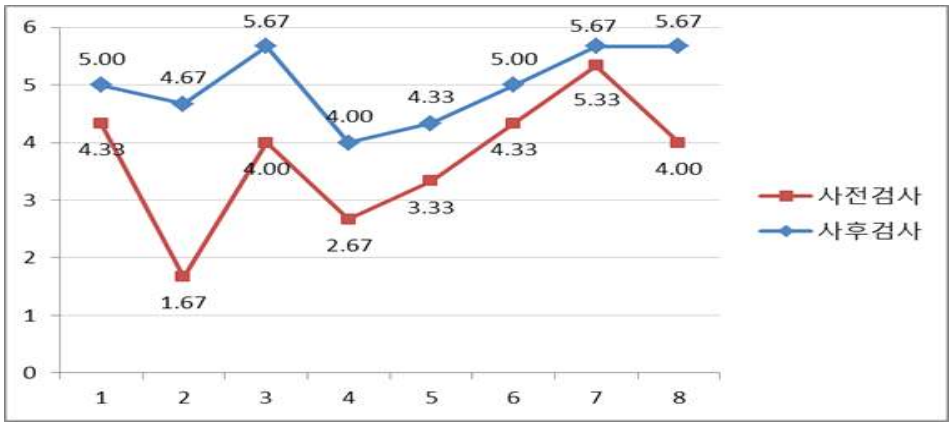
*$p < .05$

a. 사후 < 사전, b. 사후 > 사전, c. 사후 = 사전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양육역량의 하위영역인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의 사전검사 평균은 3.71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5.00로 1.29점이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 보다 높은 사례(양의 순위)는 8명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여,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에서(Z=-2.53,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점수 비교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별 사전·사후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 참여자 8명의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적용하면서 참여 어머니들의 경험과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변화과정을 '어머니 자신의 변화', '부모역할의 변화', '양육태도의 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자신의 변화 :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 행한다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것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어머니 역할로 한정했던 삶에서 부모역할을 포함한 한 개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다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어머니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머니 역할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머니들에게서 나타난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은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발견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이가 셋이다 보니, 아침부터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에요. 정말 아플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종일 아이들과 실갱이 하다보면 하루가 다가고 지쳐 멍하니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생겨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기준어머니)

>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도 일이 있죠. 아이는 놀아달라고 하죠. 몸은 피곤하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소통이 어려워요. (2017. 4. 12, 저널 지우어머니)

기준어머니는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자녀 돌보기와 가사 일에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우어머니는 맞벌이 가정으로 퇴근 후 가사 일뿐만 아니라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조차 체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두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출생과 함께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욕구로 부모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처음 경험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 저는 활동적인 사람인데 그것을 못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와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 나이 30은 그냥 애 엄마였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러면서 살짝 시간이 생기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여유 있겠네.”라고 했는데 별 이야기도 아닌데 욱해서 “나도 안 놀아.”라고 했어요. 밤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사람이 그리워서...** (중략)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우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위해 한 개인으로 가지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진어머니 역시 어머니 역할에 집중하면서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지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작은 일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일상에서 어머니들은 개인으로서의 욕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면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들이 그 동안 자신이 소외시켜 놓았던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를 인식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불안감과 아쉬움을 느끼는 사례이다.

> 저는 대학 때부터 둘째를 출산하기 전까지 일을 계속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죠. 그런데 둘째를 낳고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만 하니까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해요. (2017. 4. 12, 저널 동우어머니)

> 저는 출산 전까지 일을 했어요. 은우아빠도 그랬고, 저도 은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하던 분야에서 취업의 권유가 들어올 때에는 많이 고민하게 되요. 물론 권유를 거절했지만 언제즈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기는 해요.
> (2017. 3. 29, 1차 개별면담 은우어머니)

>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둘째를 출산하면서 독박육아가 시작되었고(울음) 이러다가 경력단절이 길어져서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동우어머니와 범진어머니는 출산 전까지 맞벌이로 살아오다가 둘째아를 출산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휴직의 상태가 길어지면서 복직이나 재취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동우어머니는 대학 때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 온 자신이 부모역할만을 하고 있는 현재 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은우어머니는 출산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종종 재취업에 대한 권유를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어머니 역할로 한정되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일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의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점차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였다. 어머니들의 욕구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자

신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먼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이라는 한정된 삶에서 벗어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아이를 양육하니까 몸이 힘들어지면서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1살 된 인준이를 데리고 유럽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요. 이럴 때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으련만...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인준어머니)

>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나갔다오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신랑은 "애들은?" 하고 말해요. 그러면 불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애들은 '나 혼자 낳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중략) 남편은 둘째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요. 첫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자신이 본다고 해요. 하지만 **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것이 스트레스에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위의 사례처럼 범진어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욕구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범진어머니는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준어머니 역시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연구자 :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볼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 나누기 방법은 사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강당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물들 중에서 어머니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어머니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한 개만 선택하고, 그 사물에 빗대어 어머니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음악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변을 둘러보고, 사물을 선택해주세요.

음악이 열리자, 어머니들은 강당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물을 선택하고 자리에 앉는다. (중략)

은우어머니 : 저는 시계를 선택했어요. 저는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우 분주해요. **이제는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지우어머니 : 이 공간에 선택할 물건이 많지 않아서 선택이 어려웠지만 휴지를 선택했어요. 휴지는 어느 집에나 있고, 꼭 필요한 것이고, 흘리는 눈물도 닦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범진어머니 : 저는 컵을 선택했어요. 컵은 어떤 것도 담을 수 있잖아요. **저는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에서 엄마역할만 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어요.

민이어머니 : 저는 꽃을 좋아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꽃으로 만들기 하는 것도 배우러 다녔어요. 꽃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저도 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요.**

(2017. 4. 5, 사물로 자신을 소개하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고, 도움이 되며,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어머니 역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부모역할이라는 제한된 삶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는 또 다른 욕구, 한 인간으로의 욕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자신의 성장에 대한 욕구에는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사회적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위, 배움, 복직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이어머니 :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학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요즘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 중에 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하나, 그럴 때 저는 상대방의 학위를 의심하게 돼요.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경영학을 하려고 했는데...

동우어머니 : 저는 국문학 전공, 임상심리 부전공이었어요. 심리학전공하고 싶었는데 안 되어서 국문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2017. 5. 10,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기준어머니 : 제가 부모교육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 동안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신청했는데 **저를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부모교육이 끝나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하려고요.

(2017. 6. 15, 2차 개별면담 기준어머니)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쉬면서 바보가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다시는 **복직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주머니가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위의 사례에서 민이어머니는 새터민으로 무시 받지 않기 위해서,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학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우어머니와 기준어머니는 자신의 성장과 부모역할을 위해 배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에서 부모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머니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욕구에 대하여 인식하고 발견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어머니 자신을 위한 행동의 변화 : 어머니 역할과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다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부모역할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과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배움이나 준비에 대한 욕구, 자신이 성취를 이루지 못한 상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어머니들은 현실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요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부모역할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동우어머니 : 저는 의자를 선택했어요.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떠오른 사물이에요. 앉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이에게 의자 같은 엄마가 되었으며 해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꼭 아이 뿐만 아니라 남편, 집안사람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2017. 4. 5, 사물로 자신을 소개하기)

민이어머니 :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하던 일을 과감하게 접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요.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고, 애한테도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을 접었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랑은 제게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저의 출생지는 함경도에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고,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신랑은 평양분이고 저희는 열심히 살았어요. 신랑이 가게도 하고 사업도 벌려놓았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에 아직은 못 미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민이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애한테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잘 해주는데 아이의 욕구를 잘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략) 하지만 때로 엄마역할을 하면서 나는 갈 길이 이게 아닌데 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자괴감이 들어요.

(2017. 4. 19,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위의 사례에서 동우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집중시키고 있지만, 활동성이 강한 자신의 성향과 욕구를 포기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민이어머니 역시 부모역할과 사회적 존재라는 두 욕구사이에서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부모역할에서는 양육의 어려움과 피로감을, 자신의 욕구에서는 욕구실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욕구와 어머니 역할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살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어머니들과 부모역할을 공유하는 상황, 어릴 적 부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 분주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을 보살피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다른 어머니들과 부모역할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보살피기

첫 모임에서 어머니들은 지친 피로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어색한 만남을 시작했다. 연구과정이 진행될수록 어머니들은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갈등에 대해 공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피로를 해소하고, 자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었던 경험에서 어머니들은 미소가 머무르는 편안한 표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부모역할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우어머니 : 저는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부모교육에서 참 많이 울었죠. 문제상황극에서 아이 역할을 하다가도 울고, 친정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울고, 남편 이야기하다가도 울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울 수 있겠어요. 부모교육에서 저는 매주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울고 웃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은우어머니 : 저는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져서 **정서적으로 든든**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육아가 어렵고 독박이라고 표현하는데 토론연극을 통해 함께 좋은 방향을 찾아 가니까 든든했어요. 어느 날에는 문득 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를 고민하다보니,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범진어머니 : 혼자만 잘 키운다고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문제해결극에 대한 결과에 동의 할 수 없어서 토론이 길어졌던 것처럼 부모들이 먼저, 함께 살아가는 협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7. 6. 21, 집단면담)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은 본 연구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었다. 동우어머니과 은우어머니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원과 격려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은우어머니와 범진어머니는 토론연극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했던 경험에서 자녀 키우기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정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이전에 하락한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욕구를 실천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오늘은 부모교육의 첫날이 떠올랐다. 어머니들의 경직된 표정과 낯선 대상에 대한 탐색의 눈빛이 분주했던 것을 기억한다. 어머니들의 눈빛은 3월 유치원 교실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오는 어린 유아들에게서 보았던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눈빛과 비슷했다. 그런데 오늘은 참여어머니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았다. 교육장으로 들어오면서 인사를 나누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부터 달라졌다. 어머니들은 자신감과 반가움을 가득 담고 인사를 나누면서 앞으로 몇 차례 남지 않은 부모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분주하였다. 그 동안 어머니들은 교육장에 들어서면 자녀들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갔는데, 오늘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범진어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꿈꾸고, 동우어머니와 은우어머니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어머니들은 자신

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실천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2017. 5. 10, 연구자의 현장노트)

㉡ 어릴 적 부모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살피기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개선하고 싶은 부모역할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부적절한 부모역할의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의 성격이나 어릴 적 부모님들의 가르침에서 형성된 습관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우어머니 : 어릴 적 아빠의 말씀 때문에 남에게 웬만하면 도움을 받지 않아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죠.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힘들 걸 생각하게 되고, 또 '내 몸을 놀려야지.'라는 생각에 혼자하게 되요. 그러다 보니 늘 힘들고 지쳐요.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친정아버지의 어릴 적 가르침, 네 몸을 놀려라)때문에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연구자 :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머님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지우어머니 : 지우를 양육하면서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고,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런 도움도 필요해요.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해요.

민이어머니 : 지우어머니는 정말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은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해주거든요.

연구자 : 어릴 적 아버님의 가르침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위한 선택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어요. (중략)

지우어머니 : 이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와달라고 말도 하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어요. (2017. 4. 5,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지우어머니는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 '네 몸을 놀려라(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며 살라는 의미)' 라는 메시지 때문에 일상에서 쉼과 타인의 도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피로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피로감 때문에 지우어머니는 퇴근 후 지우에게 자주 짜증을 부리고 야단을 친다. 또한 어린 지우에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어릴 적 부모의 가르침은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우어머니는 자신의 익숙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주한 어머니 역할로부터 자신을 보살피기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집안일과 육아가 하루의 주된 활동이다. 일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머니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일상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부모역할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우어머니 : 그 동안은 왜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갖지 못했을까요? 내가 엄마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아이가 하나 둘 늘어나다보니,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역할을 잘 한 것도 아니데...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하러 오는 것이 꼭 나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벌써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요. (중략)

범진어머니 : 부모가 행복해야 부모노릇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가 행복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자신감도 부족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도 높지만, 이제는 제가 즐거워하는 일 하나정도 만들어 보려고요. (2017. 6. 21, 집단면담)

동우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범진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여러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해요.** 이제 일상에서는 자녀와 놀아주고 표현하는 것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싶어요.
(2017. 6. 15, 2차 개별면담 기준어머니)

육아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계획을 세워보았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정도는 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텔라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가 나고 불안할 때 좋은 글귀를 찾아 읽어보고 써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특히 남편 때문에 화가 날 때... **저도 심리학 공부하려고요.** (2017. 6. 16, 2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제가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다보니,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오면 바로 집으로 갔어요. 이제는 부모교육에서 만난 같은 반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서 놀고,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해요. 동우어머니와는 텔라그래피도

함께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졌죠. 너무 즐거웠어요.

(2017. 6. 14, 2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과 일상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재교육을 계획하거나 모임을 구성하였다. 또 어머니가 아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루일과를 계획하여 취미생활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였다. 어머니들은 부모역할과 자신의 욕구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서 부모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2) 부모역할의 변화 : 부모가 되어 가는 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상황과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역할을 인식하게 되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부모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해 막연한 기대로만 가지고 있었

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부모역할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되면서 부모역할이 고정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민이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민이어머니)

> 자유분방하게 키우고 싶어요. 여러 경험도 많이 주고 친구도 많이 사귀도록 키우고 싶어요. 제가 공부위주로 양육을 받고 자라서 나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컸으니,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 저는 친구와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엄격하셔서 자라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편안해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민이어머니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완벽한 부모역할을 해야 하며 희망하는 부모상은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하였다. 동우어머니와 범진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친구 같은 부모'를 꿈꾸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부모역할을 꿈꾸고 실천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습관들을 답습하

면서 부모역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민이가 잘 때 꼭 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자꾸 읽은 책만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책을 억지로 읽어 주었어요. 그 책은 영어 책이었는데 아이가 싫어해요. 우리 아들은 같은 책만 보고...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민이어머니)

> 둘째가 생기면서 모든 신경이 둘째에게 더 가게 되고, 동우와 놀아주기에 체력이 부족하니까 억양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신랑도 제게 짜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 범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하면서 “엄마, 우리 어디 갈 거야?”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으로 가야한다고 대답하였다. 사실 아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2017. 4. 22, 저널 범진어머니)

민이어머니는 권위 있는 부모역할을, 동우어머니와 범진어머니는 친구 같은 부모역할을 희망하였으나 어머니들이 실천하는 부모역할은 권위적인 부모역할이다. 어머니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부모역할과는 달리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를 부족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과 자녀를 어머니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토론연극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부모역할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엄마, 이 책 또 읽어주세요.

[문제해결극의 내용]

・A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선택

・B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자녀가 좋아하는 책과 어머니가 추천하는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선택

・C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그림책 선정방법을 자녀와 정하고 읽어주는 방법을 선택

민이어머니 : A모둠처럼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범진어머니 : 우리 아이도 똑 같은 책만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책도 보자고 하면 싫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어떨 때는 다른 책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보려고 해요.

동우어머니 : 오늘은 민주적인 부모역할을 찾아야 하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책과 부모가 추천하고 싶은 책을 나누어 읽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평등하게...

민이어머니 : 아마도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보려고 할걸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혼란스럽지 않게

은우어머니 :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엄마랑 아이가 각각 그림책을 선정하면 아이는 보기 싫은 것을 봐야하는데 그것이 평등일까요? (2017. 5. 17, 문제해결극에 대한 평가하기)

위의 사례는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한 문제해결극에 대한 평가이다. 어머니들은 민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지만, 자녀의 관심과 흥미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모둠은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을, B모둠은 자녀와 부모의 요구를 조율하는 방법을, C모둠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자녀와 협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해결방법이 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부모역할과는 다른 부모역할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부모역할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연령, 발달, 기질에 따라 부모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범진어머니 :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둘째는 3살이고 지금 어린이집에 다녀요. 범준이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음미하는데 동생은 양손에 과자를 들고 먹어요. 그러다 오빠 것을 뺏고 그래요.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욱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범진이는 잘 따르고 편했는데 둘째는 왜 그럴까요?

동우어머니 : 저도 공감해요. 우리도 두 아이가 어쩜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자꾸 큰 애를 야단치게 되요.

인준어머니 : 저희 집도 그래요. 보통 둘째가 다 그렇게 강한가 봐요.

은우어머니 : 저는 하나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형제는 4남매에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달라요.

연구자 : 그렇죠. 아이들 역시 타고난 기질, 연령, 발달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역할 역시 자녀가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변화가 부족해서 헬리콥터 맘이나 캥거루 맘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관계는 시간과 발달에 따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7. 4. 12,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어머니들은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서로 다른 성향, 연령, 발달 때문에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역할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출산과 함께 나름대로 희망하는 부모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부모역할을 실천하기에는 관련된 지식과 정보 및 실천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방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② 부모역할에 대한 행동의 변화 :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부모역할에서 상황에 따라 부모역할을 선택하고 행동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습관적인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습관적인 부모역할을 하던 어머니들이 상황에 따라 부모역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어릴적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이해의 과정으로 변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부모역할을 선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한 부모역할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모역할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기 : 현재,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이해하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와의 일상생활에 지치고, 부모역할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다루기 어려운 행동에 대하여 명령과 지시 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을 하면서 후회하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자존감까지 낮아지고 있었다.

>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는 말수가 줄어들고 공격적인 행동이 많아졌어요. 두 아이가 다툴 때에는 서로 때리고 장난감을 던지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야단치고, 아이들은 울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빨리 울음을 그치라고 **소리치다가 때리고**, 그 와중에 잠자던 어린 셋째가 깨서 따라 울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피곤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많이 낳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요**. 이래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
> (2017. 3. 21, 1차 개별면담 기준어머니)

> 아이가 하나이다보니, **집에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버릇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꾸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는 잘 따르지 않아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민이어머니)

> 저는 아이가 잘못하면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아이는 잘 듣지 않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께서 아직 어린 **아이에게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냐**고 하시더라고요. (2017. 3. 22, 1차 개별면담 은우어머니)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집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양육태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길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또,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친절한 표현이 부족한 편이다. '안 돼.' 또는

‘하지 마.’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바르게 인사해야지.’ 또는 ‘밥 먹을 때에는 얌전하게 먹어야 해.’ 와 같은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주로 ‘밥을 먹지 않으면 과자도 주지 않을 거야.’ ‘또 울면 놓고 갈 거야.’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모역할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를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과 태도를 알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녀들의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반복되는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갈등의 원인을 자녀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시도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가진 인식의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자아상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현재 어머니들의 자아상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기 경험과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점차 부모역할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 부모역할을 점검하기 :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발견하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현재, 자신의 부모역할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상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자신의 비판적 부모자아, 양육적 부모자아, 성인자아, 자유로운 아동자아, 순응적 아동자아의 기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아상태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어머니 자신의 자녀기 경험과 부모역할에 대해 점검하였다. 먼저, 어머니들은 자아상태 검사 결과지를 통해 자신의 자아상태의 기능을 이해하고, 부모역할을 분석해 본 사례이다.

동우어머니 : 저는 주도적이면서 이상적인 삶을 산다고 나왔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친정에 가면 저는 주도적이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않고 따르기만 해요. 친정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항상 주도적이고 적극적인데 친정엄마와 마주하면 그것이 잘 안 돼요.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연구자 :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양육 받은 경험에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어머니의 자녀기 경험을 회상해보시면 왜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순종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머님은 아동자아 중 FC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개방적이고 명랑·쾌활한 적극성과 자발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에요.

동우어머니 : 맞아요.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면 모든 것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죠. 또, 친구들은 만나면 어디를 갈지, 뭐 먹을지 우와좌왕해요. 그럴 때에도 제가 어디가자. 뭐 먹자라고 제안하고 이끄는 편이에요.

연구자 :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의 태도가 부모역할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동우어머니 : 저요?

연구자 : 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떠하세요?

동우어머니 : 동우만 키울 때에는 안 그랬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쩍 아이를 다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놀겠다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하고, 안 먹겠다는 아이에게 먹기를 강요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어릴 적 친정엄마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중략)

인준어머니 : 제 결과지에는 제가 독단적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자꾸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갈수록 아이가 더 말을 듣지 않아요. 6살 남자아이들은 다 그런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이어머니 : 저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독단적,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제게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이어서 독단적이어서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남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나?** 그래서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은우어머니 : 저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배려해서 알리거나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희어머니 : 혹시, 가족들은 배려를 간섭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남편도 내가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언제 해달랬냐고 따지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은우어머니 : 글쎄요. 제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알아서 다 해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범진어머니 : 너무 다 해주지 마세요.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요.

은우어머니 : 저의 친절함이나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연구자 : 이런 모습들이 양육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직 미성숙한 자녀를 위해 굉장한 친절함은 보이는데 그런 행동은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2017. 4. 5,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동우어머니는 자아상태 검사결과지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릴 적 친정어머니와 현재 어머니 자신의 부모역할이 비슷함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반면, 민이어머니와 은우어머니의 경우에는 자아상태 검사결과지의 내용이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Margaret(1992/2013)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올릴 때 그 인식은 '실제 자아'

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상적 자아와 당위적 자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자아가 이 두 자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모습을 유감스럽게 여기게 되고, 실제 자아와 이상적·당위적 자아와의 사이를 좁히고자 행위를 한다고 하였다. 민이어머니와 은우어머니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과지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연구에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두 어머니들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현재 자아상태를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떤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조금씩 인식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어머니들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녀기 경험을 분석해보는 사례들이다.

범진어머니 : **친정어머니는 자기주장이 강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반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어머니에게 “고모, 밥 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략)

다희어머니 :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컸어요. 우리 엄마 성격이 대단해요. 웬만한 남자 못 이겨요. 엄마가 나가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날은 맞아야 돼요. 사실 17살까지 맞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든 걸 제한 받고 “하지 마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커서 그런지 결혼하면서 저는 ‘엄마처럼 살지 말자’ 아이를 몇 낳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엄마처럼 안 키운다라고 다짐했죠.(울음) 엄마가 제게 조금 더 친절했으면...

(2017. 4. 26,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잘했어.”라는 칭찬에 인색하셨다.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 2개의 사건이 있

다. 처음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반배치 고사에서 전교 8등을 해서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어머니는 “잘 한 것이 아니야. 더 잘해야 해. 여기 ‘우’하나 있잖아.”라고 하셨다.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처음으로 과에서 2등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그 때도 어머니는 “너희 대학은 너처럼 공부해도 장학금을 주니?”라고 하셨다. (2017. 4. 27, 저널 동우어머니)

부모님은 평소 칭찬에 인색했다. 아주 특별하게 잘한 일이 아니고는 또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는 거의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서 **나의 모든 행동은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판사’ 되기를 기대했고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기대는 나의 꿈이 되었다. 하지만 그 꿈이 좌절되면서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만약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상에서 부모님이 내게 칭찬을 자주 해주었더라면 나는 삶의 목표를 다르게 선택했을 것이다.

(2017. 5. 1, 저널 은우어머니)

어머니들은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였던 자녀기에 경험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기억하고, 원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조금 더 칭찬을 해주었더라면, 규율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었더라면 등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부모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더불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타적으로 선택한 경험과 좌절했던 경험을 통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부모와 비슷한 부모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부모역할을 점검하면서 자녀의 감정과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희어머니 : 그런데 다희는 잘 울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 늘 피곤해요. 그래서 아이를 잘 때리고 막 이래요. '넌 맞아야 된다' 고 말하기도 하고... 아마 어릴 때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맞으면서 컸으니까. 습관인지, 버릇인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다희도 저와 같은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하겠죠? (중략)

(2017. 4. 26,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 노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다.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던 그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나도 내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비판적 자아부모를 개선하고 싶다. 엄마 앞에서 주눅 들었던 내가 동우를 주눅 들게 하고 있다. 동우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할 수 있다.

(2017. 4. 11, 저널 동우어머니)

어머니들은 자녀기 경험을 분석하면서 어릴 적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만났다. 유년기의 자신에게는 안타까움, 서글픔 등의 감정을 느꼈고, 어릴 적 자신의 부모에게는 현재, 어머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어머니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보았던 자녀들의 마음과 행동을 더욱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반성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자신이 성숙한 행동을 할 때, 자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서서히 인식해가고 있었다.

㉢ 부모역할을 이해하기 :
어릴 적 부모를 만나고, 원망하고, 이해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는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대물림된 부모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부모역할

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토론연극과 저널 등의 활동을 경험하였다. 토론연극은 문제상황극을 감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나눈 후 토론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해결극을 실연하고 평가한다.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는 참여 어머니들이 경험한 부모-자녀의 갈등사례에서 수집하여 재구성하였으므로 어머니들에게 친숙한 내용들이다. 아래의 시나리오는 범진 어머니의 경험을 재구조화한 것이며, 사례는 문제상황극을 감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의 내용이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기준어머니 : 친정어머니에게 다짐을 받아야겠네요.

민이어머니 : 하지만 나이 든 어머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기준어머니 : 그럼, 친정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범진어머니 : 이 시나리오는 저의 사례와 비슷해요. 저의 어머니도 성격이 급하고 강한 분이라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출근할 때 “엄마, 내가 준비해서 (친정)집으로 데려다 줄게.”라고 아침마다 이야기했지만, 친정어머니는 “아침에 출근하려면 네가 바쁘잖아. 어서 가. 범진이는 너 가고 나면 잘 놀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서 아이를 억지로 떼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달라붙고, 울고,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매 번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소용없어요. 시간이 충분해서 아이를 준비시키고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오시니까...

민이어머니 : 그러니까, 나이 든 분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기준어머니 : 그럼 이 상황극을 어떻게 해결하죠?

민이어머니 : 친정어머니는 지금 양육적 부모자아를 범진 어머니에게 보여주는데 교류가 원활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수님께 물어봐야 하나?

기준어머니 : 친정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양육적 부모자아가 많았어요?

범진어어니 : 아니요. 늘 세고 강한 분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반항 한 번 못했어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했어요.

민이어머니 : 친정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달라지시나?

기준어머니 : 어쩌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셋이라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 야단치고 나면 지들은 야단맞아서 울고, 나는 속상해서 울고 그래요. 이러려고 많이 낳았나 싶기도 하고... 특히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쁜데 오늘도 소리를 지르고 야단쳤구나 후회해요.

(2017. 4. 26,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어머니들은 조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조부모의 자아상태 기능을 발견하고, 어떠한 자아상태를 활성화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의 주인공인 범진어머니는 주장이 강한 친정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인하여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자라왔으며, 지금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하면서 어릴 적 부모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제가 고3때 IMF였어요. 어머니는 위기이니 돈을 아껴야 한다며 제게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 집이 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범진이를 낳고 불만이 터졌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너무 충격이 크고 지금도 엄마를 보는 것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없는 집에서도 자식이 대학을 간다고 하면, 빚을 내어서라도 보내주는 것이 부모인데... (중략)

친정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요.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요. 그래서 내 주장을 잘 말하지 못해요.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될 거예요. 지금은 어리니까 아이가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여행도 많이 다니고...

(2017. 4. 26, 참여관찰)

범진어머니는 IMF를 맞이하면서 대학입학을 포기하라는 친정어머니의 권유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여 대학에 다녔다고 하였다. 이후 범진어머니는 친정의 형편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원망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다른 부모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자신도 어머니와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이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의 주관을 갖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내 아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하지만 자꾸 아이를 통제하게 된다.** 아이의 행동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 제지하지 않겠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려고 한다. 아직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다보면 나아지겠죠? (2017. 4. 11, 저널 범진어머니)

범진어머니는 자신의 부모역할을 점검하면서 비판적 부모자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적절한 태도를 통찰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바꾸고 싶은 자신의 행동이 비

롯된 경험, 심리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자신의 행동에 적용될 때 변화는 가능해진다(이영호, 박미현, 2011). 이에 대한 범진어머니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연극의 문제상황극 시나리오는 범진어머니의 사례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를 마친 후 문제해결극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엄마, 나 키울때도 그러더니...

이웃에 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신다. 예지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친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으로 친정어머니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급한 성격의 친정어머니는 오늘 아침에도 예지의 집으로 오셨다.

친정어머니 : **내가 예지 준비시킬게. 너는 너 출근 준비 해.**

예지어머니 :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내가 준비시킬게.**

예지 : (흐느끼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엄마, 가지마.**

친정어머니 : **어서 출근해.**

예지어머니 : **아니야. 엄마,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어. 내가 예지 준비시켜서 엄마 집으로 갈게.**

친정어머니 : **그러다가 지각해. 예지 어서 옷 입어. 혼자서 입는 거야.**

예지 : **엄마 가지마. 엉엉엉**

친정어머니 : **(예지를 가로막으며) 엄마는 출근해야 해. 너는 유치원에 가는 거야. 울지 말고 어서 준비해.**

예지어머니 :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엄마 마음대로 야.**

[문제해결극의 내용]

친정어머니 : 내가 예지 준비시킬게. 너는 너 출근 준비 해.

예지어머니 :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내가 예지 준비시킬게. 아직 시간은 충분해.

예지 : (흐느끼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엄마, 가지마.

친정어머니 : 그러다가 지각해. 어서 너는 출근해.

예지어머니 : (예지를 안아주며) 엄마, 아침 먹었어? 우리 차 한잔할까?

친정어머니 : 바쁜 아침에 무슨 차야?
예지어머니 : 아직 시간있어.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친정어머니 : 어떤 이야기?
예지어머니 : 엄마, 우리 예지 돌봐주느라고 힘들지? 너무 고마워.
친정어머니 : 갑자기 왜 그래?
예지어머니 : 예지가 아침마다 우니까 내가 지각할까봐 엄마가 우리 집에 일찍 오시는 거 알아. 그런데 예지가 저렇게 우니까 속상해.
친정어머니 : 그러면서 크는 거야. 예지는 너 출근하고 나면 잘 놀아.
예지어머니 : 엄마, 나는 예지가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엄마 집으로 갈게. 내가 늦는다 싶으면 그 때 우리 집으로 와주면 좋겠어.
친정어머니 : 나는 네가 분주하니까 도와주려는 거지.
예지어머니 : 알지. 당연하지. 그래서 엄마에게 고맙지.

(2017. 4. 26, 문제해결극)

범진어머니는 토론의 결과를 문제해결극으로 실연하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맡았다. 범진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아침 일찍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이해하였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자신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음을 반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문제 해결극을 실연한 후 평가시간]
범진어머니 : **사실 그 때는 친정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더 전쟁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더욱이 저는 친정어머니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친정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 빨리 와주시는 것인데 저는 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친정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제가 어머니 입장이 되어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어렵게 자라셨어요. 뭐 그 당시에는 많이 그렇게 사셨겠지만,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좋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찍 결혼했는데 친정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어머니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면서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돈으로 인색하신 것도, 저희를 강하게 억압하신 것도 어쩌면 앞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 어머니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2017. 4. 26, 문제해결극 실연 후 평가하기)

많은 부모들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조부모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갈등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토론연극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연하면서 친정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어머니 자신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친정어머니와 다른 양육태도를 다짐했지만 대물림 된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고, 내면의 고통이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드러나고 있었다. 범진어머니는 이러한 인식에서 두 가지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범진어머니는 평소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태도를 선택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압적인 친정어머니 때문에 저는 나서길 꺼려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토론연극에서 연기하면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둠이 3명이기 때문에 문제상황극이나 문제해결극 중 한 번은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어요. 또, 연기를 하면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기회가 되네요.

(2017. 5. 10, 부모교육 활동 평가. 범진어머니)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부모역할을 알게 되니까 내 아이의 미래가 예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을 줄여가**

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통제할 때마다 어릴 적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통제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물려받은 부모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의 꼬리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엄마도 힘들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왔다갔다 해요. (2017. 5. 24,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른들의 조언을 듣거나 가르침 받은 경험에 따라 행동했다면, **지금은 부모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신랑의 대한 화를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에너지와 감정을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텔라그래피를 시작했는데 화가 났을 때 글을 쓰면 마음이 안정이 되요.

(2017. 6. 14, 2차 개별상담. 범진어머니)

범진어머니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범진어머니는 강압적인 친정어머니의 영향으로 자기표현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편이라고 하였다. 범진어머니는 소극적이고 의타적이고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토론연극에서 여러 차례 역할을 맡으며 연습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경험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진어머니는 자신의 부적절한 부모역할을 경험할 때 친정어머니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노력으로는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진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만나서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범진어머니는 1차 개별면담에서도 친정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토론연극의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역할 및

성격과 관련한 어머니의 영향을 자주 언급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범진어머니는 친정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방문하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범진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의 관계, 어릴 적 경험 등에서 자신의 억압된 감정들을 풀어내면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어머니 자신이 친정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전보다 자주 친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 제가 부모교육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친정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실, 늘 가슴이 먹먹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정을 방문하고 엄마와 시간을 나누어 보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엄마랑 밥도 먹고, 마트도 같이 가요. 제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더 여유롭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계속 노력할거예요.
>
> (2017. 6. 14, 2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범진어머니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이해하면서 부모역할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더불어 친정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선택하기 : 부모라는 숲에서 길을 발견하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과 양육태도를 점검하면서 대물림된 부모역할에 대해 이해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맥락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

고하는 과정,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관찰하는 과정, 토론연극의 과정이었다.

다음은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대물림된 부모역할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사례이다.

지우 어머니: 저는 다희어머니랑 반대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호랑이 같은 분이셨는데 집안에서는 다른 분이셨어요. 저희 형제는 모두 5명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엄마가 나서고 그러면 다 이겨요. 엄마는 동네를 다 이기는데 자식들은 너무 순한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아들 지우를 키우면서 애를 너무 이렇게 하면은 순해가지고 남한테 많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보니까 사촌들에 비해 지호가 어려요. 사촌들을 만나면 형, 누나이고 나이차이가 있지만 싸워요. 그럴 때 저는 지켜보는 편이에요. 아이들은 놀면서 부딪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호는 어리니까 맞아요. 거기서 저는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편이에요. 애가 어느 상황까지 가나? 만약에 제가 없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놀 때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항상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대부분 지우가 맞죠. 그래도 심하지 않으면 저는 지켜봐요.

민이어머니: 지우어머니랑 저는 친해요. 그런데 서로 성향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 지우어머니는 알다시피 소극적이고, 저는 다혈질이라 “야! 하지 마.”라고 **바로 개입하고,** 때리는 행동은 못하게 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애들한테 약해요. 애들을 보면 안쓰럽고 그래요. 하지만 **맞는 건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지우어머니를 애들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 건 제안해야 해요. 애니까... 애기잖아요. (2017, 4. 26. 참여관찰)

동생을 따라하는(손가락을 빨고, 기어 다니고, 엄마에게 부비고,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 아이를 꾸짖었다. 큰애의 퇴행행동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혼자 두 아이를 감당하는 일상에서 나는 더욱 예민해져간다. 항상 큰 애가 울면, 나는 미안해서 같이 운다. 첫째도 분명히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이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 첫째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다. 형이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일단 둘째를 내려놓고 첫째를 앉혀 놓고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부모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다. (2017. 4. 4, 저널 동우어머니)

지우어머니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셨던 양육태도의 부적절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친정어머니와 다른 양육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민이어머니는 지우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아직 어린 유아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동우어머니는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새로운 부모역할을 선택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와 원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거나, 이웃 어머니와의 양육태도를 비교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올바른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이해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대물림된 부모역할이나 어머니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역할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새로운 태도나 기술,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몰입하고 반성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핵심이다(노진형, 2005). 따라서 부모가 자신에게 익숙한 양육태도를 낯설게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과정은 새로운 부모역할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관찰하면서 어머니들이 새로운 부모역할을 발견하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참여어머니들과 친숙해지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의 일상 이야기는 대부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부모교육의 내용을 실천한 경험이나 그에 따른 자녀들의 반응 등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새로운 부모역할을 알게 되고 그 효과를 이해하게 되었다.

기준어머니 : 지난주에 아이들과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원해서 초콜릿을 샀어요. 길거리에서 먹일 수 없어서 집에 가서 먹자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저녁식사시간이 된 거에요. 아이들은 초콜릿을 먹겠다고 떼쓰고, 저는 안 된다고 하다가 큰 애가 제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을 안 먹는 거 있죠. 저는 한 숟가락만 먹자고 했지만...

다희어머니 :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민이어머니 : 맞아요.

다희어머니 : 아마도 저는 '욱'해서 화냈을 것 같아요.

민이어머니 : 아마도 저도...

기준어머니 : 하지만 은우어머니께 배운 것이 있어요. '밥도 먹고, 초콜릿도 먹자' 맞아요?

은우어머니 : 아마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기준어머니 : 요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많아요. 집에서 적용해보기도 하고...

민이어머니 : 저도 그래요. (2017. 5. 10, 부모교육이 시간되기 전)

저는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좋아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이 좋아요. 9시 40분에 재우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 놓았어요. 아이가 점차 규칙에 익숙해지니까 제가 편안해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은우어머니처럼 아이들에게 여유 있게 대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주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심했었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17. 5. 17,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부모역할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어머니와 다희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에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은우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 양육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측하면서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양육태도를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면서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기준어머니 : 저는 셋이다 보니까... 둘이 그냥 같이 줘요. 같이 먹고 싶다 하면 같이 줘요.

범진어머니 : 저는 뭐 먹을 때 뿐 아니라 외출할 때에도 첫째랑 갈등이 많아요. 특히 빨리 이동해야 할 때에는 둘째는 안고 달려야 하는데 첫째는 달릴 수 있으면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작은애가 어릴 때는 같이 안아 줬는데 작은애가 커가니까 둘을 못 안아요. 집에서도 작은애가 아파서 안아 주면 큰애가 “엄마 나도 안아줘.” 하니까 양쪽에 안고 있기도 해요. 하나만 안아줄 수 없으니까...

민이어머니 : 저는 둘째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거든요. 첫째가 항상 희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동생들 케어를 해 놓고 몰래 안아주면서 “엄마는 너를 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때요?

기준어머니: “애기우유만 먹고 안아줄게.” 이렇게 하거나

범진어머니: “쪼끔 있다와. 엄마가 조금 있다 해줄게.” 이것 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이어머니 :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럴 때에는 큰 애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하더라고요. 우선 범진어머니의 의견처럼 상황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이가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요?

(2017. 4. 12,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위의 사례는 문제상황극을 감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A모둠의 토론내용이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어머니와 범준어머니는 다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 동안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다. 반면, 민이어머니는 다자녀의 양육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에서 보았던 정보를 활용하면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문제해결극을 감상하고 난 후 다른 모둠의 문제해결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사례이다. 문제해결극은 연구 참여자를 3모둠으로 나누어 토의한 결과를 실연한 과정이다. 어머니들은 문제해결극을 감상하고 난 후에는 서로의 문제해결에 대한 오류나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거나 한 가지의 상황이라도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 엄마, 놀이기구 더 타고 싶어요.

[문제해결극의 내용]

- A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함께 간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녀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을 선택
- B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자녀에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왔음을 인식시키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

・C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놀이공원을 가기 전에 약속을 정하고 나들이 장소로 출발하는 방법을 선택

[문제해결극 실연 후 평가내용]

은우어머니 : B모둠의 엄마는 너무 무섭고 단호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범준어머니 : 하지만 다른 가족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실례잖아요.

지우어머니 : 아이에게 다른 가족들과 있으니, 딱 한번만 타고 가자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범준어머니 : 딱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민이어머니 : 아니, 놀이공원에 왜 나들이를 간 거예요. 놀려고 간 거잖아요. 놀이기구도 타려고(간 거잖아요.) 아이가 더 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면 되죠.

범준어머니 : 아이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도 가르쳐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연구자 : 부모의 가치관이 양육태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경험을 나누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여러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24, 토론연극)

은우어머니와 민이어머니는 B모둠의 문제해결방안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범진어머니는 자녀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갈등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같은 갈등상황이라도 다양한 해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 역시 문제해결극을 마친 후 평가하기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을 발견하는 상황이다. 문제해결극을 실연할 때,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되고, 교사는 자녀역할을 맡게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과정에서 교사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방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된다. 문제해결극에서 교사는 유아의 입장에서 문제해결방안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방안이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 문제해결극을 마치고 평가시간에 유아역할을 맡은 교사는 문제해결방안을 수용했던 이유 또는 거부했던 이유, 참여어머니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엄마가 말했지!

[문제해결극의 내용]

・A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조르는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TV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

・C모둠의 문제해결극 내용 : 평소에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

[문제해결극 실연 후 평가내용]

민이어머니 : 원감선생님, 나도 우리 민이에게 A모둠의 해결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민이는 더 고집만 피우던데요. 왜 원감선생님은 그 방법을 수용했어요? 오히려 C모둠의 방법을 아이들은 더 좋아하지 않나요? C모둠은 엄마랑 동생이 함께 춤도 추고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놀고 자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왜 TV를 보겠다고 했어요?

원감선생님 : A모둠의 범진어머니는 제게 다가와서 눈을 맞추고 저를 안아주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범진어머니의 말보다 태도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스킨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어머님들께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시나요? C모둠의 동우어머님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제안을 하는데 저는 동생에게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아이들도 엄마가 “동생이 함께 놀자고 하네. 우리 동생하고 춤출까?”라고

제안하면 동생을 더 질투할 것 같아요. 동우어머님은 동생의 손을 잡고 제게 와서 서서 제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서 소외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략)
(2017. 4. 5, 문제해결극 감상 후 평가하기)

위의 사례는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잠자리와 TV시청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이었다. 문제해결극을 마치고 어머니들은 서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민이어머니는 자신이 적용해 보았던 A모둠의 해결방안에 대한 실패경험을 소개하면서 원인을 발견하였다. 또한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활용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실천하기 : 날마다 성장하는 부모가 되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부모역할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또한 토론연극에서 새롭게 발견한 바람직한 부모역할도 연습하였다. 이렇게 실천방법을 연습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부모역할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자아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민주적인 훈육원리와 놀이양육을 활용하였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아상태인 부모자아, 성인자아, 아동자아 중 자녀와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바람직한 자아상태를 발견하고 활성화하는 사례이다.

동우가 “엄마, 나 장난감 조금 더 가지고 놀아도 돼요?”라고 물으면 나는 “안 돼. 가서 정리해!”라고 말하는 일이 많았다. 또, 동우가 “엄마, 나 밥 안 먹으면 안 돼요?”라고 물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으면 과자도, 장난감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 아이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나의 비판적부

모자아를 너무 활성화해서 우리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고, 같이 정리하고, 밥을 먹기 싫다고 할 때에는 조금 미뤄두고, 먹지 않아도 좋다고 한 번쯤은 그래줄 수 있는 엄마였다면... 아이도 하기 싫고, 먹기 싫을 때가 있음을 이해해주었으면...**

(2017. 4. 24, 저널 동우어머니)

요즘 은우는 종종 나쁜 말을 사용한다. 여러 번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순간 짜증이 났다. **나의 비판적 부모자아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때, **아이의 자아상태를 판단하고 원활하게 소통했어야 하는데...**

(2017. 4. 26, 저널 은우어머니)

잠을 잘 시간에 잘 안 자려는 지우에게 예전에는 무조건 자야한다고 윽박을 질렀는데, 이제는 **갈등의 순간, 아이의 자아상태와 나의 자아상태가 어떠한지 고민하게 된다.** 아이는 아동자아상태와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 나의 아동자아상태를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함께 노래부르기, 함께 춤추기, 함께 책보기를 실천하였다.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지우는 웃으면서 일어났다.

(2017. 4. 11, 저널 지우어머니)

동우어머니와 은우어머니는 평소 비판적 부모자아를 자주 활성화하면서 자녀에게 명령과 협박을 하곤 하였다. 두 어머니는 자신의 비판적 부모자아의 활성화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과 자녀의 자아상태를 점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지우어머니는 자녀의 자아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어머니의 자아상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보교류가 필요하다. 상보교류는 상대가 어떤 자아상태에서 보낸 메시지인지에 대해 예상한 대로의 반응이 돌아와서 갈등 없이 편안하게 소통되는 교류를 의미한다(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12).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금지어를 사

용한다. 때로 부모는 자녀들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 돼.'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의 과도하게 엄한 메시지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음을 이해하였다. 더불어 자녀의 요구와 자아상태를 바르게 인식하는 태도와 반응이 자녀와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들이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례이다. 민주적인 훈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목표를 이해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평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아이들의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다(Dreikurs & Soltz, 1964/2012).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식사시간 동안 TV시청을 하려는 아이에게 식사 후 TV를 시청하자고 했다. 그러나 TV를 끄지 않겠다고 하여 식사를 멈추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TV를 끌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가 끝나자 TV를 끄고 식탁으로 와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네가 TV를 끄지 않아서 모두 식사를 하지 못했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이가 식사하는 동안 TV보다는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어떤 방법이 민주적인 부모역할인지, 모호하고 여전히 어렵다.** (2017. 5. 18, 저널. 범진어머니)
>
> 문제상황극의 내용 : TV시청을 주장하는 자녀 VS 취침을 강요하는 부모
> 범진어머니 : 아이 역할을 하니까 아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집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TV를 끄라고 하거나 잠 잘 시간을 강요했는데 아이마음을 잘 몰라주었던 것 같아요.
> 기준어머니 : 저도 그래요. 저녁에는 더 피곤하니까 자꾸 빨리 자라고 재촉하게 되더라고요.

민이어머니 :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도 그래요. 기준어머니는 셋이나 되니, 더 하겠죠.

범진어머니 :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실연을 해보니까, 아이가 TV보고 싶은 마음을 바로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아이에게도 시간을 주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 야단친 것 같아요. (2017. 4. 5,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서 민주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존중이 보호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민주적인 부모역할을 실천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지만, 자녀의 요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들이 놀이를 활용하여 자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례이다.

부모교육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민주적인 부모역할과 놀이를 활용하는 소통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방법을 정했어요. 아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규칙을 제공하자.' **라는 것**으로! 다희는 겁이 많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끄는 것에도 겁을 내요. **우리는 불 끄는 규칙을 정하기로 했어요. 첫날에는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정했는데 다희가 졌고, 그래서 불을 다희가 껐죠. 그런데 다희가 제게 "내일은 엄마가 이겨도 엄마가 꺼야 해." 라고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해서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워서 아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다희는 가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유치원에 가기 싫어?" 라고 물어보았어요. 다희는 "아니 좋아. 하지만 가끔 싫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엄마, 대장님이 싫어?"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회사 사장님을 대장님으로 불러요. 저는 장난으로 대장님은 화도 내고, 회사 친구들은 잘 안 놀아주고 일만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다희가

제게 “엄마, 그 때 기분이 어땠어?”라고 묻는데 아, 이것이 평등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 공감하고 평등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017. 6. 15, 2차 개별면담. 다희어머니)

옷이 더러워지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먹게 했다. 먹으면서 서로 장난을 치고, 서로 먹여주기도 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몸으로 놀아주고 있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끔 운다.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울지 말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 주면서 “우리 아들이 꿈을 꿨구나.”라고 말하면서 안아준다. 그 동안 부모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이가 우선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평소 “싫어! 안해!”하던 아이가 **한 번 안아주고, 놀아주었더니, 말을 너무 잘 듣는다**. 내가 하는 일 중에 우리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7. 6. 1, 저널. 동우어머니)

어머니들은 그 동안 부모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있었다. 다희어머니는 자녀에게 놀이를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자녀와 더 평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 동우어머니는 하루일과 중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놀이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어머니들은 자신이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도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였고, 부모-자녀 간의 갈등에서 문제의 원인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 자신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부모역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양육태도의 변화 :
자녀를 바라보고, 다가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어머니들은 일상에서 경험했던 부모-자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어머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양육의 어려움을 자녀의 행동 때문이라는 인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부족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부적절한 행동에 집중하면서 자녀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신과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주말에는 주방 정리를 하고 거실로 나가보니, 둘째아이가 자신의 온몸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볼펜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볼펜을 확 빼앗았습니다. 종일 아이들 돌보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아이들의 말썽까지 일상은 뒤치다꺼리 투성입니다. **아이와 주고받는 일상이 대부분 야단치는 일과 뒤치다꺼리뿐인 것 같아요.**
>
> (2017. 5. 17, 저널 범진어머니)

저는 정리정돈에 민감해요. 아이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책을 꺼내고, 다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어느 새 거실이 전쟁터가 되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한 가지 놀이감만 가지고 놀이하라고 하기도 하고, 놀이 후 바로 정리하라고 말하죠. 정리하지 않으면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첫째는 남자이고, 둘째는 여자아이니까 또 서로 가지고 노는 놀이감이 달라요. 더욱이 셋째까지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아이들끼리 놀면 참 좋은데 노는 중에 서로 다른 요구들을 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때리고 던지고 하면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게 되죠. 일상이 그래요. 아이들이 많다보니, **대부분 첫째와 둘째의 싸움으로 하루가 다 가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기준어머니)

문제 상황극은 제 이야기 같아요. 동우도 요즘 퇴행행동을 보여요. 제가 동생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면 그 때 안아달라고 하거나 기어 다니며 손가락을 빨기도 해요. 그리고 동생이 잠들라고 할 때 와서 칭얼거리고 무슨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또 윽박지르게 되죠. '동생 깨기만 해. 너 혼날 줄 알아!'라고 말하죠. 동우만 키울 때에는 안 그랬는데... (울음) **요즘은 종일 동우 야단만 치는 것 같아요.**

(2017. 4. 12,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범진어머니는 자녀의 일반적인 탐색활동조차도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준어머니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놀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무질서한 환경을 참기 어려워하였고, 자녀들의 서로 다른 요구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남매간의 갈등에서 훈육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자녀들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을 하였다. 동우어머니는 자녀의 퇴행행동을 이해하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자주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들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

을 발달상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머니들도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녀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엄마가 말했지!
동우어머니 : 우리 아이도 잠자리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지우어머니 : 우리도 그래요. 또, TV때문에도 아이를 자주 야단치게 되요.
범진어머니 : 저도 그래요. 저희는 잠자리도 문제지만, 먹이는 문제에도 갈등이에요. 범준이는 잘 안 먹고 둘째는 엄청 잘 먹고, 오빠 것까지 빼앗아 먹어요.
동우어머니 : 저희도 그래요. 어느 집이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비슷하네요.
(2017. 4. 5,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문제상황극] 엄마, 나도 나도
동우어머니 : 문제 상황극은 제 이야기 같아요. (중략) 동우만 키울 때에는 안 그랬는데... (울음) **요즘은 종일 동우야단만 치는 것 같아요.**
범진어머니 : 저도 그래요. 저도 야단쳐요.
동우어머니 : (눈물을 닦으며) 아직 동우도 아기인데, 동생이 생기니까 형처럼 행동하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범진어머니 :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도 동생이 있어요. 대부분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동우도 우리 범진이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2017. 4. 12,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하기)

문제상황극을 감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갈등이 유사함을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또한 자녀들의 퇴행행동 등과 같은 행동이 동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아이의 모든 행동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양육해 온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깊게 반성**하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명령조로 무조건 아이에게 강제로 시키는 행동들을 보여 왔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생각한다.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변하니까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 (2017. 4. 25, 저널 민이어머니)

> 전에는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안 된다고 그랬다. 어른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지우에게 인사하라고 했다. 아이도 엄마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고, 항상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아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해고 무시하는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는 점점 말을 안 듣고 엇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에게 “너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다. 이제는 아이에게 어른이나 선생님께 인사하라고 하기 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
> (2017. 5. 20, 저널 지우어머니)

민이어머니와 지우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지나치게 권위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문제를 인식하였다. 민이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은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이 달라지면서 양육태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어머니 역시 자녀를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자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면서 자녀에게 따르기를 강요했던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녀와의 갈등을 양육의 어려움으로 호소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이 원인이라고 인식하면서 어머니 자신과 자녀를 좌절감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이 그 동안 보여 왔던 양육태도가 문제였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녀에게 반응하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양육행동의 변화 :

권위적인 양육행동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양육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는 권위적인 양육행동에서 민주적인 양육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변화 과정은 '나도 모르게 행동하기', '순간적으로 후회하기', '생각하고 행동하기' 순이며, 양육행동의 변화내용은 '기다리기', '적절하게 반응하기', '함께 놀이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도 모르게 행동하기'에서 어머니들은 그 동안 익숙했던 부적절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자녀와의 갈등에서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양육서적과 우리 아이는 달라.' 등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녀들에게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 첫째가 블록을 쌓고 있으면 둘째가 꼭 큰 아이의 블록에 또 다른 블록을 올리려고 해요. 큰 애는 그것이 싫으니까 피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큰 애가 동생에게 "안 돼."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저는 작은 아이의 팔을 못하도록 잡으면 발이라도 뻗어서 형의 불록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큰

애는 울죠. 그러면서 동생을 때리겠다고 말해요. 저는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큰 애는 동생은 욕심쟁이라고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펑펑 울어요. 아휴~ 일상이 늘 이래요. 두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주 욱하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인준어머니)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몇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 때는 조금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했어."라고 날카롭게 이야기 하죠. 하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대학 때 아동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책에 나오는 아이와 동우는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동우어머니)

저는 책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육서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책에 나오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양육서에서 알려 준 대로 해도 잘 안 돼요. (2017. 3. 21, 1차 개별면담 범진어머니)

일상생활에서 인준어머니는 형제간의 갈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우어머니와 범진어머니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육아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하지만 적용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자녀는 책의 사례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순간적으로 후회하기'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의 다짐과는 달리 이미 익숙했던 행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시간 약속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아이를 다그치게 되요. “빨리 와. 늦었어. 얼른 해.”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범진이는 더 고집을 부리고 계속 자신은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죠. **순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저는 아이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2017. 4. 11, 저널 범진어머니)

우리 아이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힘듭니다. 매번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려고 하지 않아요. 일하고 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가 빨리 잠자리에 들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꾸 아이를 다그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아이를 이해하기 힘들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종일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아이가 엄마랑 더 있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요즘은 제 모습에서 문제를 인식해요. ‘내가 문제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동은 이미 생각보다 빨라요.** (2017. 4. 6, 저널 지우어머니)

잘 안 돼요. 꼭 지나서 생각해 보면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민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께 태권도 학원을 갔어요. 상담하는 동안에 아이가 학원이 물건을 이것 저것 계속 만지고 부산하게 행동해서 계속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원을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민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학원을 갔으니 먼저, 민이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소개하고, 엄마가 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지... 결국 아이는 울면서 나왔죠. 평소처럼... (2017. 5. 17, 저널 민이어머니)

범진어머니와 지우어머니는 권위적인 태도를 반성하였고, 민이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하면서 대안을 발견하였다. 행동은 어느 한 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체험의 과정이므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도모하려고 해도 어머니들은 이미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후회하였다.

셋째, ‘생각하고 행동하기’이다. 여러 번 반복되는 순간적인 후회를 경험하

면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본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부모역할을 실천하고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의 갈등에서 아이의 감정을 생각하게 되요. 예전에는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아이에게 나의 감정을 말하고, 기대하는 아이의 행동을 표현해요. “엄마가 지금 일하고 와서 몸이 피곤해. 너도 빨리 씻고 잤으면 좋겠어.” (2017. 5. 25, 저널 다희어머니)

훈육하기 전에 ‘민주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요. 얼마 전에 두 아이가 또 갈등이 있었죠. 민주적인 훈육기술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의 입장을 말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의하도록 했어요. (2017. 6. 6, 저널 기준어머니)

고민을 진지하고 실시간으로 하게 되요. 무엇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너의 행복을 어른까지 유지시킬까? 늘 생각하고 더 생각하게 되요. 어제는 아이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하듯 “맞아. 맞아.”라고 반응해 주었더니, 아이는 친구가 된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대화하고 친근해졌어요. 언젠가는 생각을 넘어 현명해지길... (2017. 6. 9, 저널 동우어머니)

다희어머니는 너-메세지에서 나-메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기준어머니와 동우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민주적인 훈육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활용한 양육태도에 대하여 아직은 모호함을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을 적용하려는 태도, 자녀의 행복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갈등경험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지적·정서적인 통찰과 체험을 통해 권위적인 양육행동이 민주적인 양육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은 민주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 부모들은 지시하거나 명령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참여 어머니들 역시 같은 방법의 양육행동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소통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소통에서 보여 준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기다리기', '적절하게 반응하기', '함께 놀이하기'이다.

먼저, '기다리기'와 관련된 사례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머니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개선되기를 기대하지만 자녀가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 제가 아이에게 손은 잘 안 대는데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지금 화 1단계야."라고 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소리로 "엄마 화 2단계야." 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저의 태도를 바꾸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아이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기다려주게 되더라고요.**
>
> (2017. 5. 17.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

민이어머니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자녀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민이어머니는 토론연극에서 갈등상황이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는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인식하였다. 또한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수정은 한 번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다림을 선택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을 어

떻게 인식하고 부모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다리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얼마 전에 범진이 유치원 가방에서 블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범진이에게 물어봤어요. “범진아, 왜 이게 여기 있니?” 범진이는 선생님이 주셨다고 했지만 절대 선생님이 주실 블록이 아니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를 다그치고 야단을 쳤을 텐데, 부모교육을 받으니까 이럴 때는 어떡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문득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 어린 연령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라고 말해주는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주었어요. 이런 행동을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 조금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아**이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2017. 5. 24. 참여관찰 범진어머니)

> 동우는 잠자리에서 종종 소변실수를 한다. 처음 배변훈련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거의 매일 밤마다 실수를 했다. 그래서 엉덩이를 때려보기도 하고 새벽에 아이를 깨워 쉬를 하게 하기도 했다. 지금은 가끔 실수를 하지만 아이가 실수를 하고 나를 깨우면 몸을 씻겨주고 이불을 갈아주고 잠자리에 든다.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 **부모교육에서도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다. 동우는 뭐든지 조금 늦었다. 지금은 내가 기다릴 때인 것 같다.**
> (2017. 5. 11. 동우어머니 저널)

범진어머니는 유치원의 놀이감을 가져 온 자녀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다려주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우어머니 역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잦은 배변실수에 대해 자신의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전에는 자녀의 배변실수를 고쳐야 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다그치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부적절한 반응에 대해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예측하게 되었고, 자녀의 느린 기질과 배변훈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자녀를 다그치기보다는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다음은 '적절하게 반응하기'이다.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난다. 하지만 훈육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녀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반성 없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동우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동생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양보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소유욕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두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양보와 나눔의 개념이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야단을 많이 쳤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야기를 한다. 부모교육에서 관심끌기의 이유를 듣고 이해한 후로는 **동우에게 설명을 한다. 동생의 장난감을 주어야 하고 같이 놀이하려면 본인의 장난감도 빌려주어야 함을... 그리고 설명한 후에는 반드시 무릎에 앉혀 안아주고 있다.**
>
> (2017. 5. 24. 동우어머니의 저널)

> 범진이가 하원하는 길에 길가에 핀 꽃을 꺾었다. 범진이에게 꽃은 눈으로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아야 함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만지고 싶을 때에는 살짝 어루만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 온 후에는 부모교육에서 전달받은 '꽃을 꺾지 마세요.' 노래를 아이와 불렀다.
>
> (2017. 5. 9. 범진어머니 저널)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동우어머니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목표 '힘겨루기'를 발견하고 적절한 반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진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함께 놀이하기'이다. 많은 부모들은 유아기 자녀들에게 놀이

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이 자녀를 가르치고 생활하는 맥락에서 놀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어머니들 역시 자녀를 훈육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지시와 명령하기, 체벌하기 등의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와 힘겨루기를 경험하거나 자녀의 반항과 고집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신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고, 자녀와 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적인 부모가 되려고 명령과 지시보다는 (가족)모두 선택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어제 밤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자리 위치를 추첨으로 선택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한 명씩 원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방법으로 잠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다리로 잠자리를 선택**했답니다. (2017. 6. 8. 은우어머니의 저널)

> 늘 잠자리에서 제 시간에 자려하지 않는 아이와 실갱이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잠자리에서 하고 싶은 요구를 들어준다. 어제는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책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지우는 웃으면서 일어났다.
> (2017. 5. 31. 지우어머니 저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동일한 행동이나 활동들이 특별한 맥락만 닿으면 놀이가 될 수 있다(Lawrence, 2011/2001). 은우가족은 잠자리 선택방법을 가족구성원들이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잠자리는 놀이를 활용하여 선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우어머니 또한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경험을 하였다.

>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아이의 손에 한 번도 숟가락을 지

어주지 않았고 노는 것도 통제했다. 그러나 요즘은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묻히고 서로 장난치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7. 6. 12. 동우어머니의 저널)

유치원에 등원할 때마다 아이가 길을 걸으며 딴 짓을 하는 통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와 등원하는 길이 즐겁다. **부모교육에서 배운 몸과 마음열기 활동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아이와 노는 것이 즐거워지고 있고, 아이는 등원할 때 발걸음이 가볍고 빨라졌다. (2017. 6. 5. 다희어머니 저널)

동우어머니는 성격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통제하였으나, 본 연구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자녀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함께 놀게 되었다. 다희어머니는 본 연구과정에서 배운 '몸과 마음열기의 활동'을 자녀의 등원시간에 활용하면서 등원시간이 단축되고 자녀와 기분 좋은 등원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어머니들은 양육상황에서 놀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다양한 양육상황에서 놀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다.

기준어머니 : 놀이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꼭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상황에서 놀이를 선택하고 실천하려면 뭔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은우어머니 :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내 일을 해야지 하면 아이는 제게 와서 뭐하자. 뭐하자 라고 해요. 하지만 그 동안에 제 생각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받자' 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부해주신 읽을거리를 읽고 내가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부

족하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늘렸어요. 사실 아이가 하원하고 와서 식사하고, 잠자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놀아줄 거면 재미있게 놀자. 미친 듯이 놀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아이라도 같이 놀아주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는 것 같아요. 놀아주는 척하는지, 정말 노는지...

범진어머니 : 맞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동우어머니 : 우리 신랑은 아이들과 잘 놀기는 하는데 꼭 자기가 이길려고 해요.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울리더라고요. 연령에 따라 놀아주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은우어머니 : 놀이 꺼리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미디어를 주지 않아서 함께 놀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보면 제가 먼저 체력이 딸리죠. 그러면 몸으로 노는 놀이에서 지적인 놀이로 바꾸죠. 예를 들면, 말놀이, 책을 보면서 찾는 놀이, 알까기 등의 이기고 지는 것을 반복하면 살짝 빠져도 몰입해요. 아주 몰입해서 즐겁게 놀아 주다보면 아이 자신도 빠지고...

범진어머니 : 지난 번 사례에서 충분히 놀아주면 아이가 '엄마 다녀 와.'라고 했던 사례가 생각나요.

은우어머니 : 맞아요. 정말 충분히 놀아주면 아이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배우는 것도 많아져요. 놀아주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해야 하고 배우게 되요. 또 아이와 놀이하면서 이전에는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는데 요즘은 전략을 바꾸었어요. 100% 아이가 이기죠.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제가 지도록 하죠. 아이는 높은 승리감을 얻고 또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기도 하고 다음 도전을 기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져주면 아이가 아는 것 같아요. (중략)

동우어머니 : 아침마다 등원전쟁이었어요. 아침도 스스로 안 먹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 쥬스를 마시면서 '오늘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컵을 스스로 잡아서 벌컥벌컥

숨도 안 쉬고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등원하는 길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서 바톤처럼 주고받으며 유치원을 왔더니,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등원하는 것이 수월했어요.

(2017. 5. 31. 문제해결극 평가하기)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양육상황에서 놀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생소하게 인식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은우어머니는 자신이 놀이상대를 할 때에는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의무적인 놀이상대에서 진정한 놀이상대로, 무조건 져 주는 놀이에서 전략적인 놀이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진어머니는 은우어머니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난 토론연극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놀이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와 같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민주적인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행동변화를 '기다리기', 자녀들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양육의 상황에서 '함께 놀이하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과 한 개인으로서 욕구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이 고정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성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인식이 달라지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부모역할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권위적인 양육행동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양육행동으로 변화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부모의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과정을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요구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시안 개발, 전문가 협의, 예비연구,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헌고찰의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요구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5세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시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예비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

그램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부모-자녀의 관계 개선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명하, 2013; 노진형, 2005b; 이경화 외, 2009; 이명지, 2011; 장성단, 2016; 정계숙 외, 2015).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역량은 단순히 양육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한 개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의 부모들은 부모역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중요시 하면서 부모역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명지, 2011). 또한 부모들은 자아실현과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정미라, 김경실, 이방실, 2013).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욕구와 현실을 이해하면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목표에서 제시하는 부모역량 역시 부모의 자기이해와 양육역량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목표는 부모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부모역할을 반성적 사고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부모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학습을 시작한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역할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부모가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물림된 부모역할을 답습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

게 되고, 부모역할이 어렵다고 인식하게 된다(전우경, 2010; 조형숙, 김명하, 2012). 따라서 부모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부모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부모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행위도 가치관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혼돈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해법으로 자신감 있게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박애경, 2015). 이에 본 프로그램의 목표를 부모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부모역할을 반성적 사고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출하였다.

셋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의 부모들은 부모역할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와 기술만으로 부모역할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고정곤 외, 2014; 박선숙, 2011)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애란, 2010). 또한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훈육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해 한다(박수홍 외, 2013; Belsky, 1984). 더불어 전통적인 양육방법이나 대물림된 부모역할은 자녀양육과 소통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김혜경, 2014; 전우경, 2010; 조형숙, 김명하, 2012; Dreikurs & Soltz 1992/2012). 또한 부모들이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다양한 욕구들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패러다임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교육목표인 행동의 변화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서울유아교육진흥원, 2012; 전우경, 2010; 정계숙, 최은실, 2013).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따라서 부모들 역시 자신이 어떤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

야 한다(정계숙 외, 2014). 더불어 부모교육의 내용이 성인학습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의 문제들로 구성될 때(노진형, 2005b), 부모역량 강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의 부모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부모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모의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자아상태와 교류패턴, 감정표현과 이해, 정서와 사고의 분화를 포함하고 있었다(강영순, 김종남, 2012; 김명하, 2014; 문주형, 2015). 반성적 사고의 내용으로 부모의 자녀기 경험과 부모역할에 대한 경험, 의사소통의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훈육원리를 포함하고 있었다(노진형, 2005a; 이명지, 2011; 장성단, 2016; 정계숙 외, 2015).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 자아상태와 교류패턴을 활용한 자기이해, 자녀기 경험과 부모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훈육원리와 놀이를 의사소통의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학습방법은 단계와 교수방법, 운영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수-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낯선 상황과 대상들에 대한 긴장을 이완하고 친숙감을 얻기 위한 '몸과 마음열기'로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시나리오 표상을 위한 '문제상황극 감상하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문제상황극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누기'이다. 네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문제상황극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하기'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극을 표상하는 '해결방안 적용하기'로 마무리된다.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준비-도입-전개-심화-마무리의 순으로 진행된다(김혜인, 2012; 박혜련, 2006; 신지수, 2010; 허세정, 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수-학습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권대봉, 1999).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주도성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이 학습자원으로 활용되고, 학습내용에서 즉각적으로 적용되기를 원한다(노진형 2005b; Knowles, 1980).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와 변화를 이끄는데 효과적이며(김향식, 2010),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습활동은 학업성취도를 높여준다(한상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의 5단계는 학습자들의 경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토론을 하며, 그 결과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과 적절한 전문가의 개입을 세밀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인을 학습자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단계로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패러다임은 표준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김희진, 2014). 또한 부모교육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모교육의 효과와 관련해 참여자들의 행동변화와 지속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김미숙, 2013; 노진형, 2005b; 백말순, 2003).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행동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새롭게 인식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양한 양육서를 읽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새롭게 인식한 지식과 정보를 경험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더라고 그 해결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행동에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많은 부모들이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를,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를 양육하기 수월하다고 한다. 이는 이미 양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태도를 연습한 과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실제적 역량을 향상시킨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방법 역시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부모교육 연구에서 역할극과 액션러닝, 일상생활에서 훈육과정을 녹화한 비디오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김혜경, 2014; 노진형, 2005a; 박수홍 외, 2013; 정계숙 외, 2014)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활용한 토론연극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활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은 강의, 문제상황극, 토론, 저널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강의와 토의, 과제가 주된 교수방법으로 활용되었다(김명하, 2013; 김현미, 2013; 문주형, 2015). 하지만 토론연극 관련 연구의 교수방법은 대부분 문제상황극, 토론, 결과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며(김혜인, 2012; 박혜련, 2006; 신지수, 2010; 허세정, 2014), 노진형(2005a)은 반성적 사고 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에서 강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녹화본과 전문가 피드백, 소집단 토론을 교수방법으로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강의는 문제상황극을 감상한 후,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진행되었다. 이는 예비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상황극은 성인교육의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관점전환학습, 경험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제공하고자 참여 어머니들의

경험으로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문제상황극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관점전환학습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 학습으로 성인학습자의 신념과 태도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 활동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이해를 돕는다(Mezirow, 2000). 노진형(2005b)의 연구에 의하면 관점전환학습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고, 학습자는 이미 주어진 해석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문제상황극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경험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부모역할을 시도하는데 적합한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험학습은 성인학습의 핵심요소로 구체적 경험, 관찰과 반성, 추상적 개념의 형성과 일반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상황의 적용・실험으로 구성된다(Kolb, 1984). 본 프로그램의 문제상황극 역시 경험학습과 같은 맥락으로 구성・실행되었다. '구체적 경험과 관찰 및 반성'은 참여자들의 이전 경험을 문제상황극의 시나리오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부모역할과 양육행동을 관찰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였다. '추상적 개념의 형성과 일반화 및 적용・실험'은 참여자들이 문제상황극을 실연하면서 자신의 부모역할과 양육행동을 수정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적합한 교수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은 교육방법의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주도성을 갖고 학습경험을 계획, 실행, 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김향식, 2010). 본 프로그램의 문제상황극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부모역할과 양육태도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한 접근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익숙했던 것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

나 일상에서 깨어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이끄는데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은 성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면서 설득력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저널은 학습한 내용이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현실적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교수방법은 학습자들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부모역량을 증진하고 변화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개별면담 각 2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10회, 집단면담 1회로 운영되었다. 부모교육의 운영 장소는 유치원으로 전체 모임은 총 11회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이러한 궁금한 점을 교사에게 질문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를 과하게 할 것으로 예측하여 하지 못하는 편이다. 권미량과 하연희(2014)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교사와 자녀의 관계, 유아교육기관의 일과에 대한 궁금증과 불명확성 때문에 교사와 교육기관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매주 유치원을 방문하는 어머니들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게 된다. 또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경험과 어려움을 털어놓음으로써 참여자들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서로를 돕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이경화 외, 2009; 이하정, 2015).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공존양식은 '함께 하기'라고 표현한 미국의 진보적인 사회학자 Sennett(2012/2013)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는 것을 단순한 공감이나 공유된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차이 조절과 이해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협력의 모멘트, 집단적인

지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때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와 저항을 만나기도 하고, 애매모호함으로 가득한 경험을 갖기도 하겠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본 연구의 어머니들은 참여자들과 구체적인 실천을 경험하고,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같이 웃고, 울고, 격려를 나누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배움이 일상의 경험으로 확장되고 부모역할을 더 잘해보려고 다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아교육기관-가정, 부모-교사가 협력하는 부모교육의 방법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둔다.

다섯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는 구조적 평가와 비구조적 평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구조적 평가로 자아상태 검사, 부모 참역량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비구조적 평가로 면담, 참여관찰, 연구자의 연구일지와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 중 자아상태 검사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아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교육내용에 반영하면서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자아상태 검사결과는 어머니들에게 자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게 하면서 부모와 한 개인이 가지는 욕구를 이해시키는데 활용되었다. 이는 자아상태 구조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명하(2013)와 장성오(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아상태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지면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김명하, 2013; 문주형, 2015; 이주리, 2016)들에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이나 소감문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효과검증을 다양하게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장성오, 2011; 장은아, 2015; 정계숙 외, 2014)들에서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가 혼용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본 연구 역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약하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론연극에서 자기이해,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의 부모교육과는 달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모교육을 제공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영향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 어머니들의 '자기체계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능동적 행동,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

기 삶 목표·방향설정, 지속적 자기성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강점 자기역량 개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점 자기역량 개발'이 어머니 개인으로서의 역량으로 그 변화에는 다소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질적 분석의 결과에서도 어머니들은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를 이해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자신의 변화를 위한 행동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강점 자기역량 개발'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 중 4번 다희어머니는 자기체계역량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능동적 행동'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점수가 향상된 반면,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지속적 자기성찰'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다희어머니의 기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희어머니는 다문화가정으로 친정어머니와 여동생도 함께 거주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 주 양육자는 친정어머니이며, 다희어머니는 어머니 역할보다는 자아실현에 더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을 신청하고 참여한 반면, 다희어머니는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각과 결석이 잦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기체계역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요인 중 '능동적 행동',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 삶 목표·방향설정', '지속적 자기성찰'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면서 실제적 역량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

속적 자기성찰'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2.00점 증가했는데 이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반성적 사고를 전반적으로 활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질적분석에서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양육태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점,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력이 증가한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명령과 금지어를 사용하면서 큰 소리로 지르거나 체벌하는 양육태도가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체계역량의 향상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성찰과 자기이해는 부모들의 자기체계역량을 향상시키고, 부모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된다. 정계숙 외(2014)의 연구에서 '성찰하기'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성적 사고는 부모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면서 부모 참 역량과 양육효능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계숙 외(2015)가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참 역량 컨설던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성찰과 반성을 교육내용으로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강영순, 김종남(2012) 역시 자기이해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감정 및 행동조절, 부모역할과 태도변화,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 중 자기이해는 부모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역량(박수홍 외, 2013)은 부모역할과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 어머니들의 양육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역량의 하위요인인 자녀의 발달 특징·욕구이해, 부모-자녀 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방향·목표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생애 진로개발,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공의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었다. 이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아상태와 양육태도를 점검하게 하고, 자신의 부모역할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도록 하여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갈등의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부모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토론연극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신의 부모역할과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연습하면서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경험을 하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역량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하위영역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그 중 부모-자녀관계 이해, 민주적 양육은 연구 대상자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이 자기이해와 민주적인 훈육기술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Belsky(1984)는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모들은 긍정적인 양육방법을 잘 몰라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김미숙, 문준혁, 2005; 김영주, 2008; 손수민, 2012). 따라서 참여어머니들이 부모-자녀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적인 훈육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역량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계숙 외(2014)의 연구가 소집단 액션러닝 프로그램에서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원하고 양육역량을 확인해 본 결과, 인내심 갖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소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타낸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험이 양육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박수홍 외(20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실제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양육경험의 문제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변화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어머니 자신의 변화, 부모역할의 변화, 양육태도의 변화가 나타났

다. 이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자신의 변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 외에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으로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이 한 개인으로 가지는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발견하면서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과정이 어머니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한 개인으로 가지는 욕구에 공감하고 지지하게 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는 어머니가 한 개인으로 가지는 욕구에 대해 인식하게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도왔다.

현대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기에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격려 받으며 살아왔으며, 오늘날에는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진출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모가 되었다. 어머니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부모가 되면서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공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의 욕구와 부모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는 부모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부모들이 개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자녀의 출산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

을 받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고립감, 우울감,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 이명지(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박애경(2015) 역시 양육의 불안감이 부모 효능감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였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부모역할과 직업인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수집한 정보들은 서로 상충하거나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고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부모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미라 외(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기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 인간으로 자아실현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부모역할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가지는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욕구를 이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변화는 본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과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은 항상 '몸과 마음열기'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몸과 마음열기'는 참여어머니들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놀이적 요소가 담긴 활동으로 웃음과 재미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어지는 자기소개시간에 어머니들은 자신의 희망과 관련된 별명을 짓고 퀴즈로 맞추는 활동을 경험한다. 이후 토론연극에서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재구조화하여 토론하고 연기하면서 어머니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어머니들이 일상의 피로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욕구를 공유하게 되면서 자

신의 변화를 위한 행동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집단 교육이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갈등 해소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조옥형(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이 높으면 바람직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높은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끈다는 정계숙, 견주연(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역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욕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능동적 행동에 변화를 가져 온 맥락으로 토론연극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갈등에서 어머니 자신의 분노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많았다.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모역할에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론연극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개선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적연구의 결과에서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인인 능동적 행동, 지속적 자기성찰, 자기주도 문제해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체계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성옥, 강영자(1997)은 부모가 양육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 바와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모역할에서 한계를 덜 느끼고, 더 잘 극복한다고 보고한 이정화, 한희승, 최란(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어머니들 중 5명은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인 '자기주도 문제해결'의 사후검사에서 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의 문제해결력이 증진된 것을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연극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과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다른 어머니들과 문제해결방안을 만들어내면서 양육에서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에게 적합한 해법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실행해보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모역할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부모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막연한 기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본 연구과정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자녀와 부모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부모역할 또한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달라지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던 부모역할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부모역할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부모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어머니들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에 대한 지각이 없이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갈등에서 나타난 자신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기존의 태도와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성적 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정보를 배우는 것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하정(2015)의 연구에서 부모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양육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은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인식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상황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기술하고 보다 나은 결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노진형, 2005b; 이경화 외, 2009; 정계숙, 노진형, 2006)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반성적 사고와 함께 '자기이해' 역시 부모자신의 부모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본 연구의 참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아상태 결과지 분석을 통해 자신의 자아상태의 기능을 인식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한 자아상태의 활성화 방안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현재 자신의 부모역할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바람직한 자아상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론연극과정에서 연습하고,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해 모호한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양육태도를 모색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즉, 본 연구는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복했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부모역할을 실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를 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전우경(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개선할 때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계숙, 견주연(2014)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부모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양육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양육행위를 선택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도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부모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 사회에서는 부모역할이 갖는 연속성이라는 특징으로 부모-자녀의 관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모역할은 양방향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태도나 자녀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보다 자녀의 행동목표와 결과를 예측하고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안내하는 태도를 바람직한 부모역할로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다(Scarlett, 2003). 따라서 현재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이해와 반성적 사고를 활용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양육태도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권위적인 양육행동이 민주적인 양육행동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자녀

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가르침이 필요한 부족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들의 행동에 집중하고 가르치며 자녀가 어머니의 지도에 잘 따르기를 기대하였다. 어머니들이 갖는 양육의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는 태도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따르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따르기는 자녀들에게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워야 한다(김성찬, 2014).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언어로 계속 따르기를 상기시켜 주면서 훈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의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 되어 가고 있다(이영자, 2007); 조둘연, 2006; Dreikurs, 1992/2012). 따라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자녀를 사회적 질서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따르기를 강조하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자유와 책임을 인식하고 부모들과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소통의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역시 자녀가 자신과 동등한 존재이며, 평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자녀에게 다가하는 양육행동에서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러한 결과는 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효과에서 양육역량의 하위요인인 자녀발달 특징·욕구이해와 부모-자녀관계 이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선행연

구(서상아, 2016; 조둘연, 2006)의 결과와도 같다. 어머니들은 긍정적인 양육경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고유미, 2009; 김용숙, 박지영, 2011). 뿐만 아니라 장동선(2017)은 우리의 뇌는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양육태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행동 역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양육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선택하였다.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의 영향과 토론연극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먼저,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의 영향으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발견하게 된 맥락은 대부분의 소집단 부모교육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서로에게 느끼는 이러한 친밀감은 자신의 어려움을 허물없이 터놓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모방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장성단(2016)이 보고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이경화 외(2009)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감하면서 자기반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기반성의 과정에서 공통의 해결법을 깨

닫게 해준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정계숙 외(2014) 역시 비슷한 상황의 어머니들이 소통하고 격려하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해결책을 찾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정(2015)이 보고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거나 해결해 주는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사람들은 직접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 느끼는 진정한 연대감을 더 선호하고, 혼자보다 함께 배우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장동선, 2017)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은 자녀양육으로 고립되어 있는 부모들이 함께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상대와 공간,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지지한다(김은주, 서영희, 2011; 정미라 외, 2013).

다음으로 토론연극은 참여 어머니들에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토론연극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부모-자녀의 갈등을 문제상황극으로 제시하고, 토론연극의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객관화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과의 토론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만들고, 실연 후에는 서로의 문제해결에 대한 적용점을 논의하면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주(2013)와 이명아(2013)가 보고한 문제상황극을 연기하면서 다양한 억압에 의한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토론연극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김달, 2016; 김혜인, 2012; 장은아, 2015; 허세정, 2014).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게 되면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식하게 된다(Ruby, Decety, 2004). 뿐만 아니라 변화의 의지 또한 보다 효과적이다. 토론연극은 어머니 자신의 문제를 3인칭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는 토론연극은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이 가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 어머니들의 부모역량을 강화시켰고, 자신의 욕구를 이해시키고 능동적으로 삶을 이끄는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부모역할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하면서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도 부모역할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토론연극은 실제 삶에서 경험한 부모역할과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토론연극은 부모들에게 단순히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원인을 발견하게 하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토론과 실연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일상을 연습하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행동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행동의 변화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다각도로 토론연극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의 부모교육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역할과 부모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단순히 부모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모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원과 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 온 지식과 정보를 넘어 보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토론은 소집단으로 소요시간은 30분으로 운영이 되었다. 제한된 토론시간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때때로 시간이 부족하였다. 토론의 시간은 단순히 문제해결 방안

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안을 습득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으로 서로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게 하면서 같은 유치원의 학부모로 결속력을 갖고 교육과 양육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토론의 시간과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토론연극은 준비과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토론연극의 준비과정은 시나리오를 위한 자료수집, 시나리오 재구성, 문제상황극 실연을 위한 자료 준비가 있다. 연구 참여자가 준비과정에 동참하게 되면 시나리오의 선택과 재구성은 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제상황극 실연을 위한 준비과정 역시 문제인식과 관점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토론연극의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남편과의 갈등을 호소하면서 자신만의 변화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어머니 자신이 남편에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토론연극을 활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민정(2005). 토론연극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영순, 김종남(2012). 자기이해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분노조절 및 자아분화에 미치는 효과. 뇌교육연구, 10, 106-128.

강혜원(201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남희(2009). 교류분석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선옥(2006).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특성과 양육신념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유미(2009).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곤, 김소영, 김의석, 손현숙, 시옥진, 이정순, 임영임, 최철용(2014). 부모교육. 파주: 양서원.

공영숙, 이지영(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32(2), 351-376.

곽영순(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교육과학기술부(2008). 일반적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3).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권대봉(2006).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권미량, 하연희(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281-302.

권정윤(2004).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자신감. 대한가정학회, 42(6), 151-162.

김경중, 고선옥, 박미희, 신리행, 유행숙, 이미정, 정재경, 황정금(2012). 부모교육(개정판). 경기: 공동체.

김경화(2003).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자아개념 및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달(2016). 초등학생의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연극 활용에 대한 연극 : 5·6학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란(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주(2013). 부모-자녀 놀이치료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변화경험 연구: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석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2013). 부모교육방법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민정(2011).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색.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반야(2015). 부모 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11(4), 108-170.

김병주(2008). 연극을 통한 교육, 문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 참여와 소통의 교육연극방법론 TIE. 영미문화, 8(1), 29-56.

김보영(2011).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에 관한 실행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 한정혜, 제인현, 이송은(2007). 유아를 위한 연극놀이. 서울: 창지사.

김성찬(2014). 부모가 되는 시간. 경기: 문학동네.

김숙영(2008). 독서토론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환, 김하진, 나원정(2014). 유아교사-어머니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상호인식. 육아지원연구, 9(2), 199-225.

김안나, 권영숙(2014).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375-384.

김애란(2010). 취업모를 위한 on&off 통합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진, 유안진(2000). 부모교육. 서울: 정문사.

김영순, 김종남(2012). 자기이해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분노조절 및 자아분화에 미치는 효과. 뇌교육연구, 10, 106-127.

김영옥(2007).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2판.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김영철, 김지은, 이영선, 이호준 (1997).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종합보고서. 청소년상담연구, 1-159.

김옥희(200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미(2011).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숙, 박지영(201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능력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3(2), 21-34

김용현, 김종표, 문종철, 이복희(2010).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경기: 양서원.

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박수홍 (2014). 액션러닝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 부모의 양육 역량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45-70.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Waker, S. (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연구보고 2011-16).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숙(2012). 부모 역할 교육이 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2013). AugustoBoal의 토론 연극 확산 가능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운(2005). 노는 만큼 성공한다. 경기: 21세기북스.

김정운(2015).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경기: 21세기북스.

김정원(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은(2001).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수행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화(200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연(2010). 구조와 즉흥의 관점으로 바라본 교육 연극 실천들. 연극교육연구, 17, 79-105.

김주연, 김병주(2014). 교육연극, 방법에서 철학으로: 황정현의 교육연극 접근 방식 고찰.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5(4), 293-308.

김지나(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육

아지원연구, 3(1)1, 5-26.
김지연(2014). Adler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현(2000).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정지나, 조윤주, 한준아(2008). 부모교육. 경기: 양서원.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2000),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김창하(2015). 교육연극을 통한 다문화 대안학교 초등학생의 협동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향식(2010).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미(2013).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정(2003).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2013).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김혜경(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연구의 동향 분석. 아동과 권리, 18(3), 331-336.
김혜영(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인(2012). 아우구스또 보알의 '토론연극'을 활용한 도덕 수업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2005). 현대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포괄적 관점. 서울: 창지사.
김희진(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서울: 다음세대.

김희진(201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2판). 서울: 파란마음.

남현주(2002). 연극 교육을 위한 연극놀이 지도방법 연구: 유아, 초, 중등 연극교육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명희, 박상희(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07-127.

노진형(2005a). 반성적 사고 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지체유아 모자에 대한 적용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진형(2005b). 부모교육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적용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85-104.

노희정(2016).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문제 해결형 도덕수업. 윤리교육연구, 39, 179-197.

도미향, 마미정(200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2(1), 23-37.

류관열(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3), 289-298.

류왕효(1997). 자기성장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육아보육학, 1(12), 77-100.

마미정, 박초아, 김동례, 정경진(2015)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부모교육연구, 12(2), 5-29.

문주형(2015). 교류분석에 기초한 집단상담식 유아부모교육 운영과정과 경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선옥(2013). 유치원에서의 부모코칭 적용과정탐색.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선옥, 배지희(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교육, 23(4), 263-285.

민병욱(2000). 창의적 드라마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연극학, 15(1), 149-185.

민병욱(2001). 교육연극의 현황과 전망. 어문학교육, 23, 13-28.

민병욱, 심상교(2000).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연극과 인간.

민병욱, 한귀은(2004). 교육연극의 현장. 서울: 연극과 인간.

박선미(2016). 정부 개발 부모교육 자료의 시대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숙(2011). 유치원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자녀의 출생순위와 교사의 근무연수를 중심으로. 상담평가연구, 4(1), 17-36.

박성옥, 강영자(1997). 부모역할 중요도와 수행의 어려움 및 자신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한국영유아보육학, 11, 159-178.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2013).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문제연구, 31(2), 157-178.

박재국, 서보순, 김혜리(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핵심역량 요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61-85.

박준용(2002). AugustoBoal의 '억압받은 자들의 연극'의 연극 치료적 속성에 관한 연구: 게슈탈트치료이론의 연극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옥, 조성희(2011).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537-559.

박현정(2013). 교육본위적 관점에서 본 교육연극의 교육적 의미 고찰.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련(2006). 토론연극을 통한 토론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혜경(2014). 소집단 부모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어려움 및 변화과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지희(2008).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부모참여 실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교육인류학연구, 11(1), 147-176.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백말순(2003). 부모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와 학부의 인식 및 요구조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경혜(2012). 예비교사들의 협력적 수업연구에 대한 실행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49-76.

서상아(2017). 민주적 부모교육을 병행한 아동의 개인미술치료가 분노감정 및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유아교육진흥원(2012).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성기욱(2012). 교육연극을 활용한 기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민정(2011). 교육연극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손환희, 정계숙(201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213-232.

송현숙, 곽희양, 김지원(2015). 놀이터의 기적: 놀이로 행복해지는 아이들.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신지수(2010).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 연극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현정(2009). 유아교육기관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혜란(2010). 콜센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극 적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효미, 유미숙(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가족과 문학, 27(1), 117-151.

안선희(2004). 부모참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29-49.

안지혜(2012). 교사-부모 의사소통에서 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2), 21-46.

양숙미(2002).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27-243.

오세곤, 박기동, 황정현, 김진영, 김창원, 김대현, 양종모, 오세곤, 김동준, 이복신, 이남재, 신은경, 전주현, 안치운, 김혁수, 조광석, 김화숙, 서정림, 유미희, 박영택, 주대창, 이규민, 설원기, 최진욱, 이상규, 김대현, 서명수, 김영호, 김성곤, 정현기, 김동환(2004). 예술교육이 미래를 연다.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오세덕(1995). 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과 부모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영희, 박창옥, 강영식, 김현정(2008). 부모자녀관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오지선(2016). 일상생활에서의 영유아 멀티미디어 사용 양상 및 부모의 생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형정(2011). 교육연극을 활용한 말하기 학습이 초등학생의 자기 표현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혜선(1999). 연극놀이의 교육적 활용 방안. 어문학교육, 21, 267-296.

원경미(2016). 부모역량강화 집단 성인놀이치료 프로그램이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은정, 김혜연, 박혜정, 신현정, 이찬숙, 황현주(2012). 부모교육. 경기: 양서원.

유종남(2014).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자아 존중감 및 자기 조절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형진, 문호영, 김미례, 송준석, 이영호, 정정숙(2016).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검사지 개발 및 활용의 실제. 경기: 아카데미.

윤형진, 문호영, 이영호, 박용민(2014). TACA형 자아상태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4(2), 25-77.

이경화, 김연진, 배지현(2009). 자녀이해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의미: 프로그램적 의미와 경험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9, 57-80.

이경화, 성영혜, 윤석희, 이신동(1999). 부모교육. 서울: 학문사.

이명순, 고여훈(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및 요구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435-456.

이명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한국가족복지학, 16(3), 209-224.

이명아(2013). 토론연극을 통한 교육연극 교육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지(2011). 반성적사고 중심 소집단 부모교육 모임의 경험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나(2014). 국·공립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 영·유아 교사와 가족의 인식 및 요구: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 오영진, 김영희(2009).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13(2), 53-70.

이미현(2009).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 통제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0(2), 89-101.

이병호, 오한나, 허수향(2013). 유아교육에서의 부모참여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165-179.

이선애, 김상림, 신희이(2015). 부모교육. 경기: 정민사.

이수동(1999). 시 교육의 연극적 방법 적용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복, 김문숙(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조화 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2), 171-186.

이순형, 민하영, 권혜진, 정윤주, 한유진, 최윤영, 권기남(2010).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이승숙(2015). 이중언어 교육지원 과정에 참여한 중국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어려움 및 변화과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언정(2000). 학습자 상호작용을 위한 희곡 지도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석, 김숙자, 이항재, 최민수(2005). 현대부모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이영자(2007). 적극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과 부모의 양육태도. 숙명여자대

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호, 박미현(2011). 생활 속의 교류분석 관계의 미학, TA. 서울: 학지사.
이완희, 최양미(2009). 영유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09년. 열린부모교육연구, 1(2), 87-109.
이원영(1985).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이원영, 배소연(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31.
이원영, 이태영, 강정원(2008). 영유아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이유미, 이정은(2013). 전통육아방식에 대한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간 인식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9, 267-299.
이윤석(2011). 웃음의 과학. 서울: 사이언스 북스.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황은숙(2010). 가구유형별 육아 지원 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010-03). 유아정책연구소.
이은경(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미(2010).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부모효능감 및 부부의 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상(1986).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논문집, 6, 151-182.
이은영(2015).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부모의 요구. 특수·영재교육저널, 2(2), 99-117.
이은화(1997). 부모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이은화, 김영옥(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이재경(2014). 모자 상호작용 주제 중심의 반성적 부모 토론 모임에서 나타난 양육태도 변화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택(2013). 자녀의 학업동기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자기 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택(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동향: 최근 10년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308-318.

이재현, 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이정주, 이종현(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2), 943-967.

이정화, 한희승, 최란(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1 (2), 89-109.

이지은(2014). 교육연극 기반 국어과 통합 수업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하정(2015). 유치원 부모소모임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어머니들의 경험과 변화. 유아교육학논집, 19(4), 295-320.

이현주(2005). 노인부부가구에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 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선(2008). 아동기의 올바른 성장(의사표현) 활동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연구.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원, 임미혜, 황윤세(201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관리. 경기: 공동체.

이호준(2007).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성찰과 전망: 참가자 관점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247-268.

이효원(1998). A. 보알의 욕망의 무지개와 그를 활용한 치료효과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승(1974). 엣센스 국어사전. 경기: 민중서림.

임미영(2010). 노인자살 시도 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연신, 현온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 40(11), 23-37.

임우영, 안선희(2011). 유아교사-부모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41-57.

장남희(2013). 토론연극의 배우에 관한 고찰: 프락시스의 토론연극 <눈사람?눈사람!Ver.2>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동선(2017). 우리의 뇌 속에 다른 뇌가 있다. 경기: 북이십일.

장미경(2012).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선(2012). 입학초기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극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꿈을 키우는 학교생활 첫걸음」 교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단(2016).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성애, 유연옥(200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3), 187-202.

장성오(2011).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연주(2015). 교육연극을 활용한 다문화교실 액션 리서치: 또래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은아(2015). 참여형 연극 교육을 통한 기업교육과정 연구: 아우구스또 보알의 토론연극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지원(2005).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참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순(2013).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장혜진, 윤은주(201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95-317.

전경미(2003). 교육연극을 통한 동화수업과 동화이해 연구. 어문학교육, 26, 201-234.

전귀연, 김수경(2005).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요구 및 만족도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3(5), 57-79.

전우경(2003).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우경(2010). 부모의 자기이해를 이한 부모교육 실천탐색: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교류분석과 심리사회 치료연구, 7(2), 75-90.

전춘애, 이미숙(200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0), 1-29.

정계숙, 견주연(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과 부모 효능감 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5, 113-143.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2015).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1(1), 129-151.

정계숙, 노진형(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79-105.

정계숙, 노진형(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교육공동체 인식이 교사와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713-736.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의 타당도. 유아교육연구, 36(2), 535-560.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박희경(2013). 메타분석을 통한 유아기 아동기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65-387.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최은아, 박희경, 김지연(2014). 액션러닝 기반 부모 역량 증진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34(2), 501-531.

정계숙, 최은실(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개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정미경(2003). 미술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참여 부모의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29-59.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정성희(2005). 지성과 감성의 상생적 통합 - 연극에 대한 교육적 탐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성희(2006). 교육연극의 이해. 서울: 연극과 인간.

정성희(2014). 지역공동체 내 교육연극의 사생적 결합방안. 교육연극학, 6, 81-91.

정영희(2002). 토론연극을 통한 논술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정윤정(2007).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유형 및 내용분석. 인천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오(1993). 사회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둘연(2006). 체계적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미영(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 활동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미영(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미영, 배지희(2009). 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유아교사의 담론분석. 아동교육, 18(2), 221-234.

조옥형(2013).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문제행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미(1988). 부모교육 Program의 유형별 특성과 현황분석.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10, 55-75.

조진형(2009). '행복한 부모되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형숙, 김명하(2012).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자아상태 및 심리적 자세의 차이: 어머니의 자기분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01-218.

조형숙, 박은혜, 신은수, 김낙흥(2012). 영유아교육복지 내실화 방안.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2012-1.

지은주(2009). 패널식 토론연극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영란(2012).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한 유아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적

용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205-237.

최명희(2016).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시대적 변화 추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윤정(1995). 연극놀이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영(2002). 중등과정에서의 연극 활용, 그 실제와 전망. 연극교육연구, 8, 213-234.

최지영(2014). 과정중심연극으로서 교육연극의 특성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성 창출을 위한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지영, 염애경(2011). 취학 전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유아지원연구, 16(1), 5-46.

최해주, 문수백(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 그리고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69-88.

한경님(2013). 다문화가정을 위한 역량 있는 부모되기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4, 127-160.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2012). TA상담 이론과 실제 Ⅰ. 경기: 아카데미.

한국유아교육학회(1999). 유아교육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한민희(2012). 자기표현력 신장을 위한 교육연극의 활용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길(2009). 평생 교육론. 경기: 공동체.

한성심(2005).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아동복지연구, 3(3), 145-169.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세정(2014).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아우구스또 보

알의 '토론연극' 활용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유선(2005). 연극의 교육적 효용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브레히트와 Augusto Boal 연극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후지하라 가즈미로. (2016). 완벽하지 않은 스무 살을 위한 진짜 공부[*Tatta ichido no zinsei wo kaeru benkyou wo shiyou*](임해성 역). 파주: 21세기 북스. (원전 2015 출판)

Becher, R. M. (1982). *Parent educ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5th ed. 3 vols.). New York, NY: The Free press.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Bolton, G. (1999). *Acting in classroom drama: A critical analysis.* Portland, ME: Calender Islands.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Home 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 1990 출판)

Bronfenbrenner, V. (197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al, A. (1995). *The rainbow of desire: The boal method of theatre and therapy.*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Caffarella, R., & Merriam, S. (2000). Linking the individual learner to the context of adult learning. In A. L. Wilson & E. R. Hayes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Cataldo, C. Z. (1987). *Paren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Chilman, C. (1973). Programs for disadvantaged parent. In B. M. Caldwell & H. 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3, pp.403-65).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hen, L. J. (2011). 아이와 통하는 부모는 노는 방법이 다르다[*Playful parenting*](이주혜 역). 서울: 양철북. (원전 2001 출판)

Courtney, R. (2007). 연극은 지적행위인가: 교육연극의 인지론적 이해[*Drama and intelligence: A cognitive theory*](황정현, 양윤석 역). 서울: 평민사. (원전 1989 출판)

Courtney, R. (2010). 교육연극 교육과정론(황정현 역). 서울: 박이정. (원전 1980 출판).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2ed ed)*](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7 출판)

Cunham, F., Heckman, J. J., Lochner, L., & Masterov, D. (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eVries, R., Zan, B., Hildebrandt, C., Edmiaston, R., & Sales, C. (2007). 구성주의 유아교수법[*Developing constructivist early childhood curriculum: Practical principles and activities*](곽향림, 허미화, 김선영 역). 서울: 창지사. (원전 2002 출판)

Dewey, J. (200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철학개론 (개정・증보판)[*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이홍우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전 1916 출판)

Dinkmeyer, D., & Mckay, G. D. (1975).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STEP).*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Doherty, W., & Ryder, R. (198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PET): Criticisms and cavea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6*, 409-419.

Dreikurs, R., & Soltz, V. (2012). 민주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Children: the challenge*](김선경 역). 서울: 우듬지. (원전 1992 출판)

Earhart, E. M. (1980). Parent edu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72*, 939-952.

Eberhard, D. (2016).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Hur barnen tog makten*](권루시안 역). 서울: 진선. (원전 2013 출판)

Elkind, D. (2008). 놀이의 힘[*The power of play*](이주혜 역). 서울: 한스미디어. (원전 2007 출판)

Epstein, A., L., M., & Halpern, R. (1995). *A guide to developing community-based family support program.* Ypsilanti, MI: High/Scope.

Fine, M. J. (1980).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NY: Academic Press.

Fine, M. J., & Henry, S. A. (1988).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NY: Academic Press.

Galinsky, E. (1994). Families and work: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the work environment. In S. Kagan & B. Weissbourd (Eds.), *Putting families first: America's family support movement and the challenge of change* (pp. 112-136).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Glesne, C. (2008). 질적 연구자 되기[*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3/E](안혜준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전 2006 출판)

Gordon, T. (2002). 부모역할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훈구 역). 서울: 양철북. (원전 2000 출판)

Greenee, M. (2011). 블루 기타 변주곡[*Variations on a blue guitar*](문승호 역). 서울: 다빈치. (원전 2001 출판)

Gronemeyer. A. (2005). 연극: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연극이야기[*Schnelkurs theater*](권세훈 역). 서울: 예경. (원전 1995 출판)

Halvorson, G. H., & Higgins, E. T. (2014).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강유리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원전 2013 출판)

Hammer, T. J., & Turner, P. H. (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NY: Prentice-Hall.

Han, S. S. (2005). An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winnicott's object relation theory for the developmen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3*(3), 145-169.

Harman, D., & Brim, O. G. (1980). *Learning to be par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Hurrelmann, K. (1994).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rlin, Germany: Walter de Gruyter.

Huizinga, J. (1950).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Boston, MA: The Beacon Press.

Hatch, J. A. (2008).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진영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2 출판)

Jackson, T. (1990). Great britain. In L. Swortzell (Eds.), *International guide to children's theatre and rducation theatre: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ource book*. Westport, CT: Greenwood Press.

Jackson, T. (2004). 연극으로 배우기[*Learning through theatre*](장혜전 역). 서울: 소명출판.

James, M., & Jongeward, D. (2008). 아이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다[*Born to win*](이원영 역). 서울: 샘터. (원전 1996 출판)

Jenkins, L., & Sullivan, M. (2011). Professionals and families: Partners in care. In G. Ensher & D. Clark (Eds.), *Relationship-centered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pp. 185-210). Baltimore, MD: Paul H. Brookes.

Johnson, L. & O'neill. C. (1985). *Dorothy heathcote: collected writings on education and drama.* London, England: Hutchinson.

Kemmis, S., & McTaggart, R.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3ed ed.).* Geelong,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Kettner, P., Moroney, R., & Martin, L. (1999). *Designing and managing programs: An effectiveness-based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King, N. (2003). *Playing their part: language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New York, NY: Heineman.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NJ: Cambridge Adult Education.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Margaret, P. (2013).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Inner Bonding*](정은아 역). 서울: 소울메이트. (원전 1992 출판)

McCaslin, N. (2000). *Creative drama in the classroom and beyond* (7th ed.). London, England: Addison Wesley Longman, Inc.

McCaslin, N. (2006). *Creative drama in the classroom and beyond.* New York, NY: Longman.

Mezirow, J. (2000).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 Mezirow &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 on a theory in progress* (pp. 3-3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OECD (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DeSeCo)-Summary of the final report.* Paris, France: OECD Press.

O'Neill, C. & Lambert, A. (1994). *Drama Structures: A practical handbook for teacher*. Portsmouth, NH: Stanley Thornes Publishers Ltd.

Paris, E. (2013). Interrupting trauma and advancing development: considering parent education in contemporary psychoanalytic treatment,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1*(1), 84-92.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C. Gattengo & F. M. Hodgson Eds.). New York, NY: Norton.

Popkin, M. H. (2007).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Active parenting now: parent's guide*](홍경자, 노안영, 차영희, 최태산 역). 서울: 학지사.

Reynolds, A. J., Mavrogenes, N. A., Hagemann, M., & Bezruczko, N. (1993). School, families, and children: Sixth-year results from the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t risk. In A. Herderson & N. Berla (Eds.), *A new generation of evidence: The family is critical to student achievement* (pp. 108-109). Washington, DC: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s in Education.

Rosenberg, H. S. & Prendergast, C. (1983). *Theatre for young people: A sense of occasion*.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Ruby, P., & Decety, J. (2004). How would you feel versus how do you think she would feel? A neuroimaging study of perspective-taking with social emotion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6*(6), 988-999.

Rychen, D. (2003). *Investing in competencies-But which competencies and for what? A contribution to the ANCLI/AEA conference on assessment challenges for democratic society(conference paper)*, Conference in Lyon, November 2003.

Scarlett, W. G. (2003). Proactive parenting for behavior problems. In faculty of tufts university's eliot-Pers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Ed.), *Proactive parenting guiding your child from two to six*. New York, NY: Berkley Books.

Sennett, R. (2013).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김병화 역). 서울: 현암사. (원전 2012 출판)

Siegel, D., & Martzell, M. (2013).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NY: The Penguin Group.

Solter. A. J. (2015). 애착놀이 아이들의 행동문제를 놀이, 웃음, 관계로 풀어가기[*How to solve children's behavior problem with play,*

laughter, and connection](김미나 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Spradley, J. P. (2006). 참여 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1980 출판)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Stewart, I., & Joines, V. (2010). 현대의 교류분석[*TA today: A new introduction analysis*](제석봉, 최외선, 김갑숙, 윤대영 역). 서울: 학지사. (원전 1987 출판)

Stuart, B,. & Christopher, V. (2010).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Play: How it shapes the brain, opens the imagination, and invigorates the soul*](윤미나 역). 서울: 흐름. (원전 2009 출판)

Thomas, R. (1996). Reflective dialogue parent education design: Focus on parent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5*(2), 189-200.

Vig, S., & Kaminer, R. (2003).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evaluation as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Infant and Young Children, 16*(4), 342-353.

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for Empowering Parents by Using Forum Theatre

MIN, Sun-Ok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for empowering parents by using forum theatre, in order to help mothers with children in infancy understand their life and empower themselves, and analyze an effect of the program on parental competence and change of it by applying it to them.

The questions set by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program for empowering parents using forum theatre composed?

Second, what an effect does the program for empowering parents using forum theatre have on parental competence?

The program for empowering parents using forum theatre has been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examination and analysis of needs, development of draft of program, consultation with experts, preliminary researches and developing stage of the program. The program developed through such procedures was compos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encourage mothers who foster children in infancy to understand their life and empowering themselves. Therefore, some goals are selected: 'to understand themselves by analyzing patterns of exchanges and self states', 'to reflectively consider parental experiences about their infancy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and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democratic discipline principles and play.'

Second, according to the goals and the purpose of the program, some educational contents were composed as follows: function and structure of self states, plan to activate self states, analysis of exchange patterns and sound exchange method, analysis of parent's infancy, reflective consideration through experience of parental roles,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democratic discipline principles and those using play.

Third, the teaching-learning stage in the program consisted of five stages: opening of body and mind, appreciating problematic theatre of situations, sharing information for solving problems, discussing for solving problems and applying plan to solve them. As teaching methods, lectures, problematic theatre of situations, discussions and journals were selected. In addition, various media such as PPT, prints, video materials and so on were used for effective teaching.

Fourth,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an effect of the program was verified through use of self states and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examination kit and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an effect of the program for empowering parents using forum theatre, total 10 sessions of program for empowering parents were conducted for 8 mothers with infants attending Y kindergarten located at Seoul, from March, 29 to June, 7, 2017. There self-system and parenting competence were tested before/after application of the program, in order to analyze an effect of the program on mothers. Wilcoxon Signed Rank Test of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by using SPSS 24.0 program. In addition, qualitative change process of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as analyzed by collecting data of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s, study diaries and field notes and journals and assessment sheets. Based on suc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 effect and a change process of the applied program were as follows:

First, Wilcoxon Signed Rank Test of mothers' self-system competenc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scores. This means that the program enhances mothers' self-system competence.

Second, Wilcoxon Signed Rank Test of mothers' parenting competenc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scores. This means that the program enhances mothers' parenting competence.

Third, an examination of change i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exhibits that each mother recognizes not only her parental roles but also herself as an individual. From such a change in recognition, they experience a conflict between parental roles and needs of them as individuals, and select a behavior to care for themselves. Moreover, their habitually repeated parental roles are changed into those that are selected depending on situations, as they recognized their roles as not fixed and abstract ones but dynamic and transformed ones according to growth of children and parents. Finally, mothers take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by escaping from authoritarian ones, as they recognized problems of their own parenting attitudes.

Accordingly,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experience positive changes in their parenting attitudes, as they understand themselves and resolve difficulties of parental rol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pport program reflecting not only needs to be good parents but also personal ones. The forum theatre is a process of a discussion and a demonstration, both of which help parents recognize problems, discover reasons of them and approach them at various angles, while objectively experiencing their lives. Hence, they understand themselves and search for changes for themselves. Thus, the forum theatre can be found to be valuable as a learners-based teaching-leaning method.

부 록

부록 1.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부록 2. 자아상태 검사도구

부록 3. 부모 참 역량 검사도구

부록 4. 토론연극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부록 1.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 증진 프로그램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지

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유치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역량증진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함을 적지 않으셔도 되며, 모든 응답은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학문적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모든 문항에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완성된 질문지는 **____월 ____일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 ○ 유 치 원

다음의 질문들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시거나 '기타' 칸에 직접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1. 설문에 응하시는 부모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_____ 세

2. 설문에 응하시는 부모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 ] 여자 ② [ ] 남자

3. 설문에 응하시는 부모님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① [ ] 중졸미만 ② [ ] 고졸

③ [ ] 대졸 ④ [ ] 대학원졸 이상

4. 설문에 응하시는 부모님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① [ ] 예 ② [ ] 아니오

5. 직장을 다닌다면 하루 평균 집 밖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6시간 이상입니까?

① [ ] 예 ② [ ] 아니오

6.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 ] 100만원 이하 ② [ ] 101 ~ 200만원

③ [ ] 201 ~ 300만원 ④ [ ] 301 ~ 400만원

⑤ [ ] 401 ~ 500만원 ⑥ [ ] 501 ~ 600만원

⑦ [ ] 601 ~ 700만원 ⑧ [ ] 700만원 이상

7. 현재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8.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① 첫째, _____세 여아( ) 남아( )

② 둘째, _____세 여아( ) 남아( )

③ 셋째, _____세 여아( ) 남아( )

④ 넷째, _____세 여아( ) 남아( )

9. 현재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간의 이용시간은 어떠합니까?

① [ ] 반일제　　② [ ] 종일제

③ [ ] 연장제　　④ [ ] 기타( )

10. 해당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 ] 어머니(본인)　　② [ ] 남편

③ [ ] 친정 부모님　　④ [ ] 시부모님

⑤ [ ] 친척　　⑥ [ ] 개인 도우미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1. 자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도움 받거나 알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 있으셨습니까?

① [ ] 한 번도 없었다.　　② [ ] 별로 없었다.

③ [ ] 조금 있었다.　　④ [ ] 항상 있었다.

2.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 예　　② [ ] 아니오

3. 부모교육의 내용은 필요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기존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1. 부모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 ] 있다. ② [ ] 없다.

1-1.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기록 및 체크해주세요.

1) 경험하신 부모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_____

2) 경험하신 부모교육은 몇 회기 프로그램이었습니까? _____

3) 교육시간이 회기 당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_____

4) 부모교육을 경험한 이후 효과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 매우 오래 ② [ ] 약간 오래

③ [ ] 짧게 ④ [ ] 교육 직후 사라짐

5) 경험하신 부모교육의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수 표기 가능)

① [ ] 자녀의 발달이해 ② [ ] 부모의 역할이해

③ [ ] 부모의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안 제시

④ [ ] 흥미로운 참여식 교육방법

⑤ [ ] 교육 후의 지속성 ⑥ [ ] 교육시간

⑦ [ ] 프로그램 과정 ⑧ [ ] 필요한 정보제공

6) 경험하신 부모교육의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수 표기 가능)

① [ ] 후속프로그램과의 단절 ② [ ] 강연자와의 소통

③ [ ] 부모의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안 제시

④ [ ] 흥미로운 참여식 교육방법

⑤ [ ] 교육 후의 지속성 ⑥ [ ] 교육시간

⑦ [ ] 프로그램 과정 ⑧ [ ] 정보량의 부족

2.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다수 표기 가능)

① [ ] 부모교육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 ]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③ [ ] 부모교육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④ [ ] 함께 부모교육에 참석할 친구가 없어서

⑤ [ ]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⑥ [ ]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서

⑦ [ ] 아직은 부모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서

⑧ [ ] 기타 : _____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경험한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연극으로 감상하고
참여자들과 토론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참여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역할을 돕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 매우 필요하다 ② [ ] 필요하다
③ [ ] 필요하지 않다 ④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역할을 돕는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 매우 필요하다 ② [ ] 필요하다
③ [ ] 필요하지 않다 ④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

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십니까?

① [ ] 예 ② [ ] 아니오

1-1.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 ] 토론연극이라는 새로운 접근에 대한 흥미 때문에

② [ ] 토론연극이라는 적극적인 참여 형태 때문에
③ [ ] 토론연극이 자녀와의 관계회복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
④ [ ]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⑤ [ ] 기타 : _____

2.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의 실시 희망 요일은 언제입니까?

① [ ] 평일(월-금) ② [ ] 토요일 ③ [ ] 일요일

3.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교육받기 적당하십니까?

① [ ] 오전 10시-오전 12시 사이
② [ ] 오전 12시-오후 2시 사이
③ [ ] 오후 2시-오후 4시 사이
④ [ ] 오후 4시-오후 6시 사이
⑤ [ ] 오후 6시 이후

4. 1회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 1시간 이내 ② [ ] 1-2시간
③ [ ] 3~4시간 ④ [ ] 기타 _____

5.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주 1회 실시한다면 총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 총 8회
② [ ] 총 10회
③ [ ] 총 12회
④ [ ] 총 15회

6. 어떤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② [ ] 지역사회 공간(동사무소, 마을회관)

③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7. 부모모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락받기를 원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 ] 등·하원 시 직접 만났을 때

② [ ] 전화 ③ [ ] 가정통신문이나 쪽지편지

④ [ ] 이메일(e-mail) ⑤ [ ] 핸드폰 문자메시지

8. 어떤 도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참여하기에 더 편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 ] 자녀 돌보기

② [ ] 간식 및 식사제공

③ [ ] 교통편 제공(예: 셔틀버스 운행)

④ [ ]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안내

⑤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9. 이외 토론연극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부록 2. 자아상태 검사도구

자아상태 검사지(Ego State Checklist)

검사를 시작하기 전

본 검사는 성격진단이나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검사는 개인의 삶의 태도와 경향을 알아보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검사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은 다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를 별도의 응답지 해당 문항의 빈 칸에 숫자를 써 놓으면 됩니다.

본 검사의 한 문항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본 검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느끼고 행동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 인생태도 검사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숫자로 응답지에 표시하시오.

⑴ 전혀 그렇지 않다 ⑵ 그렇지 않다 ⑶ 그저 그렇다 ⑷ 그렇다 ⑸ 매우 그렇다

1.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긴다.

2. 남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화를 내거나 지적을 한다.

3. 밝게 행동하고 유머스런 말을 하며 장난을 잘 친다.

4. 타인의 실수에 대하여 너그럽게 행동한다.

5. 다른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한다.

6. 어른들이나 윗사람 앞에서 우물쭈물한다.

7.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한다.

8. 슬프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가 종종 있다.

9.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다.

10. 기쁘거나 화가 날 때 숨기지 않고 바로 표현한다.

11. 남에게 받기보다는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12. 어떤 일이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13.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14. 나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15.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지적한다.

16. 화려한 색깔의 옷이나 신발 등을 좋아한다.

17.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먼저 양보를 잘 한다.

18.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19. 나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한다.

20. 미래에 대하여 철저하게 계획하고 행동한다.

21.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22. 재미있는말과 행동으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간다.

23. 내 가치관에 입각하여 내 생각을 서슴없이 말한다.

24.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보다는 칭찬하기를 좋아한다.

25.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더 우선적으로 내세운다.

26.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깊이 생각을 한다.

27.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지낸다.

28. 남을 잘 이해하고 배려한다.

29. 미래의 일에 대해 예측하기를 좋아한다.

30. 매사에 조심스러우며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31.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잘한다.

32. 남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33. 신이 날 때는 도가 지나쳐 실수를 할 때도 있다.

34.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

35.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공감한다.

36. 꼼꼼하고 계획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37.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38.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39. 주어진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한다.

40.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을 좋아한다.

41.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다.

42. '반드시', '당연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43.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감정 표현을 잘 한다.

44. "~~해", "~~하지 않으면 안 돼"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45.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잘 본다.

46. 공부, 일, 업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한다.

47.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다.

48. 농담이나 짓궂은 행동을 잘 한다.

49. 나 자신의 감정(느낌)을 억누르거나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50. 친구나 아랫사람을 잘 챙긴다.

부록 3. 부모 참 역량 검사도구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

이름 : _____ 성별 : 남 □ 여 □ 나이: _____

학력 : _____ 직업 : _____ 검사일 : 20 년 월 일

[응답요령] 아래의 문항을 읽고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주세요.

점수	1	2	3	4	5	6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량	하위역량	문항	1	2	3	4	5	6
양육역량	자녀발달 특징 ·욕구 이해	1. 나는 우리 아이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과 욕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2. 나는 아이의 발달과 욕구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한다.						
		3. 나는 아이의 발달과 욕구를 더욱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부모 -자녀 관계이해	4. 나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5. 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6. 나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애쓴다.						
	건강한 부모관 갖기	7. 나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한다.						

		9. 나는 더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						
	자녀 삶과 양육 방향 목표설정	10. 나는 아이에게 어떤 양육(교육)이 필요한지, 나의 양육(교육) 목표는 무엇인지 알고 있다.						
		11. 나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양육(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수정해가면서 적절하게 양육한다.						
		12. 나는 내 욕심보다 아이에게 맞는 양육(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려고 애쓴다.						
	인내심 갖기	13. 나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4. 나는 양육 시 생기는 아이와의 갈등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15. 나는 조급한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변화를 참고 기다려주려고 노력한다.						
	민주적 양육	16. 나는 부모의 권위보다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는 민주적 양육(훈육)에 대해 알고 있다.						
		17. 나는 평소 민주적 양육(훈육)방법을 실천한다.						
		18. 나는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스리는 상황에서도 민주적으로 대하려고 애쓴다.						
	반응적 공감적 양육	19. 나는 아이의 속마음을 읽고, 그에 맞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0. 나는 아이의 속마음을 일고, 그에 맞추어 반응하고 공감해준다.						
		21. 나는 아이의 속마음을 읽고 반응하며 공감하는 방법을 찾아서 익히려고 노력한다.						
	자녀생애 진로개발	22. 나는 아이에게 맞는 진로와 소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3. 나는 아이의 진로와 소질을 개발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24. 나는 아이의 진로와 소질개발에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발달·학습지원 환경제고	25. 나는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어떤 교육적, 물질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26. 나는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적절하게 교육적,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 있다.						
		27. 나는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더욱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하다.						

※ 다음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량	하위역량	문항	1	2	3	4	5	6
자기체계역량	능동적 행동	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3.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나의 능력은 더욱 더 향상될 것이다.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4.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도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6.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 능력은 더욱 더 향상될 것이다.						
	자기 삶, 방향・목표설정	7.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8.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9. 보다 나은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을지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강점 자기 역량 개발	10. 나의 강점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11. 평소 나의 강점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12. 제한된 여건에서도 늘 나의 강점과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쓴다.						
	지속적 자기 생활	13. 나는 언제, 어떻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14. 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방법(일기, 명상 등)을 실천하고 있다.						

		15. 나는 항상 더 많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노력한다.						

※ 다음은 부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량	하위역량	문항	1	2	3	4	5	6
사회적역량	주변 자원 활용	1. 나는 내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안다.						
		2. 나는 내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찾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3. 생활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내 주변에 더 있는지 찾아보려고 애쓴다.						
	주변 환경 조절 능력	4. 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주변 환경은 내가 조정해가며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5. 나는 내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조정해가며 살고 있다.						
		6. 나는 주변 환경을 조정하는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공동체 정신	7. 나는 공동체 정신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알고 있다.						
		8.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9.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더욱 행복해지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사회 봉사 하기	10. 나는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11. 나는 작은 것이라도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12. 나는 더욱 뜻있는 사회봉사의 실천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부록 4. 토론연극의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1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알고 싶은 나 **엄마가 말했지!** 빔, 컴퓨터, PPT(TV 슬라이드), 역할 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5살 예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텔레비전을 본다. 예지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엄마는 집안일을 한다.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고 자야 할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지는 텔레비전을 더 보기 원한다.

엄마 :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어. 자 이제 자자.
예지 : 싫어. TV 더 볼래.
엄마는 아이를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한다.
엄마 : 엄마가 말했지. 이제 자야 한다고 했지. 자, 어서 자!
예지 : 싫어. 잠이 안 와.
엄마는 TV를 신경질적으로 끄며 말한다.
엄마 : 너 엄마한테 맞고 싶어?
예지 : (예지는 다시 TV를 켜려고 하며) 엄마, 미워. 아주 나빴어.
엄마는 예지의 손목을 붙잡고 아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 준 다음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간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2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새롭게 피어나는 나 **엄마, 나도 나도**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역할 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예지는 오늘도 손가락을 빨고 거실을 기어 다닌다.
동생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 엄마를 쳐다보며 예지가 말한다.

예지 : 엄마, 나도 안아 줘.
엄마 : 엄마는 지금 동생을 안아주고 있잖아.
예지 : 나도 우유 줘.
엄마 : 너는 아까 마셨잖아.
예지 : (엄마에게 안기려고 다가가며)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안아 줘. 안아 줘~
엄마 : 너는 꼭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을 때 그러더라. 저리 가서 놀아!
예지 : (울기 시작하며) 엉어엉 엄마, 미워.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엄마 : (동생을 재우며) 동생 깨기만 해. 너 혼날 줄 알아!
예지 : 엄마 미워!
엄마 : (예지의 엉덩이를 때리며) 조용히 해!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3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행복한 어머니로의 나 **왜 못들은 척 해?**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블록,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예지는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블록을 바닥에 내리치고 있다. 엄마는 동생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한다.
엄마 : 예지, 그러지 마세요.
예지는 엄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블록을 바닥에 더 세게 내리친다.
엄마 : (간식을 준비하며) 예지, 엄마 말 안 들려요.
예지 : 들려요.
예지는 여전히 블록을 바닥에 내리친다.
엄마 : (성난 목소리로) 예지, 엄마가 그만 하라고 했어!
예지는 잠시 엄마를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블록을 바닥에 내리친다.
엄마 : (예지에게 다가와 엉덩이를 때리며 더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했지!
예지가 하던 놀이를 멈추고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 : (성난 목소리로) 너는 왜 엄마가 조용히 말할 때는 안 보고 소리 지를 때만 보는 거야? 그리고 블록 망가지면 엄마를 쫓아다니며 또 엄마한테 고쳐달라고 조를 거면서 왜 소중히 다루지 않는 거야?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4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나의 부모이야기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이웃에 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신다. 나는 매일 아침에 친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다. 하지만 급한 성격의 친정어머니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으로 오셨다.

친정어머니 : 내가 예지 준비시킬게. 너는 너 출근 준비 해.
예지어머니 :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내가 준비시킬게.
예지 : (흐느끼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엄마, 가지마.
친정어머니 : 어서 출근해.
예지어머니 : 아니야. 엄마,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어. 내가 예지 준비시켜서 엄마 집으로 갈게.
친정어머니 : 그러다가 지각해. 예지 어서 옷 입어. 혼자서 입는 거야.
예지 : 엄마 가지마. 엉엉엉
친정어머니 : (예지를 가로막으며) 엄마는 출근해야 해. 너는 유치원에 가는 거야. 울지 말고 어서 준비해.
예지어머니 :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엄마 마음대로 야.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5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부모인 나의 이야기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데 학습지는 어느 것이 좋아?**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예지엄마와 은별이 엄마는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 유치원에서 만났다.
예지엄마 : 요즘 예지가 은별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은별엄마 : 우리 은별이도 집에 오면 예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지는 벌써 한글도 읽는다면서요?
예지엄마 : 우리 예지는 4살부터 한글은 읽었어요. 요즘은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제법 영어로 인사도 하고 사물을 보면 영어로 말하기도 해요. 은별이는 어느 학원에 다녀요?
은별엄마 : 우리 은별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예지엄마 : 은별엄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하려면 이미 늦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시작했는데 은별이만 늦지 않겠어요.
은별엄마 : 아직 어린데 학원까지는...
예지엄마 : 에고, 은별이가 첫 애라 뭐를 모르는구나. 그럼 학습지라도 시켜요.
은별엄마 : 학습지요? 영어도 학습지가 있어요? 어느 학습지가 좋아요?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6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자녀 마음 이해하기 **엄마, 이 책 또 읽어주세요.**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예지엄마는 예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림책을 읽어준다. 하지만 예지는 늘 같은 그림책을 선택한다. 예지엄마는 예지가 다양한 그림책을 감상하길 원한다. 그래서 예지가 유치원에 갔을 때 예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숨겼다.

엄마 : 예지야,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네가 읽고 싶은 그림책을 가져올래?

예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찾는다.
예지 : 엄마, 내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책이 없어요.
엄마 : 네가 매일 읽어달라는 그림책을 말하는 거니?
예지 : 네. 내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책이 없어요.
엄마 : 공룡 그림책이 왜 없을까? 오늘은 엄마가 재미있는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게. 이 영어 그림책도 재미있어.
예지는 그림책을 계속 찾는다.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7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자녀와 이야기하기 **엄마, 놀이기구 더 타고 싶어요.**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놀이공원으로 친구의 가족들과 나들이를 갔다. 모두 놀이기구를 여러 차례 탔기 때문에 이제 동물원으로 이동하기로 한다. 하지만 예지는 엄마에게 놀이기구를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말한다. 예지가 엄마에게 조르는 사이 다른 친구가족들은 동물원으로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예지 : 엄마, 놀이 기구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엄마 : 안 돼. 벌써 몇 종류를 탔는지 아니?
예지 : 한 번만 더 타게 해주세요.
엄마 : 이미 많이 탔어. 안 돼.

친구가족들은 동물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예지 : 엄마, 놀이기구, 놀이기구...
엄마 : 얘가 왜 이래?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자꾸 떼쓰면 여기에 두고 갈 거야.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8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자녀와 놀이하기 **나는 종이접기 더 할래!**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색종이,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종이 접기를 하자고 했다. 아빠는 전날 늦게 자서 피곤하고 힘든 아침이었다. '깨자마자 종이 접기라니'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살짝 짜증이 났다.

아빠 : 예지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데?
예지와 은별이는 종이접기 책을 가져오더니, 하나씩 만들고 싶은 것을 가리켰다.
아빠 : 은별이는 표창을 만들고 싶고, 금별이는 공룡을 골랐네.
아빠와 아이들은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다. 이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 여보, 얘들아, 아침 먹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와 은별이는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예지가 꼼작하지 않는다.
아빠 : 예지도 아침 먹으러 가야지.
예지 : 싫어. 난 색종이 4개 접을래.
아빠 : 아침부터 무슨 종이 접기를 4개씩이나... 안 돼!

예지 : 싫어, 싫어. 난 종이 접기 할래.
아빠 : 유치원에 가려면 지금 밥을 먹여야 해.
예지 : (눈물을 그렁거리며) 나 밥 먹기 싫어. 색종이 접을래.
아빠 : 안 돼. 밥 먹을 시간이야.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내 예지는 울음을 터트린다.
예지 : 앙~
아빠 : 이 녀석이, 지금 종이 접기를 계속하면 유치원 버스를 놓치는 데 왜 이렇게 떼를 쓰지. 이 녀석 떼쓰는 버릇은 초장에 잡아 야 해. 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있어!

문제상황극 시나리오 9	주제 문제 상황극 제목 자료	여러 자녀와 놀이하기 **내 책 먼저 읽어 줘.** 빔, 컴퓨터, PPT(배경화면), 그림책, 역할목걸이

문제 상황극 시나리오

은별이는 6살의 남자아이, 예지는 4살의 여자아이이며 둘은 남매이다. 오늘은 예지가 탑을 쌓으며 생일을 축하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예지 :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때 은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가방을 정리하려고 한다. 은별이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예지 옆을 지나가다가 예지가 블록으로 만든 케이크를 무너뜨리게 된다.
예지 : 으앙~~~~~~ 엄마 : 무슨 일이야?
예지 : (예지는 케이크를 가리키며) 오빠가 내 케이크를 으앙~~~~
엄마 : 은별이 너 예지케이크를 왜 망가뜨렸어? 어서 사과해.
은별 : (억울한 표정으로) 미안해
엄마 : 둘 다 이리 와.

엄마는 두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엄마 : 너희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어줄게. 가져와 봐.

두 아이는 책장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서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온다.
은별 : 엄마, 이 책 읽어주세요.
예지 : 엄마 이 책 읽어 줘.
은별 : (예지를 밀치며) 내 책 먼저 읽어 주세요. 내가 먼저 가져 왔잖아.